

회보 18권 2호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8. 4

제18대 집행부 사업 공고와 안내
제36회 NAKS 학술대회 안내
NAKS 집행부 사업 보고
14개 지역협의회 소식과 사업 보고
모범학교 소개
교사와 학생의 글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www.naks.org

■ 차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설립 목적 및 사명	3
인사말씀 / 이승민 총회장	6
격려사 / 고은자 이사장	7
축사 / 조운제 주미대사	8
공고와 안내 / 제3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9
공고와 안내 / 장기 근속교사 및 개교 20주년 이상 표창	12
공고와 안내 / 교사 ID 제작	12
공고와 안내 / 협의회 회보, 교육 연구지	13
공고와 안내 / 제22회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13
공고와 안내 / 제1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14
공고와 안내 / 제3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15
공고와 안내 / 제8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15
공고와 안내 / 학술대회 집중연수	17
공고와 안내 / 제14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18
공고와 안내 / 제2회 한국어 수업 학습활동 포스터 경시대회	20
공고와 안내 / 차세대 교사 워크숍	20
공고와 안내 / 한국 문화체험관 소개	21
공고와 안내 / 직지 세계화를 위한 직지 캠프	21
공고와 안내 / NAKS 웹 활성화	21
공고와 안내 / 통일 교육과 현장 견학	22
NAKS 사업 보고 / 제18대 집행부 사업 보고 (2017.4.1. ~ 2018. 3.31.)	22
NAKS 사업 보고 / 제18대 집행부 사진으로 보는 사업과 활동	29
지역협의회 소식 / 각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40
남서부, 뉴잉글랜드, 동남부, 동북부, 동중부, 미시간, 북가주, 서북미, 워싱턴, 중남부, 중서부,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와이	
지역협의회 소식 / 모범학교 소개와 회원교 소개	63
지역협의회 소식 / 교사의 글	74
지역협의회 소식 / 학생의 글 - 수상작	75
감사의 말씀 / 제18대 임원진	79

■ 집행부 임원진 Executive Officers

총회장 · 이승민 President · Seungmin Lee president@naks.org
부회장 · 오정선미 Vice President · Sunmi Jung Oh vp-so@naks.org
부회장 · 유미순 Vice President · Kristie Yoo vp-ky@naks.org
사무총장 · 황정숙 General Secretary · Jane Cho gs@naks.org
재무 · 김미경 Treasurer · Mi Kyung Park treasurer@naks.org
편집장 · 김윤희 Editor-in-Chief · Stephanie Yuni Kim editor@naks.org
교육간사 · 김선형 Education Affairs · Rachael Lee edu@naks.org
홍보간사 · 윤한나 Public Relations · Hanna Yun pr@naks.org
웹간사 · 지수경 Web Manager · Sookyung Ji web@naks.org
이사장 · 고은자 Board Chairman · Eunja Ko koeunja@gmail.com

■ 지역협의회 회장 Presidents of Regional Chapters

남 서 부 Southwest · 김윤희
뉴잉글랜드 New England · 이현경
동 남 부 Southeast · 선우인호
동 북 부 Northeast · 황현주
동 중 부 Mid-Atlantic · 심수목
미 시 간 Michigan · 김선미
북 가 주 N. California · 한희영
서 북 미 Northwest · 조영숙
워 싱 턴 Washington D.C. · 김명희
중 남 부 Midsouth · 김명숙
중 서 부 Midwest · 윤현주
콜 로 라 도 Colorado · 유미순
플 로 리 다 Florida · 김진희
하 와 이 Hawaii · 손애자

발행일 2018년 4월 15일 | 통권 제18-2
발행인 이승민
편집인 김윤희
발행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

인쇄: 대진프린팅 | dj9614@hanmail.net
 Copyright ©2018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All rights reserved.

설립 목적 및 사명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는 미주에 있는 1,000여 주말 한국학교의 연합체이다.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의 개발과 육성,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함양, 교육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 추구 등 한인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종합 한인 교육 기관으로서 1981년에 창립된 이래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501(c)(3) EIN #52-1596204)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1,000여 개의 회원 학교들이 함께 2세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미국의 전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전국 협의회 산하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협의회는 소속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 협의회와 교육 행사 및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다.

산하 14개 지역 협의회로는 남서부 지역 (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 (보스턴), 동남부 지역 (애틀랜타), 동북부 지역 (뉴욕), 동중부지역 (필라델피아), 미시간 지역 (디트로이트), 북가주 지역 (샌프란시스코), 서북미 지역 (시애틀), 워싱턴 지역 (D.C.), 중남부 지역 (인디애나폴리스), 중서부 지역 (시카고), 콜로라도 지역 (덴버), 플로리다 지역 (마이애미), 그리고 하와이 지역 (호놀룰루) 등이 있다.

Mission State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cultivates the development of strong bonds of friendship among Korean Schools and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It is an organization operating with the goal of nurturing and educating Korean-American in the U.S. Its objective is to instill pride in Korean-American through a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of its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Its other objective is to examine and influence the educational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the U.S. to benefit Korean- American.

Structure and Operation

NAKS was established in 1981 in Washington, D.C. and is currently spread across the fifty states of the U.S. NAKS unites over one thousand Korean schools and is recogniz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s a non-profit educational organization(501C-3, EIN #52-1596204). The association is

composed of a general assembly, a meeting of officers, a board of directors, and a council of presidents representing NAKS' fourteen regional chapters that collaborate to achieve its stated objectives. While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body, each region implements activities to continually improve and aim for excellence in the education its local Korean schools provide.

NAKS' Goal

- Young Korean-American Education Serve regional chapters, local Korean schools, and Korean-American societies
- Training of Teachers both first generation Equip them with necessary Korean language, history & culture education
- Nurture & Training for the 1.5 and 2nd Generation Teachers Help them to recognize their heritage and identity as Korean-American and to network with others Korean school teachers: Equip them for other 2nd generation Korean-American Students

NAKS' Events & Activities

- Intensive Teacher Training Program
- Annual Conference and General Assembly
- Publish a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for teachers
- Support NAKS Member Schools- More than 1,000 Regional Korean schools in the U.S.
- Sending the qualified instructors to each regional chapter's own conference (14 Regional Chapters)
- Support for Regional Chapter's Teacher Conference
- Develop & Publish Teaching Materials and Assessment/Measurement System
- Annual SAT Korean Pilot Test
- Develop & Publish Hangeul Textbooks (7 books total so far)
- Develop & Publish books for Korean History and Culture
- Develop & Publish SAT Korean Workbook
- Education of 2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 Educational Curriculum Contest for Korean Schools
- Speech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 Writing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 Publish Annual White Paper

ORGANIZATION

NAKS is an organization of weekend Korean schools covering 50 states and Samoa. About 1000 schools are organized under 14 regional chapters.

REGIONAL CHAPTERS

New England Chapter: MA, NH, VT, RI, ME

Northeast Chapter: NY, NJ

Mid-Atlantic Chapter: PA

Washington D.C. Chapter: Washington, D.C., MD, VA

South East Chapter: GA, NC, SC, AL, TN

Florida Chapter: FL

Michigan Chapter: MI, Northwest Ohio

Midwest Chapter: IL, WI, MN, IA, MO, KS, NE, ND, SD

Midsouth Chapter: IN, OH, KY

Colorado Chapter: CO, WY

Southwest Chapter: TX, OK, AR, MS, LA

Northwest Chapter: WA, OR, ID, MT, AK

Northern California Chapter: Northern CA

Hawaii Chapter: HI, Samoa

NAKS Present & Future

- Develop Textbooks of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 Develop Teaching & Training Material for Teachers
- Install the Pride as the 2nd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 through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its Culture, History and Hangul, the Korean Language.
- Promot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mong 1,000 Korean Schools in United States.

Membership Qualifications

- Institutional Member:
Must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and pay the school membership fee to local chapter. Can participate and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 Individual/Private Member:
Must have represented a Korean School for three years, or must have taught in a Korean School for five years, or must have contributed service as an officer in NAKS for two years, or must have devoted himself or herself to Korean education research and Korean studies.

Benefits for Member

- Free subscription of NAKS'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 Free subscription of annual NAKS Report
- Discount on Korean language textbook series created and published by NAKS
- Discount on registration fees for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Subsidized lodging when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 Access to a network of experts in the field of Korean-American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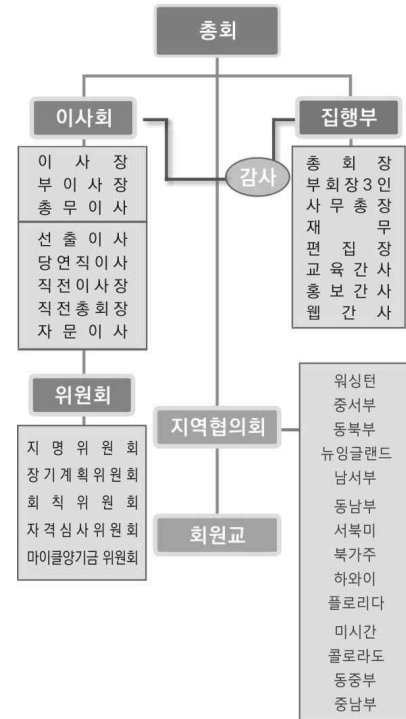
3대 중점사업

1. 교사의 역량과 저변 확대
2. 표준화된 교육과 운영 지침서
3.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10대 육성사업

1. 학술대회
2. 협의회 회보, 한인 교육 연구지 발간
3. 지역협의회 활성화 및 차세대교사육성
4. 집중연수, 운영자 워크숍, 순회연수 및 차세대 교사 연수회
5. SAT 한국어 모의고사
6. 학생 경시 대회 확대
7. 전문화된 교육위원회 도입
8. 세분화된 운영 지침서 도입 및 협의회 운영 표준화
9. 닉스의 교육용 APP 개발 및 운영
10.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NAKS 조직도



NAKS 및 14 지역협의회 창립 연혁

번호	협의회 명칭	창립일	도시	초대 회장
*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창립	1981. 04. 18	Washington D.C.	주하성
1	워싱턴지역협의회 창립	1984. 03. 23	Washington D.C.	염영일
2	중서부지역협의회 창립	1985. 03.	Chicago, IL	김기원
3	동북부지역협의회 창립	1985. 05. 11	New York, NY	허병렬
4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창립	1989. 10. 14	Boston, MA	김영집
5	남서부지역협의회 창립	1989. 11. 18	Houston, TX	하인태
6	동남부지역협의회 창립	1990. 11. 03	Atlanta, GA	김경숙
7	서북미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01	Seattle, WA	오계희
8	북가주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02	San Francisco, CA	정희상
9	하와이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03	Honolulu, HI	조성천
10	플로리다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16	Miami, FL	정대용
11	미시간지역협의회 창립	1992. 03. 21	Detroit, MI	남영렴
12	콜로라도지역협의회 창립	1992. 03. 28	Denver, CO	선창균
12	동중부지역협의회 창립	2000. 09. 30	Philadelphia, PA	김정근
14	중남부지역협의회 창립	2007. 10. 13	Indianapolis, IN	김용순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이 승 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일선에서 학생들과 동행하는 회원 학교 선생님들 모두의 열정과 수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교육자의 의미를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되새기게 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1980년에 워싱턴, 뉴욕, 시카고 지역의 학교들이 모여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1981년도에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워싱턴지역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재 14개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1,000여 개의 학교에 7,000여 명의 교사가 50,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의 언어, 문화 그리고 뿌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동포 2세들이 우리말과 얼을 알면서 거주국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이해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자원봉사를 마다치 않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국학교 교사의 열정과 헌신이 동포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학교의 정체성 교육은 자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정신적인 기둥으로 삼아 이민족과 공생하면서 떳떳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민족 정체성 교육과 거주국 시민 교육 양자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학교 교육을 받은 훌륭한 한인 후예로서 미국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로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협의회는 꾸준히 외길을 걸어오신 선배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협의회의 사업이 체계화되고 향상되었습니다. 연례 학술대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등을 개최하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및 방향 제시를 위한 한국어 교육자 토론회, 차세대 교사 간담회, 집중 연수회, 교안 준비 및 수업 발표 대회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교사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국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기에 오늘의 협의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세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협의회 내부의 작은 변화를 통한 외부 환경에 변화를 가져옴으로 정체성 교육의 이정표 역할을 넘어 함께 동행하는 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는 협의회의 역사가 시작된 시카고에서 7월 19일부터 3일간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 36회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 있는 한국어 관련 기관과도 연계하여 선생님들의 열정에 더불어 한국어 교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를 통하여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이 개별 학교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가한 선생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모두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정과 전문성으로 배우는 코칭과 티칭

고 은 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가장 미국다운 도시이고, 영구 소장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과 서반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이 준비하게 있는 아름다운 도시 시카고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새로운 얼굴,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교사들을 위해 저희 NAKS의 임원진들은 최선을 다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모든 참석자는 마음껏 몰두하시어

열정과 전문성으로 아우르는 이번 학술 대회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NAKS의 오늘을 보면서 내일을 그려봅니다.

열정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NAKS 는 보이지 않는 수맥을 향해 뻗어가는 들풀의 뿌리처럼 차세대의 뿌리 교육에 한마음이 되어 전문성을 추구하며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한국의 다방면의 능력을 외신은 역대 최고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겨울 동화라고 치켜세운 감동의 드라마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듯, 이 시카고에서의 학술대회도 역대 최고로 아우러져 각자의 한국학교에 돌아가 잘 활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억 속에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파헤치며 정체성 및 전문성 교육에 끊임없이 연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연구에 열정의 교사들께서 참석해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각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의 발걸음이 소중한 시간의 향기로 마음껏 담으시고,

받은 코칭을 티칭으로 잘 활용 되길 바라면서, 가내 평안함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 윤 제

주미대사



존경하는 재미한국학교 선생님 여러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50만 재미동포 사회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 지원에서부터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함께 이끌어온 재미동포사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재미동포사회는 차세대와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집과 확산을 통해 주류사회에 좀 더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세대의 한국어 교육과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글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글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한국어는 재미동포 사회를 형성·발전시키는 주요한 매개체이고, 한국 및 전 세계 한국인과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는 재미동포 차세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품성과 자긍심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모국어 학습이 이민자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고, 학교 성적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듯이, 한국어 학습은 정체성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 발전과 장래 취업 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차세대가 재미동포 사회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재미동포 사회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수준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은 아직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에 걸맞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느낌입니다. 주미대사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및 지식 공공외교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모습과 내용을 제대로 외국인에게 알리고 전달하여 국가 이미지와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의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발전된 모습이 교과서에 제대로 좀 더 기술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재미동포 사회,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하시는 재미한국학교 선생님 여러분들의 힘이 이런 공공외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보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이승민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재미한국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제3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등록 안내

◆ 학술대회 주제 :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 날짜 : 2018년 7월 19일(목)~21일(토)

◆ 장소 :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 Convention Center, 1551 Thoreau Dr. Schaumburg, IL 60173 ☎ 847-303-4100



〈사진 - 2017년 학술대회 (Atlanta, George에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에서 개최됩니다.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 있는 한국어 관련 기관들과도 연계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한국어 교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학술대회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도시, 시카고 지역에서 열리는 제36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 국내외의 많은 선생님께서 참여하셔서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 학술대회 등록 및 숙박 등록 방법: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1.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누리집에서 3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2.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누리집(www.naks.org)에 계정이 없는 분은 회원 등록하여 먼저 본인 계정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누리집의 “웹 이용 안내” 참조) 반드시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에 학술대회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학술대회 등록비는 Paypal 시스템으로 결제가 됩니다.
 - 페이팔 어카운트가 있으면 어카운트로 결제를 하시고 페이팔 어카운트가 없는 경우는 신용카드 정보 및 필요한 개인 정보를 넣은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만일 등록 취소 시 페이팔 서비스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환불 내용은 기타 주의사항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학술대회 등록을 먼저 마치셔야 회원 할인된 금액으로 호텔 신청이 됩니다.
 - 학술대회 등록 절차를 마치면 등록이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확인 이메일 안에 호텔 링크가 있습니다.
 - 이메일 안에 있는 호텔 링크로 가서 호텔 예약을 하셔야만 NAKS 회원 할인 금액으로 호텔 신청이 됩니다.

❖ 학술대회 기간(7월 19일~21일) 중의 등록비입니다.

1. 회원일 경우: \$100 (5월 15일까지 등록할 경우) / \$120 (5월 16일~5월 31일)
2. 비회원일 경우: \$150 (5월 15일까지 등록할 경우) / \$170 (5월 16일~5월 31일)
3. 회원은 NAKS 회비를 낸 회원 교의 교사를 뜻합니다.
4. 학술대회에 동행하는 가족도 개인당 등록비 (\$100.00 또는 \$150.00)와 함께 등록하셔야 숙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 기간(7월 19일 ~ 21일) 중의 호텔 비용입니다. (1박 기준)

1. 1인 1실: \$119 + 세금 (15%)
2. 2인 1실: \$59.5 + 세금 (15%)
3. 2인 1실을 원하실 경우, 가능하면 등록을 일찍 하시기 바랍니다.
4. 2인 1실을 원하시는데 룸메이트가 없으신 분은 먼저 각 지역협의회에 문의하셔서 룸메이트를 지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 마감일

1. 5월 15일(일)까지는 **\$20.00 할인된 등록비**를 적용하며 (회원 기준 \$100.00), 5월 16일부터는 정상 등록비가 적용됩니다. (회원 기준 \$120.00) 그리고 5월 31일(화)에 등록 마감하며, 그 후에는 더 이상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2. 등록 마감 이후에는 신청자가 원하시는 호텔 방을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 총회 등록 관련

1. 학술대회 기간 중에 열리는 총회에는 각 학교 **대표 2명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대표로 총회 참석하는 경우는 총회 참석란에 참석 의사를 꼭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요 프로그램

1. 목: 집중연수, 역사 강의, SAT 한국어, 강사 오리엔테이션, 만남의 시간
2. 금: 개회식, 포상, 주제 강연, 점심 (초청자), 분반 강의, 만찬, 근속교사 표창, 한국역사문화체험관
3. 토: 전체 포럼, 점심 (강사), 분반 강의, 만찬, 37회 학술대회 소개,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선별 학생 발표, 백범일지 대회 시상식, 지역협의회 장기자랑, 한국역사문화체험관, 포스터 경시대회 시상식
 - 금요일 점심은 초청자와 함께, 토요일 점심은 초청 강사와 함께 호텔에서 식사를 모두 함께 합니다.
 - 토요일 만찬 후에 지역협의회 장기자랑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협의회에서 5~7분 정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교통

1. 도착하실 공항은 Chicago O'Hare International Airport (ORD)입니다. ORD 공항으로 도착을 하셔야 호텔까지 교통편 이용이 편하십니다.
2. 자동차 이용 시 호텔 주차장 사용은 무료입니다.
3.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교통편은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유로 셔틀버스나 우버(Uber), 리프트(Lyft)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로 셔틀버스에 대한 안내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 관광

1. 관광은 여행사와 개인 관광 가이드를 통해서 학술대회 전과 후에만 1일과 만나질 관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 강사 추천 및 선정

1. 각 지역협의회 및 집행부의 추천으로 학술대회 강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됩니다.
2. 강사도 학술대회 등록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아. 개교 20주년 이상 한국/한글학교 및 장기 근속 교사 표창 추천:

본 협의회에서는 개교 20주년(30주년, 40주년, 50주년) 이상 된 한국학교 및 10년, 15년, 20년, 25년 그리고 30년 이상 한국학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을 표창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해당 학교 및 교사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 마감일: 2018년 3월 31일까지 (마감 후 추천자는 제외됨)
2. 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상장을 준비해야 하므로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시오.

3. 지역 협의회 회장님이 확인 서명하고 종합하여 보내주십시오. (개별 접수 받지 않음.)
4. 보내실 곳: 유미순 NAKS 부회장(vp-ky@naks.org)

자. 교육 자료 전시 및 판매 신청:

학술대회 기간 중 한국어, 한국 역사 문화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관련 서적 및 computer software 등의 전시 및 판매를 대회 장소에서 하실 경우, 판매 부스 신청을 해야 하며 판매 부스 사용료를 본 협의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용료: 테이블(3x6)당 \$500.00 (회원 학교 및 단체), \$1,000.00 (비회원)
2. 판매 신청 및 문의: 유미순 NAKS 부회장(vp-ky@naks.org)
3. 마감: 2018년 5월 15일
4. 결과통보: 2018년 5월 30일

차. 학술대회 강의를 광고 신청:

학술대회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책자에 게재할 광고를 모집합니다. 학교나 사업체 및 기타 원하시는 광고를 신청해 주시면 학술대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광고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책자는 1,000부 이상 인쇄되어 미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 배포되는 책자로 광고 효과가 큼니다.
2. 광고 비용: Full size Color \$3,000, Full size 흑백 \$1,000, 1/2 size: \$500.00 (표지 또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3. 마감: 2018년 5월 15일
4. 결과통보: 2018년 5월 30일
5. 광고 신청 및 문의: 윤한나 NAKS 홍보 (pr@naks.org)

카. 기타 주의 사항:

1. 학술대회 참가 신청 및 호텔 예약서, 장기근속교사 및 20 년 이상 한국학교 추천, 광고 게재 신청은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 주십시오.
2. 참가 교사 숫자가 확보되면 마감을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3. 등록 취소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주시고, 5 월 31 일 이전에 취소하시는 경우 등록비의 90%를 환불해 드리고, 6 월 1 일부터는 80%만 환불해 드리며 7 월 1 일부터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 방법은 본인이 직접 웹에서 취소하신 후 낙스에서 발행하는 취소 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 후 본인이 지불하신 방법(페이팔, 신용카드)에서 환불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불 금액은 Service Fee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환불처리 됩니다.
4. 성명과 기타 기입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기입하는 내용 그대로 명찰과 수료증에 반영됩니다.
5. 호텔 예약 취소는 호텔을 통해 직접 하셔야 합니다.
6. 학술대회 등의 행사에서의 모든 문서와 사진과 동영상에 관한 권리는 NAKS에 있습니다.

타. 학술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오정선미 NAKS 부회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vp-so@naks.org 전화: 267-255-4653

2018년 장기근속 교사 및 개교 20주년 이상 표창

지역에서 차세대 뿌리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카고에서 개최하는 제36회 학술대회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와 개교 20주년 이상 표창 받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수상 교사는 학술대회에 꼭 참가하시는 것을 전제로 추천서를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장기 근속교사:** 근속 10년부터 표창하며, 매 5년 단위로 시상합니다. 해당 교사는 <근속 교사 표창 추천서>에 교장님의 추천을 받아 지역협의회로 접수 바랍니다.
2.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개교 20주년부터 표창하며, 매 10년 단위로 시상합니다. 해당 학교는 <20주년 이상 학교 표창 추천서>를 지역협의회로 접수 바랍니다.
3. **각 지역협의회 통합 신청서:** 수합된 1번과 2번의 접수 서류는 지역에서 보관하시고, 지역통합 <장기근속 교사 및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표창 신청서 (통합본)>를 작성하시어 유미순 NAKS 담당 부회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접수 마감일: 2018년 3월 31일 (토) 밤 12시까지 (서부 시간)

접수 및 문의: 유미순 NAKS 부회장: vp-ky@naks.org, 720-252-3295

교사 ID 제작

뿌리 교육 현장의 중심에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주말도 잊고 한국학교의 발전과 학생들 교육에 열정과 헌신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이에 한국학교 교사들께 교사로서의 더 큰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임하실 수 있고, 교사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의회 교사 아이디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35회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기간 중 교사 아이디 견본을 선보였습니다. 각 학교별로 보내드리는 엑셀 서식에 선생님들 정보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협의회에서 아이디 제작 후 학교로 배송합니다.

첨부하는 엑셀 서식에 아이디 신청 교사 명단을 적어 주시고, 교사 아이디 제작 신청서와 수표를 함께 명시된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교사 아이디 사업을 통해 미국 내 교육기관과 같이 한국학교 교사들이 교사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시기: 2017년 9월 18일부터

주의사항: 엑셀 서식에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입할 것. (사진규격은 25.12mm×33.27mm에 가까운 크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나스 웹간사 지수경(web@naks.org) 로 교사 아이디 명단 엑셀 서식과 신청서 제출
 2. 나스 재무(김미경)에게 프린트한 교사 신청서와 수표 발송(Memo에 학교이름 기입)

상세한 안내와 정보는 나스 누리집에 있음. www.naks.org

2018년 한인 교육연구 및 2019년 회보 발행

2018년 한인 교육연구자: 통권 제 33호

발간 예정 시기: 2018년 7월 10일

주제: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집필진 섭외 및 원고 수집 및 편집: 원고청탁 협조 요망

청탁 추천자의 미니 프로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편집부에 보내주시면 집행부와 의논 후 청탁편지 발송함.

2019년 회보

상세한 내용과 진행 과정 등은 추후 공지함.

2018년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 사업 목적

1. 주말 한국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SAT 한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권장하고 본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여 미국 대학교 입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주말 한국학교 재학생들이 SAT 한국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실력을 평가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SAT 한국어 모의고사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SAT 한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홍보할 수 있다.

● 모의고사 준비 위원

총괄: 오정선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SAT 담당 부회장

전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이광호

출제위원: 강주연, 서희승, 손민호

감수위원: 임난희

평가위원: 김민정

● 출제 일정

내용	날짜
출제 회의	2018년1월5일(금)~7일(일)
SAT 모의고사 안내 공문 1차 발송	1월 10일
자체 출제 교정 및 점검 완료	1월 25일
홍보 자료 디자인 완료	1월 30일
감수 위원 감수 완료	1월 31일
감수 후 자체 교정 완료	2월 3일
최종본 완료	2월 5일
듣기시험 지문 MP3 녹음 파일 완료	2월 10일
2차 공문 발송	2월 10일
지역별 응시자 신청 마감일	2월 20일
지역협의회 배부 (모의고사 문제지, 답안지, 사운드 파일 발송)	3월 1일
모의고사 시험 실시	3월 16일(금)~18(일)
문제 회수 완료 및 평가 의뢰	4월 10일
평가 결과/ 평가서 발송	4월 30일
모의고사 홍보	6월 30~8월 31일
학술대회 목요일 특강 제22회 모의고사 결과 평가 및 SAT- Subject Test 홍보, 모의고사 교재사용 사례 보고 등 앞으로의 실 력 향상과 시험 전략 강의.	7월 19일 (목)
만점 학생 표창 학술대회 기간 중에 9~12학년 학생에게 표창장 발급	7월 20일(금)

2017년 제1회 『충무공이순신』 글쓰기 공모전

1. 행사 목적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이순신미주교육본부》와 공동 주최로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지고지순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혼이 살아 숨 쉬는 고매한 성품을 기리기 위해 실시하는 본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 주최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 이순신미주교육본부

3. 주제

- **옥포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아는 바를 써 보세요.
- **한산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대표적 정신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충효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를 위해 실천하신 예를 들어 보세요.
- **명량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불패의 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임진왜란 7년동안 우리 나라에 쳐들어 온 일본 해군과 싸울 때마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위해 이순신 장군께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아는 바를 써 보세요.

4. 대상

- NAKS 14개 지역 협의회 소속 한국/한글학교에 재학중인 1~12학년 재학생
- 구분: 옥포상 (4학년 이하) / 한산상 (5~8학년) / 명량상 (9~12학년)
- 단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학교에 2년 이상 재학했던 학생으로 재미 3년 이하인 학생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

5. 응모방법

- 한국/한글학교 단위로 개별 신청서 및 원고 제출
- 원고 보낼 곳: NAKS 실무 담당자: 지수경
웹간사 : yisunshin@naks.org
- 신청 및 공모 마감: 2017년 12월 16일 (토) - 충무공 순국 일 오후 6시까지 위 원고 보낼 곳에 접수된 응모작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작품)
- 참고문헌: 이순신미주교육본부 교육전문 사이트
www.yisunshinusa.com 을 방문하여 내용 참작
- 주제에 적절한 제목의 글을 참고함으로써 잘못된 Internet 지식과 시간의 낭비를 피할 것을 권고함
- 심사결과 통보: 2017년 1월 5일(금)에 NAKS 홈페이지 게시
- 원고 분량: Letter 사이즈 1~3매
(글씨체: 바탕 혹은 굴림/글자 사이즈 11)
- 옥포상 (1~2장), 한산상 (2~3장), 명량상 (2~4장)
- 제출 방법: 반드시 pdf 파일로 작성하여 email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6. 수상내역

가) 수상자 전원 상장 및 장학금 지급

상명	구분	인원	시상금(1인 기준)	
			장학금	비고
거북상(최우수상)	통합	1명	\$ 1,000	상장, 장학금
옥포상	4학년 이하	1명 (금상)	\$500	상장, 장학금
		2명 (은상)	\$200	상장, 장학금
		3명 (동상)	\$100	상장, 장학금
한산상	5-8학년	1명 (금상)	\$500	상장, 장학금
		2명 (은상)	\$200	상장, 장학금
		3명 (동상)	\$100	상장, 장학금
명량상	9-12학년	1명 (금상)	\$500	상장, 장학금
		2명 (은상)	\$200	상장, 장학금
		3명 (동상)	\$100	상장, 장학금
합계		총19명	총 \$4,600	

7. 심사 위원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이순신미주교육본부 심사위원회
- 심사 기준
 - ① 응모 자격 적격 여부 우선 심사
 - ② 마감일 이후 제출한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
 - ③ 정해진 원고 분량을 초과한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
 - ④ 학생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을 기초로 작성하였는지 심사
 - ⑤ 지도 교사나 부모님의 과도한 개입이 느껴질 경우 감점 처리
 - ⑥ 자연스런 한국어 어법의 운용을 중시하여 심사
 - ⑦ 응모 학생의 연령과 눈높이에 부합하며 창의력과 표현력을 중시
 - ⑧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되되, 주제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말 것
 - ⑨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출판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⑩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가 있을 수도 있음
 - ⑪ 수상자들은 수상 후, 수상소감문과 수상소감 동영상을 NAKS 담당자에게 제출
- 채점 기준:
 - ① 내용: 주제에 합당한 내용인가 (30점)
 - ② 표현력, 창의력: 주제의 전개가 논리적이고 무리가 없으며 창의성과 설득력이 있는가 (30점)
 - ③ 문장과 어휘 등이 연령이나 학년에 비추어 적절한가 (20점)
 - ④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20점)

8. 시상식

- 별도 시상식은 따로 없음
- 일시 및 장소: 2017년 1월 5일 발표 후 우편 전송

수상자 발표

응모현황: 총 140 편의 작품

제3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1. 행사 목적

겨레의 큰 스승이신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이 담긴 『백범일지』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의 생애와 겨레사랑·나라사랑 정신을 바르게 알리고, 참된 용기와 지혜, 불굴의 투지와 희생정신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녀 개인과 사회,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도록 돕는 데 있다.

2. 주최 : 재단법인 김구재단,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3. 대상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소속 한국/한글 학교 교사
※ 제외 대상 <이전 교육 안 공모대회> 백범상, 통일상, 평화상 수상자 제외

4. 대회 진행 방법

- 1) “쉽게 읽는 백범일지”를 읽고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교육안을 작성, 제출
- 2) 원고 분량: A4 사이즈 10매 이내(글씨체: 바탕 혹은 굴림/글자 사이즈 11)
- 3) 도서 지급: 2018년 2월 9일 (화)까지 신청 교사에게 무상 지급

5. 응모방법

- 1) 신청서 작성: 규정양식(사진 부착)
- 2) 신청서 마감: 2018년 1월 31일 (수)
- 3) 신청서 제출: 김구재단 사무국과 NAKS 사무국에 email 로
동시 제출
김구재단 김정은 과장: kkf@kimkoo.org
NAKS 담당자: 김선형 교육간사: edu@naks.org
- 4) 교육 안 응모작 마감: 2018년 4월 3일 (화)
- 5) 교육 안 응모작 제출: 김구재단 사무국과 NAKS 사무국에 email 로 동시 제출

김구재단 김정은과장: kkf@kimkoo.org

NAKS담당자: 김선형 교육간사: edu@naks.org

6. 심사 및 당선자 선정

- 1) 심사: 김구재단 심사위원회
- 2) 심사기준
 - ① 신청/응모 자격 적격 여부 우선 심사
 - ② 마감일 이후 제출한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
 - ③ 정해진 원고 분량을 초과한 교육 안 응모작은 심사에서 제외
 - ④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출판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⑤ 수상자들은 수상 후, 수상소감문과 수상소감 동영상을 NAKS 담당자에게 제출
- 3) 심사 및 결과 발표: 2018년5월 1일(화)까지 NAKS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7. 시상

- 1) 수상자 전원 NAKS 학술대회 참석 경비 지원
(왕복 교통비, 학술대회 기간 숙박비, 학술대회 등록비)
- 2) “교육 연구 장려금” 지급

상명	인원	시상금 (1인 기준)	
		교육 연구 장려금	비고
백범상	1명	\$ 500×1명	상패&메달, 장려금
백범통일상	2명	\$ 300×2명	상패&메달, 장려금
백범평화상	2명	\$ 300×2명	상패&메달, 장려금
합계	총5명	총 \$1,700	

8. 시상식

- 1) 일시 및 장소: 2018년 7월 학술대회 기간 중 학술대회 장소 (추후 통보)
- 2) 시상식 참석: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2018년 제7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1. 행사 목적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재단법인 김구재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공동주최로 겨레의 큰 스승이신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이 담긴 『백범일지』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의 생애와 겨레 사랑·나라 사랑 정신을 바르게 알리고, 참된 용기와 지혜, 불굴의 투지와 희생정신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하는 한국계 재외동포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녀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며,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2. 주최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재단법인 김구재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3. 독후감 선정도서

초등부 - 『나라의 큰 별, 백범 김구』

중고등부 - 『김구』

4. 대상

가) NAKS 14 개 지역 협의회 소속 한국/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4-12학년 재학생

나) 초등부(4~6학년) / 중고등부(7~12학년)

※ 제외 대상

-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했던 학생

- 예년 대회의 백범상, 통일상, 평화상 수상자

5. 응모방법

가) 한국/한글학교 단위로 신청서 제출

나) 신청서 동시에 보낼 곳:

- 김구재단 김정은 과장: kkf@kimkoo.org

- NAKS 담당자: 김선형 교육간사: edu@naks.org

다) 신청서 제출 마감: 2018년 1월 31일(수)

라) 도서: 김구재단은 도서를 신청 학생들에게 무상 증정하며, 한국/한글학교 단위로 2018년 2월 9일 까지 발송한다.

마) 독후감 제출 마감: 2018년 4월 3일(화) 까지 응모작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보낼 곳: 김선형 교육간사: edu@naks.org 에게 제출

바) 수상자 선정 및 결과 발표: 2018년 5월 1일(화) 까지 NAKS 홈페이지 게시 및 담당 학교 선생님께 통보

사) 원고 분량: Letter 사이즈2-3매 (글씨체: 바탕 혹은 굴림/글자 사이즈11)

아) 원고 제목: 도서를 읽은 후 느낌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자) 독후감 제출: 반드시 지정된 양식에 작성하여 e-mail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6. 수상내역

가) 수상자 전원 시상식 참석 경비지원(수상자 특전 참조)

나) 장학금 지급

상명	구분	인원	시상금(1인 기준)	
			장학금	비고
백범상	초등부/중,고등부 통합	1명	\$ 500×1명	상패&메달, 장학금
백범통일상	초등부	6명	\$ 100×6명	상패&메달, 장학금
백범평화상	중,고등부	6명	\$ 100×6명	상패&메달, 장학금
합계		총13명	총 \$1,700	

다) 수상자 배출 학교별 성과 도서 시상내역

- 수상자 배출 학교 전체: 각 학교당 필요 교육 도서 기증(US \$200 상당)

- 교육 도서는 김구재단에서 선정, 학교에서 선택

- 각 학교는 도서 수령 후, 수령사진을 김구재단 담당자에게 제출

라) 수상자 특전

수상자	항공권	숙박	식사	강의
13명	수상자에게 지급내역을 개별 통지함 (NAKS 규정에 따름)	2인 1실 1박(시상식 당일)	시상 당일 점심 식사(도시락) 시상식 저녁 만찬	역사문화 리더쉽 캠프 개최 예정

7. 심사 및 당선자 선정

가) 심사: 김구재단 심사위원회

나) 심사 기준

- ① 신청/응모 자격 적격 여부 우선 심사
- ② 마감일 이후 제출한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
- ③ 정해진 원고 분량을 초과한 독후감은 심사에서 제외
- ④ 학생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을 기초로 작성하였는지 심사
- ⑤ 지도 교사나 부모님의 과도한 개입이 느껴질 경우 감점 처리
- ⑥ 자연스러운 한국어 어법의 운용을 중시하여 심사
- ⑦ 응모 학생의 연령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선한 창의력과 표현력을 중시하여 심사
- ⑧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도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 ⑨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⑩ 당선 순위에 든 학생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가 있을 수도 있음
- ⑪ 수상자들은 수상 후, 수상소감문과 수상소감 동영상을 NAKS 담당자에게 제출

8. 시상식

가) 일시 및 장소: 2018년 7월 학술대회 기간 중 학술대회 장소(추후 통보)

나) 시상식 참석: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2018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집중연수회

2018년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집중연수 안내 및 시간표

이번 집중연수 주제는 ‘흥미롭고 효율적인 한국어 읽기, 쓰기 수업 운영’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집중연수 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생님들께서는 이론보다는 실제로 수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교수 방법, 좋은 수업 사례와 자신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읽기 쓰기 문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절실하여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집중연수회에 오셔서 학습 지도안을 만들고 수업을 효과적으로 꾸리는 방법에 대한 전체 강의를 듣고, 실제로 바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선택 강의 (수준에 따라 2개 강의 수강)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룹별 시간에는 수업 시연 준비와 교사 간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다음날 이어지는 그룹 발표에서는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언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특강으로 재외동포 교육 전반에 대한 특강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강의 일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 ~ 19일 (목)
2. **장소:**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 Convention Center, 1551 Thoreau Dr. Schaumburg, IL 60173 Tel. 847-303-4100
3. **등록 및 등록비:** 학술대회 등록 후 집중연수회 온라인 신청 / \$50
4. **숙박비:** 2인 1실 - \$59.5 + 세금 (15%) / 1day
5. **신청자격:** NAKS 회원교 교사에 한함
6. **모집정원:** 50명
7. **등록:** 본 협회 웹사이트 www.naks.org
8. **등록 마감:** 5월 31일
9. **신청서 양식 제출 및 문의:** 담당자 지수경 웹간사(web@naks.org)
*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신청서 접수
* 전화 문의: 703-653-4265(지수경)

강의 일정표

일시	주요내용	강사
7월 18일 (수)		
08:30~09:00	개회식	
09:00~09:50	(공통1) 한국어 바르게 이해하기 : -한국어 어문 규범	국립국어원장
10:10~11:30	(공통2) 흥미롭고 효율적인 수업 7꾸리기 : -학습 지도안과 수업연계	외부강사
11:30~13:00	점심	
13:00~14:20	(기초1) 옛날이야기로 읽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외부강사
14:30~15:50	(기초2) 이런 글 어떻게 고쳐줄까?	외부강사
16:00~17:00	(심화1)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글쓰기	국립국어원
17:00~18:30	(심화2) 빠른 읽기, 바른 읽기 어떻게 지도할까?	수강생
18:30~20:00	수업에서 바로 쓰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그룹별 시간 (수업 시연 준비 및 교사 간 교류)	
	식사 및 간담회	
7월 19일 (목)		
09:00~11:45	-그룹별 수업 시연 - 전문가 피드백: 잘된 점과 다음을 점	수강생, 외부강사 전체
12:00~13:15	점심	
13:13~14:15	우리 아이들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 이중언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특강	외부강사
14:30~	수료식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제14차 나의 꿈 말하기 대회

1. 사업개요

- 2005년에 시작한 이 대회가 어느새 14회에 이르렀습니다.
- 우리2세대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소중한 꿈을 발표하며 미래를 펼쳐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 미국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나의 뿌리를 바로 알고, 순수한 마음과 건전한 정신으로 Korean American으로 자기의 꿈을 바르게 정립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로 삼았습니다.

2. 준비과정

- 각 14개 지역협의회에서 지역의 특성과 시간에 맞추어 지역협의회의 나의 꿈 말하기대회를 열어 우승자를 뽑습니다.
- 우승자 중에서 영상 결선을 통해서 최종 6명이 본선 무대에 경합합니다.
- 각 지역 협의회의 우승자에게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상과 주미한국대사관 대사상, 예뻐한복의 한복을 학술대회장에서 지역 협의회 회장님께 전달합니다.
- 동영상 심사를 통한 최종6명(개최지 지역 자동 참석)은 지역 회장님들의 철저한 심사를 하여 선발합니다.
- 본 무대에서 경합을 통해 수상자에게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무대에서 참석한 학생들에게 학술대회 호텔 2인 1실 1박 권이 제공됩니다. 또한, 한국어사 문화캠프에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우승자에게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상과 주미한국대사관 대사상, 예뻐한복의 한복을 학술대회장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3. 참가 자격 및 심사기준 안내

참가대상 및 자격	1. 2000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학생으로 현 거주지에서 2. 3년 이상 거주한 협의회 소속학교 학생 (*예외: 미국에서 탄생 한 학생으로 부득이한 이유로 새 거주지에 이사하게 된 경우, 거주협의회에서 3년 미만으로 살았어도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3. 현재 지역협의회 산하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한국에서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1년 이상 받지 않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5. 지난 대회 대상 수상자는 참가 불가 합니다.
심사기준	1. 원고내용 (50%): 나의 꿈 말하기 대회의 내용은 순수성, 건전성, 솔직성, 창의성 을 중시합니다. 추상적인 내용보다 생활경험이나 현실성이 있는 내용으로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 세련된 내용보다 순수 한 학생의 눈높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 주제가 명확한가? - 주제의 전개가 논리적이고 무리가 없는가? - 주제의 전개가 설득력이 있는가? - 문장과 어휘가 연령이나 내용에 적절한가? - 꿈의 내용이 창의적인가? 순수한 꿈의 내용이 학생의 수준에 맞고 억지가 없고, 자연스러운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를 봅니다. 2. 발표 태도 (30%): 자연스러운 태도, 내용의 이해도, 자신감, 표현력, 설득력, 호소력 등을 봅니다. - 태도가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있는가? - 몸동작이나 목소리의 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 - 발음과 억양이 정확하고 적절한가? -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발표하는가? - 잘 외어서 막히지 않고 하는가? 등을 봅니다 3. 감동 (20%):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감동 을 주는가를 봅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원고와 발표를 통해 청중들을 얼마나 설득 하였는가? 를 봅니다. 4. 기타: 발표시간은 3~4분 이며, 4분이 넘으면 감점이 있습니다. ※ 위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지역협의회에서 대회를 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서류	1.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신청서 2. 발표원고 3. 참가자사진 4. 지역협의회 대상 수상사진 각 지역 대상자일 경우, 영상을 찍어 5월14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가이드	- 대회장소에서 찍은 영상이어야 합니다. - 스피커시설을 이용하여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급적이면 얼굴만을 찍은 영상보다는 학생의 허리부터 상반신이 단상과 함께 나오는 구도로 찍으면 좋겠습니다. - 중간에 잘리지 않고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협의회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하면 더 공평하게 점수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화질은 해상도 720x480(일반미니 캠코더)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4. 심사표

심사 기준	발표 시간: 발표 내용은 반드시 암기해야 하며, 읽는 형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3~4 분으로 4 분이 넘으면 감점이 됩니다.	〈시간 초과시 5점 감점〉									
		1	2	3	4	5	6	7	8	9	10
원고 내용50%	주제 명확/주제 전개 및 설득력 주제가 명확한가? 주제의 전개가 논리적이고 무리가 없는가? 주제의 전개가 설득력이 있는가? 문장, 어휘 선택 문장과 어휘 문장이 연령이나 내용에 비해 적절한가? 연령이나 내용에 비해 적절한 어휘가 사용 되었는가? 창의성 창의성 꿈의 내용이 창의적인가? 순수성 꿈의 내용이 학생의 수준에서 역지성이 없고, 순수하고, 자연스러운가? 실행가능성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총계 50점 만점											
발표 태도 30%	자연스런 태도 태도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있는가? 몸동작이나 목소리의 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 내용의 이해도 유창성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하여 발표하는가? 잘 외어서 막히지 않고 하는가? 발음과 억양 발음과 억양이 정확하고, 적절한가?										
총계 30점 만점											
감동 20%	감동 감동 청중을 감동시켰는가? 설득력 설득력 자신의 꿈을 자신의 원고와 발표를 통해 청중들을 설득하였는가?										
총계 20점 만점											

5.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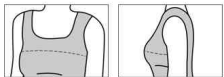
- 1) 각 지역 공문 후,
- 2) 신청서 와 영상을 5월 13일(일요일)까지 내 주십시오.
- 3) 각 지역의 영상과 신청서를 받은 후 지역협의장님들께 Google drive로 전달됩니다.
- 4) 위의 결과표를 통해 각 지역 학생들의 심사를 끝내시고 결과를 6월 16일(일요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5) 또한 예뻐한복을 위해 사이즈를 보내주십시오.

여자 치수 재는 법

남자 치수 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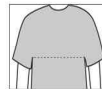
여자 치수 재는 법

남자 치수 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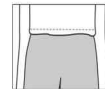
01. 가슴 둘레

- 앞가슴둘레
 - 유두점 위치보다 약 4~5cm를 위로 올린다.
 - 좌 우 거드림이 닿을 지나는 줄자가 앞무덤이 시작되는 곳과 수평이 되게 꼭 껴서 재는다.
- 가슴둘레
 - 유두점이 지나는 중앙을 잡는다.
 - 수평 둘레선을 지낸다.
 - 한쪽으로 지우쳐지지 않게 정확히 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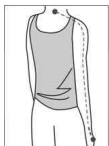
01. 가슴 둘레

- 유두점을 지나 수평 둘레선을 편안하게 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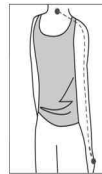
02. 허리 둘레

- 허리부분의 가장 굵은 부분을 편안하게 재거나
한계 바지사이즈를 명시한다.
- 신체의 특징 (넓은 어깨, 뒤로 넘어간 어깨, 세가슴,
굵은 팔뚝 등)을 꼭 명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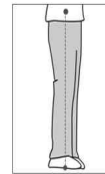
02. 화장

- 다리를 모으고 똑바로 서서 시선은 정면으로 본다. (시선이 내려가면 안된다.)
- 발을 자연스럽게 내린다.
- 자라상대에서 뒷목에서 어깨뼈를 지나 손목점 (손목에 있는 북송아뼈)까지 재는다.
- 반드시 양쪽을 모두 재는다. (좌우 팔의 길이가 다를 수 있다.)
- * 신체적 특징
(넓은 어깨, 뒤로 넘어간 어깨, 세가슴, 굵은 팔뚝 등)을 꼭 명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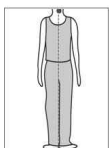
03. 화장

- 다리를 모으고 똑바로 서서 시선은 정면으로 본다.
(시선이 내려가면 안된다.)
- 발을 자연스럽게 내린다
- 자라상대에서 뒷목에서 어깨뼈를 지나 손목점
(손목에 있는 북송아뼈)까지 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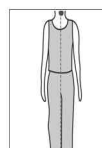
04. 바지 길이

- 맨발로 다리를 모으고 똑바로 서서 시선을 정면으로
하고 허리에서 바닥까지 재는다.



03. 총길이

- 치마길이
 - 똑바로 자라상대로 서서 시선을 정면으로 한다. (시선을 내려면 안된다.)
 - 거드림에서 바닥까지 수직으로 재는다.
- 총장
 - 똑바로 자라상대로 서서 시선을 정면으로 한다. (시선을 내려면 안된다.)
 - 맨발로 서서 뒷목에서 바닥까지 수직으로 재는다.
 - 금슬이름 꼭 명시한다. 예) 총장 137cm + 금슬이(3.5.7cm)인데



05. 총장

- 똑바로 자라상대로 서서 시선을 정면으로 한다.
(시선을 내려면 안된다.)
- 맨발로 서서 뒷목에서 바닥까지 수직으로 재는다.
(정확한 커를 명시해야 한다.)

2018년 제2회 한국어 수업 학습활동 포스터 경시대회

1. 사업 목적:

- 한국어 교육과정 적용 교수 학습 방법 연구
- 수업 우수 교사 발굴 및 수업 방법 개선 의지 확산 및 수업 기술 개발과 우수 사례의 일반화

2. 참가 대상: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교사 (15명 선발 및 상금 수여 예정)

3. 참가 분야 (총 6개 분야):

- 한국어 수업 5개 분야 - 입문, 기초, 초급, 중급, 및 고급
- 특별활동 수업 1개 분야 - 한국 역사/ 문화

4. 제출 자료:

- 1) 학급 활동 지도안
(수업 대상, 목표, 교재 및 자료, 수업 진행 과정, 중점 지도 사항, 특이사항 등 포함)
- 2) 한국어 수업 학습활동 포스터 대회 신청서
(해당 활동 준비 및 수업 진행과 사례를 보여주는 3단 포스터 전시 사진 포함)

5. 학급 활동 지도안 심사 중점 사항:

- 1년 계획안과 연계된 활동 지도안 1차시분
- 학급 목표 제시 및 동기 유발의 적절성 및 학생 발달 수준에 따른 개별 지도의 효율성
- 학습 형태 다양성과 적절성 및 창의적 사고, 학습자료 및 기자재 활용의 효율성 등 포스터 심사 중점 사항:
-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 및 발달 수준 고려한 수업활동 및 적절 흥미 영역 배치 활용 시상
- 2018년 7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 **최우수 포스터 1명 (\$250.00) 우수 포스터 2명 (\$150.00), 장려 포스터 12명 (\$100.00)**
- 15명의 선발 교사들에게는 학술대회 기간 중 20분 분반 강의 포스터 발표 시간 주어짐.

6. 신청 및 자료 제출:

- 신청 및 자료제출: **2018년 5월 20일까지**
- 신청서 보내실 곳: **황정숙 사무총장 (gs@naks.org)**

차세대 교사의 역할과 리더십

- **목적:** 제4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 및 자료 발간은 14개 지역 협의회의 차세대 교사 한 명을 선별하여 그 지역에서 보조 교사가 정교사로 육성하고 연결시키는 선봉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협의회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6월 2일(토) 오후 1시부터 3일(일) 오전 11시까지

- **장소:** Courtyard Arlington Crystal City/Reagan National Airport (DCA - 공항코드) 2899 Jefferson Davis Hwy, Arlington, VA 22203

- **참여 협의회:** 14개 지역협의회에서 1명씩 (단, 워싱턴지역 (7명))

- **참가자격:** 2세(미국출생) 혹은 1.5세 (대학교부터 미국

에서 교육) 교사로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지역협의회 소속 교사로 활동한 분

- **신청방법:** 각 협의회 추천을 받아 이수경 웹간사 (Nextgen@naks.org)에게 5월 15일까지 신청

- **참가자 혜택:** 숙박 (2인1실) 및 토요일 저녁 식사와 일요일 아침 식사 및 교통비

- **참가자의 할 일:** 차세대 보고서 (양식 첨부), 학습지도안 (양식 첨부)을 5월 20일까지 제출

- **기타:** 교재 발간 (참석자들의 글과 토론 내용, 발표 내용, 사진 등을 모아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 * 워크숍의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추천된 교사에게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2018년 한국 문화 체험관

사업목적: 지역 사회 미국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한국 문화와 한류를 알리고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여 학술대회가 우리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의 주류 사회와도 함께하며 알리는 행사이다.

체험 부스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민간 교류와 경제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사업진행: 학술대회 행사 중에 진행 7.19.2018 (금요일)과 7.20.2018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1시~오후 5시

체 험 장: • 붓글씨 체험

• 예담한복 - 한복 체험

• 한국 다과 먹기

전시 및 자료 제공: • 중서부지역의 한국 문화와 이민 역사 (중서부 지역 협의회)

• 고인쇄박물관(청주시) - 직지 시연

• 전주시 - 한지공예

• 여주시 - 훈민정음 탁본

• 독도 재단 - 독도 사진 찍기

• 대한 사랑 - 환단고기

• 국립국어원 - 책자 소개

• 국립한글박물관 - 한글 체험 학습

• 만디 Books - 책 판매

• 책 판매

• 고전무용 공연

• 사물놀이 공연

• 나스협력기관소개-김구재단, Friends of Korea, ACTFL, SAT 교재 판매

2018년 직지 세계화를 위한 직지 캠프 운영

작년에 이어 오는 6월에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지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의 고장인 청주에서 재미한 국학교협의회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지 캠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제목:** 직지 세계화를 위한 직지 캠프 운영
- **운영기간:** 2018년 6월 26일에서 6월 29일 (화-금, 3박 4일)
- **장소:** 서울 / 청주시 일원
- **참여대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속 학생 (중학교 6학년 이상)
- **참가 인원:** 30명
- **내용:** 직지 및 한국문화 체험, 직지 특강,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등

- **참가자 지원 내용:** 학생 - 체재비 지원
- **제출 서류:** 직지 캠프 참가자 신청서, 캠프 서약서
- **제출 시일:** 2018년 4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지역협의회장의 추천
- **담당 임원:** 유미순 부회장 vp-ky@naks.org

각 지역별로 2명까지는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단, 선착순으로 하여 2 지역은 3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참가 학생이 없는 지역이 있어 자리가 남게 된다면 선착순 지원 순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좀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번 직지 캠프에 소속 한국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웹사이트 강화와 유지

- 웹관리의 경우 기존의 웹 역할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제 36회 학술대회 전에 나스 웹페이지를 디자인을 수정하고 기능을 보완하여 웹 방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 1. 웹페이지 첫 화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
- 2. 모든 이벤트 등록을 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
- 3. 회원관리에 용이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시범 운영 중
- 4. 웹 페이지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전체적인 정리중

2018년 통일 교육과 현장 견학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통일부 소속 통일교육원과 함께 오는 7월 2일과 3일 (1박 2일)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과 탐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지 캠프 신청자 학생들도 참여 가능하나 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제목:** 통일 교육과 현장 견학
- **기간:** 2018년 7월2일~3일 (1박 2일)
- **장소:** 통일교육원 (한국, 서울)
- **대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속 학생 (6학년 이상)
- **인원:** 25명 (선착순)
- **내용:** 통일 교육 및 현장 견학 등
- **참가자 지원:** 교육과 견학 기간 중 체재비

- **신청:** 통일 교육 참가자 신청서 제출
- **제출 일시:** 2018년4월30일까지
- **신청 방법:**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지역협의회 회장 추천
- **담당:** 유미순 부회장 vp-ky@naks.org

참고: 기본적인 교육 운영은 첫째 날 교육원에서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주로 오전, 오후 진행되며, 둘째 날 판문점, 땅굴 등 현장 견학 예정.

판문점은 유엔사령부에 견학신청을 통해 진행되기에 6월경에 확약 통보받게 됨.

한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좀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번 통일 교육 및 현장 견학에 한국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AKS 집행부 사업 보고 (2017.4. ~ 2018.3.)

1. 학술대회 호텔 세부 논의

- 일시: 2017년 4월 7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Ms. Meike Reid, Senior Event Manager

2. 동남부 학술대회 참석 및 재외동포재단 면담

- 일시: 2017년 4월 8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김미경 재무,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이사, 이상학 과장

3. NAKS 18대 제8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4월 11일 (동부시간 오후 9시~ 12시)

4. NAKS 회보 18권 1호 발행

- 일시: 2017년 4월 15일

5. 구 주미대한제국공사관

- 일시: 2017년 4월 18일 오전 10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오수동 초대관장

6. 제3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호텔 계약

- 일시: 2017년 4월 20일
- 호텔: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 Convention Center

7. NAKS 18대 회장단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4월 25일 (동부시간 오후 9시-11시)

8. Korean Heritage Foundation 면담

- 일시: 2017년 4월 26일 12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주현영 실장

9. NAKS 18대 제 9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5월 2일 (동부시간 오후 9시-12시)

10. 대한사랑 면담

- 일시: 2017년 5월 4일 오전 11시

11. 북미 지역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현황 조사 연구 간담회

- 일시: 2017년 5월 5일 (오후 2시-6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황정숙 사무총장, 김영기 교수, 강윤경 교수, 문보경 교수, 신문규 교육관, 안미혜 교육원장, 강사희 교수, 이광자 재미한인교육재단 이사장, 이내원 전 NAKS 이사장, 이은애 맬클레인 한글학교 교장, 조혜원 교수

12. 제1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날 (5월 2번째 주) 간담회

- 일시: 2017년 5월 9일 오후 6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지수경 웹간사, 신문규 교육관, 안

미혜 교육원장, 한연성 워싱턴지역회장, 김대영 직전 부이사장

13. 동남부지역 제35회 NAKS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후원자 발족식

- 일시: 2017년 5월 12일

14. 애틀랜타 한국학교 졸업식 참석 (재미한국학교협회의 날 기념)

- 일시: 2017년 5월 13일

15. ACTFL 화상회의

- 일시: 2017년 5월 15일 오후 2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Marty Abbott, Executive Director

16. 제7차 캐나다 한국학교연합회 학술대회 참석

- 일시: 2017년 5월 18일~21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황정숙 사무총장

17. 재외동포재단 방문

- 일시: 2017년 5월 24일 오전 9시 30분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김윤희 편집장,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교육부장), 윤혜선 재외동포재단 교육차장, 이상학 (재외동포재단 과장), 임정은 (독립기념관 학예연구관), 윤경미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정민석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18. 세종학당재단 방문

- 일시: 2017년 5월 24일 오후 2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김윤희 편집장, 송향근 이사장, 최윤정 교육지원부 부장, 장미경 콘텐츠지원부 부장, 박충식 기획총괄부 부장

19. 국립국어원 방문

- 일시: 2017년 5월 24일 오후 4시 30분
- 참석자: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김윤희 편집장, 송철의 국립국어원 원장, 정호성, 김수현, 정혜선, 이보라미

20. 국립국제교육원 방문

- 일시: 2017년 5월 25일 오전 9시 30분
- 참석: 이승민 총회장, 박승철 글로벌인재양성 부장, 나지인 재외동포팀장

21. 청주 고인쇄 박물관 방문

- 일시: 2017년 5월 30일 오전 11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김윤희 편집장, 박홍래 박물관장, 황정하 학예연구관, 임현국 직지 홍보팀장

22. 여주시 면담

- 일시: 2017년 5월 30일 오후 4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강대준 세종인문팀장

23. 종이문화재단 방문

- 일시: 2017년 5월 31일 오전 11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노영혜 재단 이사장, 이준서 사무처장

24. 전주시 한지산업지원센터 면담

- 일시: 2017년 5월 31일 오후 2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박희양 이사

25. 김구재단 방문

- 일시: 2017년 5월 31일 오후 4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이성우 사무처장, 허영현 부장 김정은 과장

26. 예담한복 방문

- 일시: 2017년 6월 1일 오전 9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김필범 경영기획 실장

27.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 일시: 2017년 6월 1일 오전 11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유호선 학예연구관, 이승재 학예연구관, 김정훈 기획운영과장, 김지원 연구교육과, 황선우 연구교육관

28. 독도재단 면담

- 일시: 2017년 6월 1일 오후 12시 30분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이상모 대표이사, 김상태 교육홍보부장

29. 한국국학진흥원 면담

- 일시: 2017년 6월 1일 오후 2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이용두 원장, 김종석 수석연구원

30.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방문

- 일시: 2017년 6월 1일 오후 4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육효창 원장

31. Council of Korean Americans 방문

- 일시: 2017년 6월 5일 오전 11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Sam Yoon, Executive Director

32. NAKS 18대 제 10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6월 6일 (동부시간 오후 9시-12시)

33. 동북부지역 교사연수회 참석

- 일시: 2017년 6월 17일 오전 9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오정선미 부회장, 황정숙 사무총장

34. NAKS 수준별 역사문화 교안 위원 화상회의

- 일시: 2017년 6월 30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1시)
- 참석: 이승민총회장, 김선형 교육, 김지선 위원, 조형민 위원, 최경선 위원, 김선미 위원, 소지희 위원

35. NAKS 18대 제11차 임원 회의

- 일시: 2017년 6월 23일 (플로리다 차세대교사연수회 장소)

36. 제 3차 차세대교사워크숍 (2017년 6월 23일 금요일~6월 25일)

- 장소: 올랜도 플로리다 (Orlando Airport Marriott Lakeside)
- 주제: 차세대 선도 교사의 역할과 리더쉽
- 참석자: 미시간, 중서부, 남서부, 워싱턴, 북가주, 동북부, 동남부 등 총 9개 지역 25명의 교사

37. 제35회 학술대회 기조 강사 확정

- 기조 강사: Jason Park 겸사 (한국명 박종협)
- 일시: 2017년 6월 24일

38. NAKS 18대 제12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7월 6일 (동부시간 오후 9시-12시)

39. NAKS 18대 제13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동부시간 오후 9시~12시)

40. 제3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 및 진행

- 일시: 2017년 8월 6일~14일

41. NAKS 18대 제14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8월 17일 (동부시간 오후 9시-12시)

42. 중서부 지역 교사연수회 참석

- 일시: 2017년 8월 19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43. 36회 학술대회 준비 모임 (호텔)

- 일시: 2017년 8월 19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Richard Park, Senior Event Manager

44. 동북부지역 역사 문화 체험 캠프

- 일시: 2017년 8월 24일~26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45. 찾아가는 차세대 교사 간담회 (동중부지역)

- 일시: 2017년 8월 26일~27일
- 참석: 권재일 교수, 이승민 총회장, 오정선미 부회장, 황정숙 사무총장

46. NAKS 수준별 역사문화 교안 위원 화상회의

- 일시: 2017년 9월 1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1시)
- 참석: 김지선 위원, 조형민 위원, 최경선 위원, 김선미 위원, 소지희 위원

47. NAKS 회장단 제 1차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9월 5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1시)

48. 찾아가는 차세대 교사 간담회 (남서부지역)

- 일시: 2017년 9월 9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49. 찾아가는 차세대 교사 간담회 (하와이지역)

- 일시: 2017년 9월 9일
- 참석: 이내원 전이사장, 손민호 SAT 전문위원

50. NAKS 18대 제15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9월 12일 (동부시간 오후 9시-12시)

51. NAKS 수준별 역사문화 교안 위원 화상회의

- 일시: 2017년 9월 17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1시)
- 참석: 김지선 위원, 조형민 위원, 최경선 위원, 김선미 위원, 소지희 위원

52.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교사 아이디 제작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일시: 2017년 9월 17일

53. 미주한국어재단 방문

- 일시: 2017년 9월 18일
- 참석: 이선근 박사, 홍태명 이사, 이승민 총회장

54. 문재인 대통령 뉴욕 방문 동포 간담회

- 일시: 2017년 9월 18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황정숙 사무총장, 고은자 이사장, 심수목 동중부 회장, 박종권 동북부 회장

55. 한국어 교육 간담회

- 일시: 2017년 9월 20일
- 참석: 워싱턴지역협의회 임원진, 신문규 교육관, 박상화 워싱턴교육원장, 이승민 총회장, 지수경 웹간사

56. 코리아소사이어티 60주년 기념 갈라 참석

- 일시: 2017년 9월 28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오정선미 부회장, 황정숙 사무총장

57. 한국학교 나눔의 장: 학부모 간담회 (콜로라도 지역)

- 일시: 2017년 9월 30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임지현 남서부협회장

58. NAKS 수준별 역사문화 교안 위원 화상회의

- 일시: 2017년 9월 30일 (동부시간 오후 9시~11시)
- 참석: 김지선 위원, 조형민 위원, 최경선 위원, 김선미 위원, 소지희 위원

59. ACTFL 방문

- 일시: 2017년 10월 6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Marty Abbott, Executive Director; Paul Sandrock, Director of Education

60. NAKS 수준별 역사문화 교안 위원 화상회의

- 일시: 2017년 10월 14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1시)
- 참석: 김지선 위원, 조형민 위원, 최경선 위원, 김선미 위원, 소지희 위원

61. NAKS 18대 제16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10월 17일 (동부시간 오후 9시-12시)

62. 총무공 이순신 글쓰기 공모 공문 발송

- 일시: 2017년 10월 20일

63. 찾아가는 차세대 교사 간담회 (서북미 지역)

- 일시: 2017년 10월 21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64. NAKS 수준별 역사문화 교안 위원 화상회의

- 일시: 2017년 10월 22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1시)
- 참석: 김지선 위원, 조형민 위원, 최경선 위원, 김선미 위원, 소지희 위원

65.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 (총무공 이순신 글쓰기 공모전)

- 일시: 2017년 10월 27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명희 워싱턴협회장 및 이순신 미주교육본부 관계자

66. NAKS 수준별 역사문화 교안 위원 화상회의

- 일시: 2017년 10월 29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1시)
- 참석: 김지선 위원, 조형민 위원, 최경선 위원, 김선미 위원, 소지희 위원

67. 정주영기념 미주재단 교신

- 일시: 2017년 10월 29일
- 내용: 이승민 총회장, 방무성 이사장

68. 장은영 부회장 자격 상실

- 일시: 2017년 11월 3일

69. 한국어 교육자 간담회

- 일시: 2017년 11월 3일
- 참석: 신문규 교육관, 박상화 교육원장,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고은자 이사장, 김명희 워싱턴협의회장, 이내원 전이사장

70. NAKS 감사

- 일시: 2017년 11월 3일 ~ 4일
- 참석: 김현 감사, 김용순 감사, 고은자 이사장, 김미경 재무, 이승민 총회장

71. 워싱턴지역 글짓기 및 백일장 대회 참석 및 간담회

- 일시: 2017년 11월 4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고은자 이사장

72.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행부 및 지역협의회장 연석 제 2차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11월 7일 (동부시간 오후 9시-12시)
- 참석: 집행부 임원진; 14개 지역협의회 회장

73. 동남부지역 한글 올림피아드

- 일시: 2017년 11월 11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74. SAT 한국어 모의 고사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11월 14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0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오정선미 부회장, 이광호 자문위원; 강주언 출제위원; 서희승 출제위원; 손민호 출제위원; 임난희 감수위원

75. ACTFL Convention 참석

- 일시: 2017년 11월 16일 - 18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황정숙 사무총장, 윤한나 홍보

76. ACTFL-NAKS Certificate on Teaching Korean 미팅

- 일시: 2017년 11월 18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황정숙 사무총장, 윤한나 홍보, Marty Abbott, Executive Director; Paul Sandrock, Director of Education

77. SAT 한국어 모의고사; 수준별 평가 및 반 배치 모임

- 일시: 2017년 11월 20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강주언 팀장

78. 통일부 통일 교육원 간담회

- 일시: 2017년 11월 4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명희 워싱턴협회장, 김선화 워싱턴협의회 부회장

79. 36회 학술대회 준비 모임 (시카고)

- 일시: 2017년 11월 5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윤현주 중서부 회장, 이종국 총영사, 박준성 시카고 교육원장

80. 제 36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안내 및 강사추천 요청 공문 발송

- 일시: 2017년 11월 20일

81. 수준별 역사 문화 수업 교안 위원 추천 공문 발송

- 일시: 2017년 11월 28일

82. 2018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보 발간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일시: 2017년 12월 2일

83. NAKS 18대 제17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12월 7일 (동부시간 오후 9시-12시)

84. 워싱턴지역 교사의 밤 참석

- 일시: 2017년 12월 9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지수경 웹 간사

85. Korean Heritage Foundation 갈라 모임 “아이들이 미래다”

- 일시: 2017년 12월 14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지수경 웹 간사

86. 총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심사 사전 모임

- 일시: 2017년 12월 15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지수경 웹 간사,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 담당자

87. 중남부지역 교사의 밤 참석

- 일시: 2017년 12월 17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오정선미 부회장

88. Korean Heritage Foundation 상호 협력 논의

- 일시: 2017년 12월 21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주현영 담당자

89. 교육정책토론회 (안민석국회의원 주최)

- 일시: 2017년 12월 28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90. 재외동포재단 상호 협력 논의

- 일시: 2017년 12월 28일
- 참석: 한우성 이사장, 김봉섭 부장, 윤혜선 차장, 오현영 과장, 이미경 과장, 이승민총회장

91. Korean Heritage Foundation 상호 협력 논의

- 일시: 2018년 1월 2일
- 참석: 윤삼균 이사장, 주현영 담당자, 이승민 총회장

92. 제 7회 백범 일지 독서감상문 대회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1월 2일

93. 2018년 한인교육연구지 발간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1월 3일

94. 시카고 한인회 신년 하례식

- 일시: 2018년 1월 4일 (오후 6시)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김미경 재무, 윤하나 홍보, 윤현주 중서부 회장

95. 2018년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행부 및 지역협의회 회장단 연석회의

- 일시: 2018년 1월 5-7일 (금-일)
- 장소: Renaissance Schamburg Hotel and Convention Center (Euphoria) 1551 North Thoreau Drive, Schaumburg, IL 60173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오정선미 부회장, 유미순 부회장, 황정숙 사무총장, 김미경 재무, 김윤희 편집장, 윤하나 홍보간사, 지수경 웹간사, 고은자 이사장, 신현주 부이사장, 남서부 임지현 회장, 동남부 선우인호 회장, 미시간 김선미 회장, 북가주 한희영 회장, 서북미 조영숙 회장, 워싱턴 김명희 회장, 중서부 윤현주 회장, 중남부 김명숙 회장, 플로리다 김진희 회장, 하와이 손애자 회장, 이종국 주시카고 총영사,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 박준성 시카고한국교육원장, 김채영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하유경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 과장, 장지훈 교육부 연구사

96. SAT 한국어 모의 고사 출제 위원 모임

- 일시: 2018년 1월 5-7일
- 참석: 강주언 팀장, 손민호 위원, 서희승 위원, 이광호 자문이사 (위원장), 오정선미 담당 부회장, 이승민 총회장

97. MD 주정부 미주한인의 날 선포 및 기념식

- 일시: 2018년 1월 8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명희 워싱턴 회장

98. 제 3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1월 9일

99. 총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워싱턴 한국일보 방문)

- 일시: 2018년 1월 9일
- 참석: 이종국 국장, 이승민 총회장, 김명희 회장, 박은혜 교사 (예사랑 한국학교)

100. 재외동포재단 상호 협력 논의 (LA)

- 일시: 2018년 1월 11일
- 참석: 한우성 이사장, 김주동 과장, 조형재 LA 주재관, 이승민 총회장

101. UC Riverside 김영옥센터 후원 모임

- 일시: 2018년 1월 12일
- 참석: UCR 관계자, 한우성 이사장, 이승민 총회장

102.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KOSAA)

- 일시: 2018년 1월 12일
- 참석: 김응호 회장, 이승민 총회장

103. 미주초중고교사협의회 (KLTA) 상호 협력 논의

- 일시: 2018년 1월 12일
- 참석: 김선영 회장, 이승민 총회장

104. 제 22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1월 18일

105. NAKS 18대 제 18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8년 1월 16일 (동부시간 오후 9시-12시)

106. 국립국어원 상호 협력 논의 화상회의 (집중연수)

- 일시: 2018년 1월 18일 (동부시간 오후 9시-10시)
- 참석: 김혜민 학예연구사, 지수경 웹간사, 이승민 총회장

107. 교육원 상호 협조 논의

- 일시: 2018년 1월 23일
- 참석: 박상화 워싱턴한국교육원 원장, 이승민 총회장

108. 조윤제 대사, 단체장 초청 신년하례식

- 일시: 2018년 1월 24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명희 워싱턴 회장

109. 총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평가회

- 일시: 2018년 1월 24일

- 참석: 이순신미주교육본부 관계자, 이승민 총회장, 지수경 웹간사, 김명희 워싱턴회장

110. Tim Kaine과의 대화

- 일시: 2018년 1월 31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명희 워싱턴 회장

111. 거북선 모형 기증 감사 모임

- 일시: 2018년 1월 31일
- 참석: 채효성 화백, 이내원 전이사장, 이승민 총회장

112.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누리집(웹사이트) 구성 논의

- 일시: 2018년 2월 1일
- 참석: 추승호 웹마스터, 지수경 웹 간사, 이승민 총회장

113. 2018년 직지 캠프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2월 1일

114. 총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후원 만찬

- 일시: 2018년 2월 4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김명희 워싱턴 회장

115. 학부모 간담회

- 일시: 2018년 2월 10일
- 강사: 서문원 자문이사

116. 제 22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 신청 안내 2차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2월 12일

117. 독도재단 방문

- 일시: 2018년 2월 12일
- 참석: 이상모 대표이사, 김수희 부장, 문준환 대리, 이승민 총회장

118.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 일시: 2018년 2월 13일
- 참석: 박영국 관장, 이승재 과장, 이승민 총회장, 황현주 동북부 회장

119. 재외동포재단 방문

- 일시: 2018년 2월 13일
- 참석: 한우성 이사장, 기춘 이사, 오영훈 이사, 김봉섭 부장, 윤혜선 차장, 오현영 과장, 이미경 과장, 이승민 총회장, 황현주 동북부 회장

120. 반크 방문

- 일시: 2018년 2월 13일
- 참석: 박기태 단장, 이승민 총회장, 황현주 동북부 회장

121. 국립국어원 방문

- 일시: 2018년 2월 14일
- 참석: 송철의 원장, 정희원 실장, 이보라미 연구사, 김혜원 연구사, 이승민 총회장

122. NAKS 18대 제 19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8년 2월 20일 (동부시간 오후 9시-12시)

123. 미 정부 교육 지원 논의

- 일시: 2018년 2월 21일
- 참석: Karishma Merchant, Senior Education Advisor (Tim Kaine), 이승민 총회장

124. 거북선 기증 (하와이 지역)

- 일시: 2018년 2월 22일
- 참석: 채효성 화백, 이내원 전이사장, 이문형 심사위원장, 김대영 이순신미주교육본부 부이사장, 지수경 웹간사, 이승민 총회장

125. 한국학교 차세대 교사 교육 토론회

- 일시: 2018년 2월 23일
- 참석: 이채영 변호사, 김채영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이승민 총회장

126. 찾아가는 차세대 교사 간담회 (워싱턴 지역)

- 일시: 2018년 2월 24일
- 강사: 이채영 변호사

127. 학술대회 준비 모임 및 교사 연수회 (중서부)

- 일시: 2018년 2월 24일
- 참석: 중서부지역 임원진, 이승민 총회장

128. 한국학교 현안 논의

- 일시: 2018년 2월 26일
- 참석: 김동기 워싱턴 총영사, 이승민 총회장

129.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사무실 마련 논의

- 일시: 2018년 2월 27일
- 참석: 황보철 자문이사, 이내원 자문이사, 이승민 총회장, 김명희 워싱턴 회장

130. 제 36차 학술대회 안내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2월 27일

131. 집중연수 안내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3월 1일

132. 찾아가는 차세대 교사 간담회 (뉴잉글랜드)

- 일시: 2018년 3월 3일

- 강사: 이승민 총회장

133. 뉴잉글랜드지역 교사연수회 및 사은의 밤

- 일시: 2018년 3월 3일
- 참석: 이승민 총회장

134. 장기근속 교사 및 학교 추천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3월 5일

135. NAKS-ACTFL Collaboration on Teacher Development

- 일시: 2018년 3월 6일
- 참석: Paul Sandrock, 이승민 총회장

136. 나의꿈 말하기 대회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3월 7일

137. 제14회 나의꿈 말하기 대회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3월 8일

138. SAT 한국어 모의 고사 및 한국학교 모임 (하와이)

- 일시: 2018년 3월 12일
- 참석: 하와이지역 임원진 및 한국학교 담당자, 손애자 하와이 회장, 이승민 총회장

139. 한국/미국 외부 협력기관 학술대회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3월 11일

140. 한국어 학습활동 포스터 경시대회 공문 발송

- 일시: 2018년 3월 12일

141. 하와이 지역 후원자와의 모임

- 일시: 2018년 3월 13일
- 참석: 김영달 이사장, 손애자 화와이 회장, 이승민 총회장

142. 주 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및 협조 요청

- 일시: 2018년 3월 13일
- 참석: 강영훈 총영사, 이승민 총회장, 손애자 하와이 회장

143. NAKS 18대 제 20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8년 3월 15일 (동부시간 오후 9시-11시)

사진으로 보는 NAKS 사업 보고와 활동



2017년 4월 8일: 동남부 교사연구회 참석(이승민 총회장, 선우인호 동남부 회장, 유민순 부회장, 김미경 재무)



2017년 5월 12일: 제35회 NAKS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선우인호 동남부 회장, 이승민 총회장, 김형률 준비위원장)



2017년 5월 5일: AATK 강사회 회장 면담



2017년 5월 18일~21일: 캐나다한국학교연합회 제7차 학술대회 참여(황정숙 사무총장, 이승민 총회장)



2017년 5월 9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날 기념 교육 간담회
(이승민 총회장, 이내원 전이사장, 신문규 교육관, 김대영 전부이사장, 한연성 워싱턴 회장, 안미혜 교육원장, 지수경 웹간사)



2017년 5월 24일: 재외동포재단 방문(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김윤희 편집,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교육부장, 윤혜선 재외동포재단 교육차장, 이상학 재외동포재단 과장, 임정은 독립기념관 학예연구관, 윤경미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정민석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2017년 5월 24일: 세종학당재단 방문(김윤희 편집, 김미경 재무, 송향근 이사장, 이승민 총회장)



2017년 5월 24일: 국립국어원 방문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김윤희 편집, 송철의 국립국어원 원장, 정호성 과장, 김수현, 정혜선, 이보라미)



2017년 5월 25일: 국립국제교육원 방문

(박승철 글로벌인재양성부장 <서기관>: 나지인 재외동포팀장)



2017년 5월 31일: 김구재단 방문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이성우 사무처장, 허영현 부장, 김정은 과장)



2017년 5월 30일:

청주 고인쇄 박물관 방문

(김미경 재무, 김윤희 편집, 이승민 총회장, 박홍래 박물관장, 황정하 학예연구관, 임헌국 직지 홍보팀장)



2017년 5월 31일: 종이나라재단 방문(노영혜 재단이사장, 이승민 총회장, 김미경 재무, 이준서 사무처장)



2017년 6월 1일: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방문(김미경 재무, 육효창 교수, 이승민 총회장)



2017년 6월 1일: 예뻐한복 방문
(김미경재무, 이승민 총회장, 김필범 본부장)



2017년 6월 5일: CKA 방문
(이승민 총회장, Sam Yoon 대표)



2017년 6월 24일: 차세대 교사 워크숍 @올랜드 플로리다(Orlando Airport Marriott Lakeside)



2017년 7월 10일~13일: 직지 캠프



2017년 7월 10일~13일: 직지 캠프



2017년 7월 10일~13일: 직지 캠프



2017년 7월 13일: ACTFL 방문
(안미혜 워싱턴 교육원장, Marty Abbott 대표, 이승민 총회장)



2017년 10월 6일: ACTFL 방문
(Paul Sandrock 교육 담당, 이승민 총회장, Marty Abbott 대표)



2017년 8월 5일: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학술대회 참석(이승민 총회장)



2017년 8월 10일~12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35회 학술대회 (Atlanta, Georgia)



2017년 8월 26일: 찾아가는 차세대 교사 간담회



2017년 9월 30일: 한국학교 나눔의 장 /학부모 간담회(유미순 부회장, 임지현 강사, 이승민 총회장)



2018년 1월 5일~7일: 연석회의 @ Renaissance Schamburg Hotel and Convention Center (Euphoria)



2018년 1월 5일: SAT Subject Test Korean한국어 모의고사 출제 위원 모임
(강주언 팀장, 손민호 위원, 서희승 위원, 이광호 전문위원장, 오정선미 담당 부회장, 이승민 총회장)



2018년 1월 11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및 LA 지역 차세대 리더들과의 만남(이승민 총회장)



2018년 1월 24일: 조윤제 주미국 대한민국대사 면담
(이승민 총회장, 김명희 워싱턴회장)



2018년 2월 12일: 독도재단 방문(이상모 대표이사, 이승민 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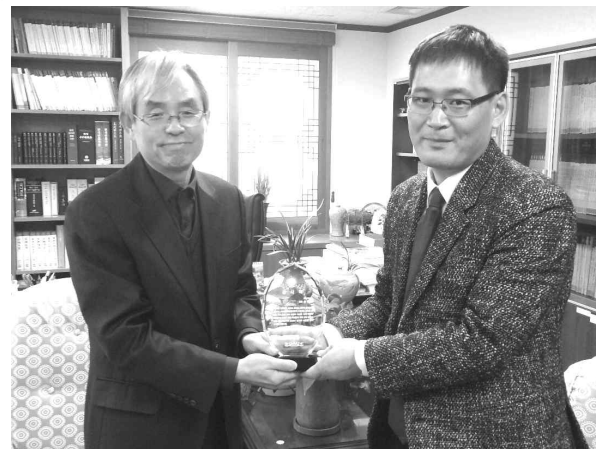
2018년 2월 13일: 국립한글박물관 방문(이승재 과장, 박영국 관장, 이승민 총회장)



2018년 2월 13일: 재외동포재단 방문(김봉섭 사장, 황현주 동북부회장, 이승민 총회장, 한우성 이사장)



2018년 2월 13일: 반크 방문
(박기태 단장, 황현주 동북부 회장, 이승민 총회장)



2018년 2월 4일: 국립국어원 감사패 증정
(송철의 원장, 이승민 총회장)



2018년 2월 24일: 수준별역사문화 수업교안 위원 모임(박건일 위원, 이승민 총회장, 김선미 팀장, 홍혁란 위원, 엄혜정 위원)

제 22차 전국 SAT Subject Test: Korean 모의고사 출제 및 한국어 수준별 평가 및 반배치시험 평가지 출제 회의



사진 설명: 왼쪽부터 손민호 출제위원, 서희승 출제위원, 강주언 출제위원, 이승민 총회장, 이광호 SAT 전문위원장, 신문규 주민대사관 교육관, 명계웅 전 출제위원, 오정선미 부회장, 박규영 전 출제위원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르네상스 호텔에서 2018년 1월 5일에 서 7일까지 2박 3일 동안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소속 SAT 전문위원인 손민호, 서희승, 강주언 교수가 모여 3월 16일에서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될 모의고사를 출제하였다.

NAKS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SAT Subject Test: Korean 모의고사가 올해로 제22회째가 된다. 올해 출제되는 SAT Subject Test: Korean 모의고사의 출제경향은 본고사 SAT Subject Test: Korean의 수준과 유형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본고사에 임하는 수험생들이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더욱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SAT Subject Test: Korean을 보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예로, 우수 대학에 입학 지원서를 낼 때, SAT Subject Test: Korean의 고득점 시험점수를 제출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대학에 따라 필수 외국어 학점이 있는데, SAT 한국어 점수로 필수 외국어 학점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학부모님들에게 적극 알려 이 시험을 꼭 치르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SAT 전문위원회 측은 올 7월 시카고지역에서 열리는 NAKS 전국학술대회에서 SAT Subject Test 한국어 시험 홍보와 올 3월에 전국적으로 치러질 SAT한국어 모의고사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발표하고, SAT모의고사를 활용한 수업 지도안 발표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모임에서 1997년에 제 1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를 출제했던 3분의 위원도 함께 참석하여 22회 출제위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2012년 표준교과과정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지금까지 이에 맞는 학습능력평가지가 이후 개발된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협의회 소속 한국/한글 학교들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입문, 초급, 중급, 고급별로 평가하고 반 배치하는 시험을 위한 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SAT 위

원인 손민호, 서희승, 강주언 교수가 수고해 주시고 있다. 2박 3일 일정 중 NAKS 표준교육안을 기준으로 각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 수준별 표준평가 및 반배치 평가를 위한 문제도 출제하였다. 최종 평가지가 5월 중에 완성이 되어 각 한국학교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여 한국학교 교사들의 피드백도 받아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종 완성 평가지는 모든 한국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스 웹사이트에 등재할 예정이다.



사진 설명: 왼쪽부터 이승민 총회장, 손민호 출제위원, 오정선미 부회장, 신문규 주민대사관 교육관, 강주언 출제위원, 서희승 출제위원, 황정숙 사무총장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남서부 지역협의회



회장 김윤희

남서부는 지난 2017년도에 여러 지역에 적합한 전통문화 수업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워낙 넓게 분산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 수업을 찾고 함께 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서부 산하 소속 지역에 맞춰서 나름대로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남서부 달라스/포트워스 지역 학교 학생들의 전통 민속 한 마당



우리 학생들의 예쁜 한복 입은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총 12개 참가학교

- 한삼춤 - 달라스한국학교 캐롤튼 제2 캠퍼스
- 장구 - 포트워스 한국학교
- 아리랑 - 새날한글학교
- 도라지 타령 - SDA 세종 한글학교
- 두들소리 - 달라스한국학교 캐롤튼 제1 캠퍼스
- 아리랑 - 참빛한국학교
- 아리랑 엄마사랑 - 달라스한국학교 맥키니 캠퍼스
- 부채춤 - 영락한글학교
- 쉽게배우는 장구장단 - 달라스한국학교 달라스 캠퍼스
- 탈춤 - 웨슬리 한글학교
- 아리랑 - 허스트한글학교
- 난타 - 달라스한국학교 코펠 캠퍼스

킬린한국학교 방패연 연 만들기 수업입니다.



알칸사 - 태권도



오클라호마 - 조롱박 만들기



차세대 보조교사 워크숍 - 달라스 지역과 휴스턴 지역 학생들

열심히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휴스턴 지역 문화체험 - 송편 만들기

예쁘고 알록달록한 색들이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배우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도 좋지만 교사 분들의 숨씨도 아주
좋으시네요.
배움은 즐거운 일입니다!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회장 이현경

2017년 8월부터 신임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NAKS-NE 협의회는 6월17일 정기 이사회 및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이현경 씨를 선출. 회장 선거에는 성요한 한국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이현경 전 부회장이 단독 후보로 올라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으로 선출. 부회장으로는 쾨지학교의 최연식 교장이 선출. 윤미아 이사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회의에서 이사들은 오인식 선출이사를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이사회 총무로 선출.

이현경 신임회장은 1999년부터 성요한 한국학교에서 2세를 가르치며 교육자로 봉사해 왔고 2005년부터는 협의회에서 서기, 홍보간사와 부회장을 맡아 봉사해 왔다.

이 회장은 “인수인계가 조금 늦어 주춤했지만 앞으로 협의회는 많은 교장 선생님과 교사와의 소통으로 2세에게 뿌리교육과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목표를 두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으로 세대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15대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이현경 신임회장, 최연식 부회장, 강상철 부회장, 재무 남일 부회장, 교육 채희정 총무, 권혜림 서기, 양대연 홍보 등이다.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가을 교사 연수회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회장 이현경, 이사장 윤미아) 가을 정기 교사연수회가 9월 9일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개최됐다

“2세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 및 교과과정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뉴잉글랜드, 보스턴 장로, 우스터, 성요한, 쾨지, 한마음 총 6개 한국학교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윤정운 중앙대 치대교수는 첫 번째 강연에서 아이들을 위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치과의 여러 전공 분야,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의 차이점 등을 강의했다.

윤자영 강사는 두 번째 전체 강연에서 <두뇌의 신비한 경험-음악치료 (Music Therapy)>란 제목으로 음악이 두뇌 전체에 작용하는 점을 강조하고 음악을 치료의 역사와 반신마비, 치매, 자폐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음을 강의했다.

분반 강의에서 박현아 강사는 <느끼고·맛보고·보고·듣고·말는다>란 제목으로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가장 효과적인 오감으로 느끼는 놀이수업에 대해 강의했다. 애정학습법이라 칭하는 수업은 문화로 접근해 즐거움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교수법이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작문교사를 맡고 있는 이정설 강사는 <지각과 생각을 키우는 작문교육>이란 제목으로 '똥'이란 소재를 통해 실재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맞추기 게임 등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에 이르는 과정을 강의했다.

홍순주 강사는 <아이디어 넘치는 초급 이상 교수법>이란 제목으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신라 과정 수업 전반을 소개하고 보상 스티커, 시장놀이 음식체험 등의 활용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에 앞서 이현경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외 한국학교들은 세계 한민족을 네트워킹해주는 역할을 하며 교사 여러분은 2세 뿌리 교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 문화교육 보급을 선도해 달라”고 전하며 행사를 후원한 윤미아 이사장과 신영 선출이사 그리고 남일 부회장에게 감사

의 말을 전했다.

윤미아 이사장은 “각 한국학교의 교육현장에서 헌신과 끊임 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장 선생님 및 교사 여러분에게 이번 정기 연수회가 깊은 감동과 격려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엄성준 총영사는 “보스턴 총영사관은 차세대 한인들이 미국 내에서 성공하고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번 연수회가 한국학교 교육의 새로운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분반 강의 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을 운영해 자녀를 둔 교사들의 참여를 도왔다. 이현경 회장은 연수회를 마치고 교사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동심의 잔치, 2017년 동요합창제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가 12월 2일 토요일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제16회 동요발표제를 개최했다. 2014년 이래 시 없이 대회가 아닌 합창 발표제로 전환되어 아이들에게 동요를 알리고 우리말과 정서를 나누는 잔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번 동요합창제에는 발표에 앞서 각 학교 소개 동영상과 동요 가사를 스크린에 띄워 서로 간에 발표 준비 과정과 동요 가사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현경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부모에게 그간 바빴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아이들의 동요를 들으며 옛 우정과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려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임원진 외 이사님과 많은 협의회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발표가 끝나고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한국전통 복주머니와 메달이 주어졌고 저녁으로 김치볶음밥이 준비되어 많은 인

기를 얻었다. 난타팀의 축하공연도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국학교 협의회는 내년 3월 교사사은회 및 교사연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학교 (가나다순)

- 내슈아 한마음 한국학교(김연정 교장): 머리, 어깨, 무릎, 발, 아기공룡 둘리, 겨울바람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남일 교장): 숲속을 걸어요
- 보스턴 장로교회 한국학교(김재울 교장): 함께 떠나요 신나는 여행길
-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서용학 교장): 아름다운 세상
- 보스턴 한국학교(강상철 교장): 숲속의 아침
- 북부 보스턴 한국학교(김연정 교장): 참 좋은 말, 바람의 빛깔, 넌 할 수 있어
- 성요한 한국학교(이현경 교장): 덩덩쿵
- 우스터 한국학교(윤미랑 교장): 아름다운 나라



난타팀 축하공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보스턴 한국학교



성요한 한국학교



우스터 한국학교



천주교 한국학교



한마음 한국학교



보스턴 장로교회 한국학교



북부 보스턴 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교장단 회의

1월 20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첫 교장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참석하여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될 모든 예전의 사업들 하나씩 확인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까지 직접 접하며 모든 것을 운영하는 분으로 현대에 맞는 교육방식의 무

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안건으로 내주셔서 서로 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행사로 3월 3일 교사 사은회 및 교사 연수회가 있습니다. NAKS 협의회 총회장 이승민 회장님과 보스턴 총영사관 김용현 총영사님이 “차세대 교육”과 “차세대의 방향”에 대해 강연해 줄 것입니다.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동남부 지역협의회



회장 선우인호

제 12회 한글올림피아드

재미한국학교 동남부지역협의회 (회장 선우인호)는 지난 2017년 11월 11일 제 12회 한글 올림피아드 행사를 중앙장로교회에서 열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약 30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올 해로 12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해를 거듭해오면서 한글실력의 다양한 평가를 위하여 새로운 종목을

추가해왔다. 올 해는 기초와 초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글자놀이대회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메달의 수를 늘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상토록하였다.

한글올림피아드는 한글을 이용해 각종 경기를 만들어 올림픽과 같이 각 종목에서 최고의 기량을 겨루는 대회이며, 조국을 떠나 세계 각지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뿐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이에게 한국어 습득의 동기와 흥미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얻게 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열렸다. 한국어 구사능력을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각 영역별로 경쟁할 수 있는 경기로 만들어 연령에 따라 각 한국학교 등 단체,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력을 드러냄으로, 올림픽을 통해 엘리트 체육이 풀뿌리 체육의 육성을 북돋듯, 각 한국학교가 보다 수준 높은 교육 목표를 세우도록 유

도하여, 한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이대회의 또 다른 목표이다.

2018년 제 12회 대회의 참가 종목은 동시낭송, 동화구연, 동화 읽고 요약하기, 받아쓰기, 한국역사 퀴즈, 한글 골든벨, 한글 글자놀이 및 한글 바른말 찾기 등 8개 종목이며 각 종목당 초급, 중급, 고급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매 해 활 쓰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등의 전통놀이들을 출전 종목 종목 사이에 전통놀이 마당에서 즐기고 있으며 올 해는 특히 한글해례본 탁본뜨기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2018년 봄학기 교장세미나 “우리도 열심히 배워요”

동남부지역협의회는 2018년 봄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위한 교장세미나를 미국에서 7번째, 29년만에 새로 개원한 (주)에틀랜타교육원에서 개최하였다. 조재익 초대 (주)에틀랜타교육원 원장과 교장선생님들의 간의 상견례와 연수, 운영금 지원, 차세대 한글교육,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 교수학습자료 콘텐츠 제공 등 한국정부의 한

글(국) 학교지원 정책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선우인호협의 회장의 2018년 봄학기 협의회 및 NAKS 행사소개와 시카고 연석회의보고, 양승수 조지아귀넷텍 교수의 “한국학교운영자에게 필요한 컴퓨터/웹 활용방법” 및 꼭 알아야 할 문서 작성기법에 대한 안내, 김용택 조지아텍 교수의 “한국어 교육의 인지언어학적 접근 및 동향”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동북부 지역협의회



회장 황현주

설봉 뿌리 교육상 수상 소식

뿌리 교육재단과 뉴욕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유패밀리 장학재단이 후원하는 “설봉 뿌리 교육상” 3명의 수상자 가운데 2명의 수상자가 동북부 협의회 회원교에서 선출되었다. 한인 2세의 뿌리 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뿌리 교육자분들을 찾아 각각 상패와 상금

\$2,000을 수여하는 이 행사는 추천서 심사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7년의 수상자로 선정된 세 분 가운데 동북부 협의회 소속 사랑 한국학교의 홍태명 교장님과 팔리세이드 한국학교의 문윤희 교장님은 각각 동북부 협의회 자문위원과 감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한인 2세의 한국문화와 역사 교육에 열정으로 매진하고 계신다. 뿌리 교육의 중요성과 한인 학생들의 Korean American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시며 끊임없이 청소년들을 위해 연구하시는 두 분은 미주 한인사회

의 귀한 교육자이시며 이 땅의 쓰임 받는 인재 배출을 위한 미중물임에 틀림이 없다.

제18회 한영/영한 번역대회 교육부 장관상 수여 소식

미 전역 한국학교 협의회 중 현재 유일하게 동북부 협의회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한영/영한 번역대회는 뉴욕 한국교육원과 유패밀리 재단의 후원으로 동북부 협의회가 주최하여 매년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지역의 규모 있는 한국학교 행사로 발전되고 있다. 2017년 제18회 한영/영한 번역대회에서는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되면서 더욱 모범적인 교육행사로 인정받으며 동북부 협의회만의 선도적인 행사가 되었다. 지난 번역대회에서는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응시하는 큰 반응을 얻으며 지원자와 수상자 등 학생들의 수준 또한 월등히 향상되었다.

2017년 11월 22일 제18회 한영/영한 번역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뉴욕 총영사관에서 진행되었고, 동북부 협의회에서는 이날 대상인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롱아일랜드 성당 한국학교 하주는 양을 비롯한 40여 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동중부 지역협의회



회장 심수목

2017한국문화 여름캠프 ‘한국의 소리 - 아리랑’

재미한국학교 동중부지역협의회(회장 심수목)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한 한국문화 여름 캠프 ‘한국의 소리 - 아리랑’이 2017년 8월21일부터 23일까지 펜실베이니아 포코노 소재 마운트 길리엇 캠프장에서 열렸다. 동중부지역협의회가 관할하는 필라델피아 및 남부뉴저지지역 한국학교에서 46명의 한국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강사 등 총 62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뉴욕취타대(단장 이춘승)와 우리가락 한국 문화 예술원의 강은주 원장을 초빙해 태평소, 모듬북, 삼고무 등 3가지 마당으로 2박 3일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한국 전통 문화예술을 연마하는 동시에 틈틈이 수영과 카누 등을 함께 하며 동중부 지역 거주 한인 2세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캠프 시작 날부터 3일 동안 자신이 태평소, 모듬북, 삼고무 중 자신이 원하는 마당에 대한 집중 연수를 받은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이던 23일 오전, 전체 참가자들과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공연을 펼쳤다. 첫 순서로 태평소 마당에서 연수받은 참가자들이 전통악기 태평소, 나각, 나발, 운라, 바라, 용고 등으로 아리랑을 연주하며 과거 임금 행차 시 동행했던 취타대를 재연했고 삼고무와 모듬북 마당 연수생들의 공연이 뒤를 이었다.

리하이벨리에서 참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첸 양의 어머니 메이슨 씨는 “딸이 한국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런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캠프에 참가하게 돼 기쁘다”며 “내년에도 꼭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제17회 교사사은회 개최



재미한국학교동중부지역협의회(회장 심수목)는 지난 12월 17일 월리엄펜인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교사사은회 행사를 개최했다. 사은회는 마재진 총무의 사회로 1부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례와 환영사, 축 격려사, 감사패 증정 및 모범교사상 시상, 내빈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심수목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는 언제나 즐겁고 고마운 자리이며 또한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있다"면서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한인 2세들의 교육에 전념해 주신 덕분에 우리 협의회가 발전해 가고 있다.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민 재미한국학교 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동부지역협의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며 한국학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사들의 열정과 연구에 힘입어 활성화되는 모습에 감격한다"며 "특히 젊은 협의회로 동부지역협의회가 재미한국학교를 리드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병기 한인회장은 격려사에서 "한인사회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맡은 선생님들의 자리는 매우 중요하며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격려사를 전한 데이비드 오 시의원은 "한국학교는 미국내 한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좋은 터전이며 지금 우리 가족 중 4명이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의 문화가 요즘 미국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문화의 가르침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기억나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한국문화를 많이 전수해 한국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를 미국 사회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데이비드 오 의원이 동중부지역협의회에게 감사장을 전달했고, 심수목 회장이 동중부지역협의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장병기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식사와 친교의 시간으로 2부 행사가 진행돼 1년 동안 주요 사업들과 활동들을 소개하는 학교별 사진 프레젠테이션을 가졌다. 또한 3부 순서로는 사은회에 모인 교사들을 위한 위로 공연이 펼쳐져 많은 갈채를 받았다. 필라 지역 유명 한인 성악가들과 첼로와 바이올린 클라리넷 등의 악기 연주팀이 참여해 주옥같은 곡들을 모인 이들에게 선사했다. 한인 성악가에는 테너 양영배, 조상범, 바리톤 한준희, 하태규 등이 피아노는 고수지씨가, 그리고 첼로는 Richard Jones, 바이올린은 Rodolfo Leuenberger, 클라리넷에는 Nicolas Carrasco, 카혼은 솔로몬 조 등이 참여해 공연을 펼쳐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은회 행사장 한편에는 각 학교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문화활동 작품들이 전시돼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사은회를 위해 임마누엘 한국학교 이경애 선생님은 좋은 글귀와 빛을 내는 작은 전구가 들어 있는 복주머니를 각 사람마다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 교사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 사은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재외동포재단이 마련한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집과 예쁜 털실 두건, 사과 등이 담긴 선물 봉투를 받고 사은회의 풍성함을 두 배로 느꼈다.

2017 모범교사상 수상자 명단



김윤경(기쁨의 교회 한국학교), 이진실, 박유미(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송지은(다솜한국학교), 오진희(델라웨어 한국학교), 김신혜, 민영선(랜스데일 연합한국학교), 김용경(리하이밸리 한국학교 김정선, 이영선(필라한인연합교회 연합한국학교), 이지숙(양의문 한국학교), 서진숙(영생한국학교), 장보윤(영원한교회 한국학교), 김복희(원광한국학교), 문주영, 김용은(임마누엘 한국학교), 이 브라이언(케이컬 한국학교), Jeremy Whaley(트렌튼 한국학교), 윤준혜(해밀턴 한국학교)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미시간 지역협의회



회장 김선미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 춘계 교사연수

- 일시: 2017년 4월8일 (토)
2:00 ~ 6:45
- 장소: MSU International Center, 427 N Shaw Ln, East Lansing, MI 48824
- 강사: 김태웅 선생님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는 4월 8일 East Lansing에 있는 Michigan State Univ.에서 봄 교사 연수회를 가졌다. 일 년에 2회씩 한국학교 교사들의 역량을 키워 효과적인 한글학교 수업의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교사 연수회에 이번에는 오클라호마 대학 김태웅 강사님의 "말하기 중심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업을 가졌다. 열띤 강의와 워크숍 형태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미시간 소재의 약 50여 명의 교사들은 주말 오후를 한국어 교수 이론과 실습에 열정을 다하여 참여하였다.

강의 이후에 이어진 올해의 우수교사 시상식에서는 노정환(세종학교), 강미영(연합감리교회 한국학교), 박경선(한국 문화학교), 황주영(칼라마 주한국학교) 등이 수상하였고, 5년 근속상에 박지영(세종학교), 최희재(세종학교), 10년 근속상에 윤희란(세종학교), 20년 근속상에 김선미(세종학교) 등의 교사가 수상하였다.

이 날 연수회 마지막 행사로는 한국어 수업으로 수고하신 한국학교 교사를 격려하는 즐거운 사은회가 이어졌으며, 교사들은 협의회가 제공한 맛있는 음식과 선물, 게임 등으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미시간 협의회 앞으로 일정은 5월6일 트로이에 있는 미시간 중앙연합장로교회에서 한국학교의 날 축제가 있다. 이날은 미시간 지역 한국학교 학생들 전체가 모여 주제 강연, 이야기 대회, 솜씨 자랑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특히 세종대왕을 주제로 역사 수업을 특별하게 준비하여 모든 학령의 학생들이 한국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교사 연수, 학생 참여 활동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미시간 협의회는 학생과 교사들 모두의 발전을 이루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0일에는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재미 한국학교 학술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 추계 교사연수

- 일시: 2017년 9월30일 (토) 2:00 ~ 6:45
- 장소: 미시간 한인 장로교회 30465 FARMINGTON RD, FARMINGTON HILLS, MI

9월 30일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는 미시간 장로교회 한글학교에서 가을 교사 연수회를 가졌다.

한국학교 교사들의 역량을 키워 효과적인 한글학교 수업의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교사 연수회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오주훈 교사의 차세대 연수 참여 보고를 시작으로 지난 애틀랜타에서 열린 NAKS(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학술대회 참여 후기와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박현옥 교사의 재미있고 효과적인 초등 수업의 모형 제시, 디트로이트 한국 문화학교 남궁 정 교사의 "Visual Thinking" 수업 모형으로 이미지를 통한 수업 전개, 앤아버 한국학교 김진영 교사의 역사자료 활용과 관계 맺기를 통한 한국 역사 학습, 앤아버 대학촌 한글학교 김희정 교사의 한글학교 한국사 등의 NAKS학술대회 강의내용 전달 수업과 주 강사로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최수나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중, 고등학생을 위한 한글 교육" 강의를 하였다. 최수나 선생님의 강의를 통하여 한국 단편소설을 통한 접근과 유행가를 통한 시대적 변천, 그리고 영상 자료를 통한 효과적 수업 접근 등은 많은 연수 참가자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연수였다는 격려와 칭찬을 받았고 연수회를 더욱더 활기 차게 만들었다.

이어서 한지 공예 체험 시간에는 전주의 HISC 한지 산업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전통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지의 우수성과 전통에 대해 배운 뒤 학생에게 한지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직접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손에는 교재를 또 다른 한 손에는 한지 공예 작품을 들고 돌아가는 교사들은 배운 내용을 어서 학급에 실천해 보고 싶은 기대에 발걸음이 한껏 가벼웠다.



교장연수

- 일시: 2017년 12월 2일 (토) 2:00 ~ 6:00
- 장소: 우리 한국학교(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가톨릭 교회)
21177 Halsted Rd, Northville, MI 48167
- 강사: 뉴잉글랜드 한글학교 남일 교장(주제: 학교 운영)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미시간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협의회)는 12월 2일 토요일 Northville에 있는 우리 한국학교에서 교장 연수회를 가졌다. 지난 9월 교사 연수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교장 연수에서는 한국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민하는 많은 관리자의 참여가 있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각자 학교의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학교 관리 노하우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보스턴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남일 교장이 강의를 맡았다. 효율적인 한국학교 운영방안 및 성공 사례를 주제로 펼쳐진 강의에서 늦은 시간까지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학교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양한 한국학교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교장 연수회를 끝으로 올해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낸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는 2018년에도 더욱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한국학교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년 하례식

- 일시: 1월 7일 (토)
- 장소: Novi 비빔밥
- 주요안건: 신년 하례와 한국학교의 날 준비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미시간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협의회)는 1월 7일 토요일 신년 하례식을 했다. 이번 신년 하례식에서는 시카고 교육원 하유경 원장이 참석하여 새해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한국학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학교 교장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역사와 문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행사활동을 계획하고 논의하였다. 올해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 주요 행사로는 4월 8일 MSU에서 있을 봄 교사 연수회, 5월 6일 제10회 한국학교의 날 등이 있다.

매년 MSU에서 개최되는 봄 교사 연수회에는 한국학교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강사를 초청해 교사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특히 한국학교의 날 행사에는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각 학년별로 차별화하여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맞춤형된 다양한 커리큘럼을 계획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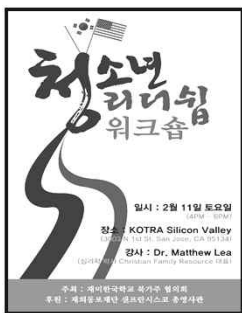
이번 신년 하례식을 통해 한국학교 교장들은 올 한해 각 학교의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한국학교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토의를 가지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북가주 지역협의회



회장 한희영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

일시: 2017년 2월 11일

장소: KOTRA : 실리콘밸리 무역관

한국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정체성 함양과 봉사 리더가 지녀야 할 자질 향상을 목표로 시행한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은 각 회원학교에서 활동하는 120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 년 동안 봉사를 마치면 미 대통령봉사상을 다음 해 워크숍에서 받게 된다. 이번 워크숍의 강사는 Matthew Lea 박사로 학생들에게 리더가 되는 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었고 학생들과 질문 응답을 통해 명쾌한 비전을 제시해주셨다. 또,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교 출신 선배들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각자의 미래를 꿈꾸어 보는 시간이 되어 주었다.



Matthew Lea 박사가 학생들에게 리더가 되는 길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다.



선배들과의 만남

(치과의사 조나미/ 바이오테크 이해진/ 컨설팅 황제인)



워크숍에 참여한 한국 학교 자원봉사 고등학생들이 지난 1년간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인정받아 미 대통령봉사상을 받았다.

북가주협의회 교장연수회

일시: 2018년 10월 14~15일

장소: Spring Hill Suite Marriott @ San Jose

북가주협의회는 집중적인 교장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1박 2일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난 10월 호텔에서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32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각 학교의 운영에 관한 현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함께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었다. 서류 작성에 관한 컴퓨터 사용법, 세금보고 등의 실무와 협의회 사업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시간과 각 학교에서 제출한 우수 운영 사례 등을 서로 연구해보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직지 홍보대사인 최미영 직전총회장님의 직지에 관한 강의도 있었다. 교장연수는 업무에 관한 해결점뿐만 아니라 교장으로서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뜻 있는 시간이 되어 주었다.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서북미 지역협의회



회장 영숙광림



1. 교장모임

일시: 2018 년 1 월 20 일 해송 (토요일) 2-5시
장소: 32703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 SAT II 모의고사

2018년 3월 16-18일 대상 5학년-12학년 신청학교
신청 마감일: 2월 20일 응시료 무료
신청할 곳: 오정선미 so@naks.org

3.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및 받아쓰기

2018년 4월 7일 시간 오후 2-6시
장소: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1328 So. 84th St.
Tacoma, WA 98444
신청 마감일: 4월 1일 일요일 오후 23:59PM

4. 통일 노래 부르기 대회 및 받아쓰기 시상식

2018년 5월 5일 오후 2-6시
장소: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1328 So. 84th St.
Tacoma, WA 98444
신청 마감일: 4월 29일 오후 23시 59분

5. 학예경연대회 (학력경시, 글짓기, 그림 그리기)

2018년 6월 2일 시간 9-5시
장소: Tukwila Community Center 12424 42nd Ave. S., Tukwila, WA 98168
참가대상: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회원학교
신청 마감일: 5월 27일 오후 23:59PM

6. 재미한국학교 학술대회2

2018년 7월 19일 - 21일
장소: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1551 N. Thoreau Dr. Schaumburg, IL 60173 시카고

7. 교사연수회

2018년 8월 25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1328 So. 84th St.
Tacoma, WA 98444
신청 마감일: 8월 19일 23:59PM

8. 교육기금 모금

2018년 11월 4일 일요일 저녁 5시 - 8시
장소: 코암 TV 32008 32nd Ave S. Federal Way, WA 98001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워싱턴 지역협의회



회장 김명희

교장(실무자) 회의

- 2/4/17, 우래옥
- 교장 및 실무자 51명과 임원, 내빈 포함 총 61명 참석
- 2016년 하반기 사업 보고 및 2017년 사업 계획 홍보
- NAKS 학술대회 및 사업 안내 홍보
- 지역별 교사 모임 통해 한국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교과서 재분배
- 낱말대회 수준



02.04.2

및 문제 유형 인지

봄 학기 교사연수회

- 2/25/17, 성 김 안드레아 한국학교
- 주제: 열린 참여형 한국어 교육
- 43개 학교 총 315명 참석
- 강사: 권오영 신부
- 총 10개의 분반 강의와 데이케어(한국종이접기 문화원) 운영



SAT 한국어 Subject Test

- 실시일자: 3월 24 - 26일
- 대상: 5-12학년
- 총 20개교 300여명 참여



04.01.2017

시낭송, 동화구연, 나의 꿈 말하기

- 4/8/17, 하상 한국학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25 개교 213명 학생, 심사위원과 내빈 포함 305명 참석
- 한국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
- 한국학교 학생들의 한글쓰기 창의력 향상
- 지역사회 한국학교들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인한 한국어 능력 향상
-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건전한 꿈을 생각하게 함



낱말대회 및 연합 학예 발표회, 대통령 봉사상 수상, 학업 성취상 수상

- 5/6/17, 헬로쉽 한국학교(헬로쉽 교회 MD campus)
- 낱말대회 총 26개교 239명, 연합학예발표회 4개교 48명, 대통령 봉사상 74명 수상, 학업성취상 15명 수상, 인솔교사 및 임원, 내빈 포함 483명 참가
- 한국학교 학생들의 글쓰기 창의력 향상
-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실력 점검 가능



- 지역사회 한국학교들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인한 한국어 능력 향상
- 학생들의 능력 개발
- 재외동포 학생들의 한국 전통 문화 이해도 향상

정기총회

- 일시: 6월 17일 6시
- 장소: 우래옥
- 총 51개교 교장 참석
- 2016년 결산 및 2017년 예산 보고
- 2016년 사업보고 및 예정 사업
- 17대 회장 선출: 김명희

제 35회 NAKS학술대회

- 일시: 8월 10일 -12일, Atlanta, GA
- 주제: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 기조 강연: 강경화 UN 사무총장 정책특보
- 운영자 워크숍, 한국어 교사 집중 연수
- 워싱턴 지역협의회 16개 학교 51명 참가
- 장기자랑: 최우수상 수상(지도: 김선화)
- 수상자 명단
 - * 교육부장관상: 정광미
 - * 국립국제교육원상: 한연성
 - * 국립국어원장상: 이연희
 - * 20년 근속: 이영복 / * 10년 근속: 박정현
 - * 15년 근속: 김명희, 김아영, 오승연, 한기선

가을학기 교사연수회

- 일시: 8월 19일 12-6시, 서울한국학교
- 주제: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 주 강사
 - 정영아 교수 (George Mason University)
 -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 교실에서 상호 문화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 오승연 교사 (벤엘한국학교 SAT 한국어 교사, HCPS ESL 교사)
 -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한국학교 교재와 교수방법”
- 11개분반 강의, 총 50개교 320명 참가

남부지역 교사연수회

- 일시: 9월 23일 12-6시, 주예수무궁화 한국학교 (주예수무궁화 교회)
- 주 강사
 - * 오승연 교사(벤엘한국학교 SAT 한국어 교사, HCPS ESL 교사)
 -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한국학교 교재와 교수방법”
 - * 박미경 교사(열린문 한국학교)



“동화를 이용한 통합적 활동학습”

* 조은영 사범 (워싱턴 종이문화 교육원)

“한국의 전통 청사초롱 종이접기”

- 참석학교 및 인원: 총 11개교 40명 참가

제 16 회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 일시: 11월 4일(토) 12-6시
- 장소: 열린문 한국학교 (열린문장로교회)
주예수무궁화한국학교 (주예수무궁화교회)
- 주제: 자연보호
- 학생 155명 참가



2017년 하반기 지역별 학교모임 (10개 지역)

통합예술 특별교사 Workshop

- 일시: 11월 19일,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중앙한국학교)
- 강사: 강선미 (나누리 무용단 대표) 김선동 (아카펠라 MTM 대표)
- 주제: "움직임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기/ 아카펠라로 재미있는 한국어 공부"

학부모 세미나

- 일시: 12월 2일(토)
- 장소: 종이마을 한국학교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 강사: 이광자 이사장 (재미한인교육재단과 통합한국학교 이사장 전 Maryland Clarksburg Elementary School 교장)
- 주제: "왜, 한국학교를 통한 Korean American 자녀 교육이 필요한가?"
- 2부순서: 박상화 교육원장님, 이승민 NAKS 총회장님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

워싱턴지역 한국학교와 교사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서로의 자원을 나누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교사의 밤 행사중 자매결연식을 가짐.

제1기 결연학교

- 뽐엘 - 버지니아 통합
- 소망 - 솔피
- 엘리콧시티 - 종이마을
- 중앙 - 핸즈

교사의 밤

- 일시: 12월 9일 5시-8시
- 장소: 중앙한국학교 (중앙장로교회)
- 참석학교 및 인원: 42개 학교 300명 참가

최우수 교사상	이희용 (꿈사랑 한글학교)		강티나 (종이마을 한국학교)		
5년 근속상	주경미 (5년)	전효정 (6년)	성주희 (5년)	박희정 (7년)	이윤숙 (5년)
	우태숙 (6년)	김은혜 (5년)	신현아 (5년)	차경엽 (5년)	김금미 (6년)
	한복남 (6년)	김선영 (5년)	홍성우 (6년)	주연희 (6년)	백은옥 (5년)
	김대현 (10년)	김혜정 (5년)	박서진 (5년)	이명주 (8년)	우주영 (6년)
	오유민 (7년)	홍은정 (5년)	장명희 (5년)	정연경 (6년)	한인손 (5년)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중남부 지역협의회



회장 김명숙

중남부 한국학교 협의회(www.msnaks.org)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www.naks.org)의 중남부 지부로 KY, IN, 그리고 OH가 연합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7년 2월에 중서부협의회에서 분리되어 초대 김용순 회장에 이어 현재 김명숙 회장 아래 모두가 지역 한글 및 문화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매년 학생축제, 청소년 리더쉽캠프, 한국(한글)학교 교사 세미나, 문화/역사 퀴즈대회 등이 있습니다.

임원: 회장 김명숙, 부회장 구교성, 총무 이현구, 서기 강형숙, 재무 김승주, 감사 윤한나/이상희

2017년 제10차 중남부 학생축제 (4월 29일 체리힐 한국학교)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오하이오, 인디애나 그리고 켄터키주에서) 약 205명의 학생/교사/도우미들이 참여하여,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동화구연대회를 통해서 한국어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사생대회는 3/1절을 배우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과 게임을 통해서 지역 한국학교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폐회식에서는 중남부 모범학생 표창 및 각종 시상식, 행운권 추첨 등 마지막까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 제7차 중남부 청소년 문화/역사/리더쉽 캠프 (5월 30일-6월 2일 Pyoca Camp)

이번 캠프는 크게 야외 캠프 활동, 한국 전통음악 교육, 그리고 한국역사, 문화, 청소년 정체성 및 리더쉽 강의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음악은 Donna Lee Kwon (현 UK 교수) 교수가 이들에 거친 집중교육 및 실습을 하였습니다.

야외 활동으로는 등산, 수상 활동(수영, 낚시, 워터 트램폴링 등), Low rope, Wall Climbing, 야간 담벽훈련, 캠프 파이어 등 캠프 지도자 및 중남부 임원들이 주관하는 안전하고 흥미로운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Bank에서 보내온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한 동해 표기 등 역사바로잡기에 관한 교육도 함께 하였습니다. 중남부 학생들과 임원들이 Pyoca Camp에서 함께 어우러져 3박 4일간의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도전되는 중남부 청소년 문화/역사/리더쉽 캠프가 되었습니다.



2017년 제18차 중남부 교사 연수회(9월 23일 켄터키 렉싱턴 한국학교)

김선미 강사가(미시간 협의회 회장) 오셔서 실용적인 한국학교 역사 교육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점심 후 교사 가요 대회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와 노래, 춤, 랩을 접목한 군밤타령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분반발표 및 토의를 통해서 각 반에 적합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였으며, 폐회식에서는 교사 가요 열창 시상 및 중남부 모범교사 표창이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교사들에게는 '한국을 알자' 역사 교육 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교사 연수회에서는 총 10개 학교, 5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제4차 중남부 문화/역사 퀴즈대회 (11월 18일 토요일, 오하이오 마이애미벨리 한국학교)

이번 퀴즈대회는 교장 회의를 통해서 역사는 고조선에서 삼국까지의 범위를 정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차가운 일기도 불구하고 6개 학교에서 저학년/고학년 그룹별 각각 약 25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대회장에서는 정답이 발표될 때마다 아쉬움과 기쁨의 탄성 소리가 교차하였습니다. 폐회식에서 수상자들은 협의회에서 준비한 상장과 더불어 푸짐한 상품도 함께 받았습니다. 더불어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는 참가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제1차 중남부 교장/실무자 연수 (2월 23일~24일): 시카고 박준성 교육원장과 각 학교 교장/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각 학교 행정/기타 애로 사항들을 토의하고, 2018년 중남부 전체 행사들에 대한 논의하였습니다.

2018행사 일정: 차세대 교사 workshop: 4월 27일~28일 (신시내티 제일 한글학교) / 학생축제: 4월 말 29일 (토) / 청소년 리더쉽 캠프: 5월 31일~6월 2일/ 교사연수 (9월 23일 인디애나 셋벨) / 중남부 제2호 회지/ 문화 역사 퀴즈대회: 11월 10일 (렉싱턴 토요학교 KY)

* 문의는 info@msnaks.org로 하시면 됩니다.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중서부 지역협의회



회장 윤현주

꿈나무 열린 마당,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및 장학금 수여식

4월 29일에 있었던 “꿈나무 열린 마당”은 각 학교의 학생들이 준비한 학예발표회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많은 한국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껏 뽐내는 학생들의 축제였다. 합창, 고전 무용, 북춤, 태권도, 사물놀이, 탈춤, K-pop 등 내용도 다양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방문한 국악팀을 초청하여 국악 연주와 창을 들어보고 우리 가락도 다 함께 배워본 흥이 나는 행사였다. 이날에는 “나의 꿈 말하기 대회”와 각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꿈나무 열린 마당

차세대 새내기 교사 워크숍

새롭게 시작하는 새내기 선생님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고, 한국학교 교사로서 수업과 학생 지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경험이 풍부한 교장 선생님께 배우며, 다 함께 토의하고, 실제 수업 계획안을 세워 발표해 보는 워크숍을 실시하여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및 장학금 수여식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콜로라도 지역협의회



회장 유미순

◆ 봄학기

1. 2017년 정기총회

- 일시: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서울바베큐

2. 봄학기 교사 연수회

- 일시: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30분 장소: 새문한국학교
- 주제: 다양한 한국어 수업방법



3.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

- 일시: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장소: 성로렌스 한국학교
- 콜로라도 지역협의회가 주최한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가 2017년 4월29일 성 로렌스 한국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백일장에는 총 7개 한국학교에서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가 사는 콜로라도'라는 주제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각자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 가을학기

1. 가을학기 교사 연수회

- 일시: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장소: 새문한국학교
- 가을학기 교사 연수회가 새문한국학교에서 열렸다. SATII 모의고사에 관련된 강의와 송편 만들기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2. 한국 문화 및 역사 체험장 및 한국학교 학부모 간담회

- 일시: 2017년 9월 30일 토요일 장소: 덴버 제자 한국학교
- 한국 문화 및 역사 체험장을 제자 한국학교에서 열었다. 한국 전통의 음악과 문화를 체험하는 장이 되었다. 떡메 치기, 팽이 돌리기, 탈 만들기, 고무줄놀이, 한복 입어보기, 등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즐기도록 하였다. 또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최하여 콜로라도 지역 한국학교 학부모들에게 한국학교의 필요성과 우리 아이와 빠르게 소통하는 법을 강의하였다. 초청 강사로 NAKS 이승민 회장과 남서부지역 협의회 임지현 회장을 초청하였다.



3. 학예발표회

- 일시: 2017년 12월 2일 토요일 장소: 새문한국학교
- 각 학교에서 대표팀들이 모여서 학예발표회를 열었다. 연극, 노래, 태권도, 사물놀이, 케이팝 등 다양한 달란트를 발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4. 교장 연수회 및 교사 사은회

-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 장소: 새문한국학교
-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교사 사은회가 있었다.
교사들과 함께 퀴즈와 게임을 통해 많은 상품을 나눠주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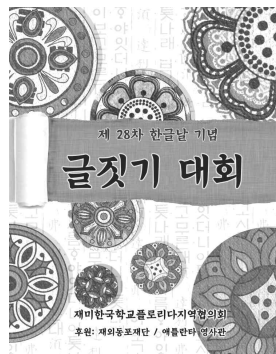
회장 김진희

2017년 제28차를 맞이한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주최 한글날 글짓기 대회(참가인원 241명)

우리 플로리다 지역협의회는 10월 9일 한글날을 전후로 한글날 글짓기 대회를 치르고 있다. 대회를 통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주제가 뚜렷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한글 사랑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특별히 연령별 학교를 대표하여 본선에 참가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실력을 겨룸으로써 지속적인 한글 교육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제28차 한글날 글짓기 대회는 모두 11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1. 잭슨빌 반석 한글학교 (1명) (총 참가 인원수 = 241 명)
2. 잭슨빌 아피 한글학교 (7명)
3. 탬파베이 열린교회 한글학교(10명)
4. 탈라하시 한글학교 (15명)
5. 팜비치 늘푸른 한국학교 (15명)
6. 올랜도 반석 한글학교 (18명)
7. 올랜도 푸른 동산 한국학교 (20명)
8. 올랜도 한국학교 (23명)
9. 탬파 돈보스코 한국학교 (24명)
10. 게인즈빌 한국학교 (40명)
11. 탬파 통합 한국학교 (68명)



유치부

- 유은지 (올랜도 푸른동산 한국학교) - 금상
- 조은형 (올랜도 반석 한글학교) - 은상
- 장한별 (게인즈빌 한국학교) - 동상
- 이주하 (팜비치 늘푸른 한국학교) - 장려상

초등부

- 양혜나 (팜비치 늘푸른 한국학교) - 금상

- 박건형 (탐파통합 한국학교) - 은상
- 송규은 (올랜도 한국학교) - 은상
- 이신 (탈라하시 한글학교) - 동상
- 정근영(올랜도 반석 한글학교) - 동상
- 신지우 (게인즈빌 한국학교) - 장려상
- 이호원 (탐파베이 열린교회 한글학교) - 장려상

중등부

- 전아영 (탈라하시 한글학교) - 금상
- 김가현 (탐파통합 한국학교) - 동상
- 오민주 (탐파 돈보스코 한국학교) - 장려상
- 김예원 (잭슨빌 아피 한글학교) - 장려상
- 송규희 (올랜도 한국학교) - 장려상

고등부

- 임요안나 (올랜도 푸른동산 한국학교) - 금상
- 한주연 (탐파통합 한국학교) - 은상
- 김주열 (잭슨빌 아피 한글학교) - 장려상

1년 2차례의 교사수련회(45차, 46차)

한국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 및 실질적 한국어 교수법 습득, 학교별 상호 네트워크 확립 및 정보 교환,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 문화 및 한글의 확장 방법 토론의 장으로서 1년 2차례의 교사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와 계획 - 하와이 지역협의회



회장 손애자

1. 2017년도 협의회 사업 및 행사 표 발송

- 일시: 1월 3일

2. 미주한인재단 하와이 주최 미주 한인 이민 114주년 및 제 12회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시: 1월 13일(금) 오후 5:30
- 장소: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리후아 볼룸

3. 2017년 봄학기 학생 모집 단체 광고 (TV)

- 일시: 1월 5일- 2월 6일(10일간)
- 학교: 아가페 참빛, 무궁화, 행복한 우리, 아이에아, 에덴, 천주교, 민족, 행복한 한국(8 개학교)

4. 나스(NAKS) 임원 및 미주 14개 지역협의회 회장 연석 회의

- 일시: 1월 20(금) -22일(일)
- 장소: Atlanta Marriott Marquis Hotel, Atlanta, Georgia (동남부 협의회 아틀란타)

5. 하와이 한인회 주최 제 98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 일시: 3월 1일(수) 오전 11시
- 장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본당

6.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방문

- 일시: 3월 8일(수) 오후 2시
- 장소: 총영사관 회의실
- 회견: 전병윤 신임 교육담당영사, 객해자 행정원과 면담

7. 제 21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 실시

- 일시: 3월 24일(금) - 26일(일)
- 장소: 각 한글학교
- 응시학교: 무궁화(4명), 비전(8명), 사모아(8명), 아이에아(4명), 오사랑(5명), 중앙(4명), 천주교(4명), 한인사회(4명), (총 8개 학교 41명)

8. 재외동포재단 2017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 초청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일시: 교사 연수회(7월 19일-24일), 교장 연수회(8월 21일-25일), 신청마감: 4월 6일

9. NAKS Leadership Junior Award 추천 협조

- 나스 각 협의회 한글학교에서 보조교사(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한 상으로 차세대교사 육성 프로그램으로 학기 중 150시간 이상은 Gold, 100시간은 Silver, 50시간은 Bronze상 수여함

10. 민주평통 하와이 주최 제 6회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 협조

- 일시: 4월 15일(토) 오후 2시

11. 본 회 비영리단체 등록/ 새로운 명칭으로 새 구좌 오픈

- 일시: 4월 27일 새 구좌 오픈, 오하나퍼시픽은행
- 새 명칭--재미한국학교 하와이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Hawaii Chapter

12. 제 18회 스승의 날 기념 종합예술제 및 제 12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동시개최

- 일시: 5월 6일(토) 오후 1시
- 장소: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사회관
- 후원: 재외동포재단, 주호놀룰루총영사관, 하와이 한인회, 미주한인재단 하와이, 하와이대학교 한국어 플래그십 센터

제 1부: 개회식

- 국민의례, 환영사, 축사
- 시상식(우수교사, 나스 리더십 어워드, 장기근속상, 차세대 교사상, 공로패 증정)

<수상자 명단>

1. 우수교사 표창자 명단(주호놀룰루 강영훈 총영사 상)

김단비: 하와이 코나 열방한글학교

김환희: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멜로디 안자이: 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

박종덕: 행복한 한국학교 교감

오연주: 아이에아한인문화학교 교사

장혜원: 무궁화 한국학교

전채린: 에덴 한글학교

정조현: 오사랑 한국학교

최현희: 사모아 한글학교

2. NAKS Junior Leadership Award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승민 총회장 상)

김혜림: 오사랑 한국학교

홍진혁: 오사랑 한국학교

이예담: 오사랑 한국학교

3. 15년 근속 상 (재미한국학교 하와이협의회 상)

이미셀: 아이에아한인문화학교 교장

4. 5년 근속 상

장혜원: 무궁화 한국학교

전채린: 에텐 한글학교

김진희: 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

류영미: 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 교감

멜로디 안자이: 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

5. 차세대 교사 상

홍진혁: 오사랑 한국학교

미셀 류: 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

사라 니시이에: 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

김보연: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김환희: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신미량: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이명주: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이연주: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이지원: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조명훈: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구하원: 행복한 한국학교

전리나: 행복한 한국학교

6. 공로상 증정

김용태: 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 교장 (재하와이학교 협의회 교육간사, 총무, 부회장 역임)

7. 감사 예술제

1) 피아노 연주- 코리 카파파 학생:

Yi Ru Ma 의 River flows in you

2) 노래와 댄스- 브랜든 정 외 4 명:

Twice 의 Cheer Up

제 2부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심사위원장: 전상이 교수 - 하와이대학교 한국어 Flagship Center 소장

- 심사위원: 김사빈 시인, 김지준 주호놀룰루 부총영사

- 심사기준: 원고내용(50%) - 학생의 눈높이에서 쓴 순수성, 솔직성, 건전성

발표태도(30%) - 자신감, 표현력, 자연스러운 말하기 태도

감동(20%) - 전달, 관객호응도, 시간은 3 분이내(4 분 넘으면 감점)

<수상자 명단>

1등: 정수지(10 학년) -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제목: 저는 의사가 되는데 꿈이에요

2등: 문수빈(4 학년) - 아이에아한인문화학교, 제목: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줄 유치원 선생님

3등: 임하담(2 학년)-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제목: 내가 하고 싶은 네가지

장려상: 양보미(5 학년)- 에텐 한글학교, 제목: 제빵왕 보미

이도현(2 학년)- 오사랑 한국학교, 제목: 나의 꿈은 과학자입니다

원로하(2 학년) - 오사랑 한국학교, 제목: 바다 동물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래요

홍준수(3 학년)- 아이에아한인문화학교, 제목: 아빠처럼 멋지고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김대원(3 학년)-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제목: 과학자가 될거예요

문수애(6 학년) - 아이에아한인문화학교, 제목: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선생님

이수연(2 학년) - 오사랑 한국학교, 정직한 기사가 될래요

야노 지수(3 학년) - 아이에아한인문화학교, 제목: 외과 의사 선생님

13. 직지세계화를 위한 직지 캠프 운영 참가자 모집 공문 발송

- 캠프 일시: 7월 10일- 13일
- 장소: 청주시 고인쇄 박물관 등 청주시 일원
- 인원: 30명 이내 (낙스 회원학교 학생 중 5학년 이상), 인솔교사: 3명
- 신청 후 참석: 김애니(사모아 한글학교), 권민석(사모아 한글학교) (하와이 2명)

14. 재외동포재단 2017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 초청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후 발표

- 교장 연수회: 조지영 (행복한 우리한글학교 교감)
- 교사 연수회: 박혜정 (사모아 한글학교 교사)

15. 경상북도/ (재)독도재단 주최 해외 한국학교 교사 초청 독도 연수자 모집

- 일시: 8월 7일- 10일
- 인원: 전세계 40명 중 미국은 5명 신청 받음
- 모집 신청 후 발표: 채자영 (사모아 한글학교 교장) 참석함

16. 제 67주년 한국전쟁 기념식 참석

- 일시: 6월 25일(일) 오전 10시
- 장소: 펀치볼 국립묘지 (본 회에서 참전용사에게 헌화함)

17. 교장회의 개최

- 일시: 7월 24일(월) 오후 6시-9시
- 장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교육관 114호
- 참석: 이미셀, 전선희, 윤자영, 김은숙, 류영미, 박선희,

이주희, 이민용, 손애자, 전병윤 영사

- 안건: 1) 2017년 상반기 행사 보고 및 하반기 행사 준비
2) 제 24회 한글학교 교사연수회(9월 9일)
제 3회 한마당 글잔치(10월 7일)
제 17회 동요 부르기 대회(11월 11일)
- 3) 재미한국학교협의회(낙스) 주최 제 3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8월 10- 12일)
- 4) 협력 기관과 협조사항 및 기타
재외동포재단 주최 연수회
지원금 배부 관련: 전병윤 영사가 올해 지원금은 10-15% 정도 삭감이 되어왔고, 지원이 안 된 학교도 발표함
- 5) 하와이지역 한글학교 발전을 위한 토론

18. 2017 가을학기 학생모집 단체 광고

- 일시: 8월 2일- 8월 28일까지(9일간)
- 학교: 행복한 우리, 무궁화, 에덴, 무량사, 천주교, 행복한 한국(6개 학교)

19. 재미한국학교협의회(낙스, NAKS) 주최 제 3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참석

- 일시: 8월 10(목) - 13일(일)
- 장소: Atlanta Marriott Marquis Hotel, Atlanta, Georgia (동남부 협의회 아틀란타)
- 주제: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 동시 개최: 제13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본선)
제 7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시상식)
제 2회 한국역사문화 리더십 캠프
- 사전 개최: 한국어 교사 집중연수: 8월 9일(수)-10일(목)
한국학교 운영자 워크숍: 8월 9일(수)- 10일(목)
- 후원: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외교부, 국립국어원, 국립국제교육원, 청주시, 주미한국대사관
- 협찬: 김구재단, 정주영기념미주재단, 독도재단, 예뵈한복, 국립한글박물관, 여주시
- 강의: 한국어(유치, 기초, 중급, 고급- 쓰기, 읽기, 어문규범 등), 역사, 문화 등 40여 개
- 특강: SAT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및 특강 등
- 라운드 테이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교육부 등 만남 및 토론 등
- Panel Discussion: AATK 강사회 회장, ACTFL Director,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캐나다협회 회장
- 시상식-장기근속교사-10년, 15, 20, 25, 50년(이미셀 아이에아한인문화학교 교장 15년 수상) 개교 20년 이상 한국학교, 등
- 표창장 수여- 교육부장관 상, 국립국어원 원장 상, 직지 상, 독도 상(하와이 한인사회학교)

- 제 13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본선
-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 대회 수상자: 하와이지역 해당 자 없음
-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시상:
- 정기총회: 2018년 제 36회 학술대회 개최지는 중서부협 의회 시카고로 결정됨
2018년 7월 19일- 21일,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Convention Center
2019년은 서북미 지역 시애틀로 확정됨, 하와이지역은 2026년에 개최 예정

20. 제 24회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개최

- 일시: 9월 9일(토) 오후 12시- 7시
- 장소: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주제: 차세대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사 전문성
- 후원: 재외동포재단, 주호놀룰루총영사관, 하와이대학교 한국어 플래그십 센터, 재미한국학교협의회(낙스), 워싱턴협의회, 북가주협의회, KBFD-TV
- 축사: 김지준 부총영사
전상이 교수 하와이대학교 한국어 플래그십센터 소장
- 주제강연: 임우진 (KBFD-TV 총괄실장)
- 제 1강의: 이시연 (미국방외국어대학교 교수)
한류 대중매체를 이용한 한국어교육
- 제 2강의: 손민호(낙스 SAT 전문위원, 산호세 임마누엘 한국학교 교장)
2017년도 한국어 SAT 경향분석 및 준비법
- 제 3강의: 이내원(이순신 숭모교육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전 이사장)
이순신을 통해 본 한국인의 리더십
- 교사 골든벨 퀴즈: 참석 교사 누구나 참석
한국어 맞춤법, 표준 한국어, 평소에 틀리기 쉬운 낱말 등 각 학교장이 3개씩 상품 보조, 최종 1인자에게 현금 200불 전달(전선회)
- 참석: 11개 학교에서 50명 참석

21. 하와이 한인문인협회 주최 제 5회 시화전/꽃꽂이 전시회 리셉션 참석

- 일시: 9월 19일(화) 오후 4시 30분
- 장소: 시청 전시실
- 학교 참여: 오사랑 한국학교 7명의 학생이 시화전 참가함

22. 하와이대학교 한국어 플래그십 센터 주최 한국 전통 혼례식 시연 및 전통 무용 참석

- 일시: 9월 21일(목) 오후 3시
- 장소: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3.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주최 제 4350주년 개천절 및 제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 일시: 10월 2일(월) 오후 6시 30분- 8시 30분
- 장소: Kapiolani Community College Ohia Dinning Room

24. 하와이대학교 한국어 플래그십 센터 주최 2018 한국어 교사연수회 개최 공지

- 일시: 2018년 2월 6일- 3월 1일(매주 화, 목요일 오후 6시-8시)
- 신청: 2018년 1월 26일까지(공문 참조)

25. 2017 하와이지역 한글학교 지원금 배부

- 일시: 10월 6일(금) 오후 2시
- 장소: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회의실

26. 제 571돌 한글날 기념 제 3회 한마당 글잔치 개최

- 일시: 10월 7일(토) 오전 10시- 오후 3시
- 장소: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사회관

제 1부 기념식:

- 환영사: 손애자 회장
- 축사: 전병운 영사
- 심사위원: 성백균 시인, 강민경 시인, 이소영 시인,

제 2부:

- 받아쓰기, 글짓기 대회 (각 부문 7개 분반으로 실시함), 태극기 예쁘게 색칠하기
- 식사: 무수비, 떡, 음료수(무수비는 아이에아 교인 6명이 500개 만들-사례비 지급함)

제 3부: 동시낭송 대회

제 4부 시상식: (이름만 게재함)

- 받아쓰기 낱말 기초 1등: 강장폴, 김동환, 김리아, 김민주, 김별하, 김태민, 라이든 요네다, 미영, 박노아, 오건우, 오토 퍼거슨, 유미주, 이민훈, 전하람, 제프, 존 주니어 콜맨, 지노 빌리니, 케이티, 최어진, 홍이든(20명)
- 받아쓰기 낱말 기초 2등: 김선우, 에이제이, 정유나, 제니, 최다나(기초 총 53명 실시)
- 받아쓰기 낱말 초급 1등: 류민서, 사나벨, 안미향, 안해나, 이수연, 이연아, 앤드류, 임예온, 진승리, 최지오, 태빈 마츄무라, 표누리, 홍예립(초급 총 18명 응시) (낱말 초급 2등 해당자 없음)
- 받아쓰기 문장 초급 1등: 김민제, 김서현, 김예원, 장준영, 표다민
- 받아쓰기 문장 초급 2등: 박예원, 안태성, 에스더 콜맨 김, 차지온 (총 19명 실시)
- 받아쓰기 문장 중급 1등: 양보미, 표윤서, 홍유정
- 받아쓰기 문장 중급 2등: 석지후, 황의진(총 15명 실시)

- 동시낭송 대회 초급 1등: 김서현, 2등: 이도현, 3등: 지노 빌리니, 장려: 차지온 (총 24명 참여)
- 동시낭송 대회 중급 1등: 이제이, 2등: 임하담, 3등: 이도현, 장려: 홍동현(총 6명 참여)
- 동시낭송 대회 고급 1등: 이찬영, 2등: 문수빈, 3등: 김대원, 장려: 김지혜(총 5명 참여)
- 글짓기 대회 장원: 배영서(사모아 한글학교)
- 글짓기 대회 고급 최우수상: 김리원
- 글짓기 대회 고급 우수상: 권민석
- 글짓기 대회 고급 장려상: 이찬영, 김지혜
- 글짓기 대회 중급 최우수상: 석효린
- 글짓기 대회 중급 우수상: 윤수아
- 글짓기 대회 중급 장려상: 김희원, 김애니 (글짓기 수상자 시상식은 동요 부르기대회 개최식에서)
- * 한마당 글잔치 참여 학교: 사모아, 아가페 참빛, 아이에아, 에텐, 오사랑, 중앙, 천주교, 하와이 한인사회, 행복한 우리, 행복한 한국(10개 학교)
- * 한마당 글짓기 대회 신청서: 총 158매

27. 낙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이순신미주교육본부 공동 주최 “제 1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공모전 발송

- 일시: 10월 24일 발송
- 참고 사이트: www.yisunshinusa.com
- 신청 및 공모 마감일: 12월 16일 오후 6시(동부 시간 기준)

28. 낙스(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임원 및 미주 14개 지역협의회 회장 화상 회의

- 일시: 11월 7일(화) 오후 3시-5시(하와이시간)
- 안건:
 - 1) 지역화장단 연석회의 건(2018년 1월 5일- 7일, 시카고)
 - 2) 제 3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준비/세부 토론(2018년 7월 19일- 21일, 시카고)
 - 3) 각 지역의 특별한 사업 나누기
 - 4) 각 지역의 어려운 점 및 정부 및 단체에 건의사항 나누기
 - 5)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를 위한 방안 논의 및 워크숍
 - 6) SAT 한국어 모의고사준비 (2018년 3월 16일- 18일 예정)
 - 7) NAKS-ACTEL Certificate on Teaching Korean
 - 8) 교사 ID 제작
 - 9) 회원학교 명부 정리 요망(가능한 빠른 시일에 협조)
 - 10) 학술대회 강사 추천 요청(추천 마감- 2018년 2월 15일)
 - 11) 2018년 회보 발간을 위한 협조(자료 제출 마감- 2018년 1월 15일)
 - 12) 기타

29. 제 17회 동요 부르기 대회

- 일시: 11월 11일(토) 오후 1시 30분- 3시 30분
- 장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본당
- 후원: 재외동포재단, 주호놀룰루총영사관, 하와이 한인회, 오키나와 퍼시픽은행, 88수퍼마켓,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이사장, 하와이 연세 하모니카 합주단

제 1부 기념식:

- 환영사: 손애자 회장
- 축사: 박봉룡 하와이 한인회장, 이상훈 주호놀룰루 교 육담당영사
- 심사위원장: 명수연 Leeward Community College 음악부 강사
- 심사위원: 남신혜, 이상훈
- 시상식: 제 3회 한마당 글잔치 글짓기 부문 수상자 (명 단은 26번에 있음)
차세대 한국어 리더상(NAKS Junior Leadership Award) (낙스 이승민 총회장 상):
-->미셸 류(천주교), 사라 니시이에(천주교), 다니엘 리 (에텐)
- 참가학교: 중앙, 천주교, 오사랑, 에텐, 한인사회, 아이 에아 에서 총 160여명 신청 참여 교사, 학부모 등 350 여명 참석

제 2부 동요 부르기 대회:

- 독창(지정곡: 소풍), 중창(지정곡: 눈꽃송이), 합창(지정 곡:금강산)의 자유곡 1곡씩 부름

제 3부 특별순서:

- 김현서(제 16회 동요 부르기 대회 독창 1등 수상 학생)
- 하와이 연세 하모니카 합주단(단장 김창환 목사) 16명: 동요 메들리 연주

제 4부 시상식:

- 독창 1등: 유니스 마이아(중앙 한글학교)
- 독창 2등: 김조연(하와이 천주교한글학교)

- 독창 3등: 손수진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 독창 장려상: 장현우, 지노 빌리니, 박예슬, 이수연
- 중창 1등: 정호진 외 2명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 중창 2등: 이연아 외 5명 (중앙 한글학교)
- 중창 3등: 아리아나 정 외 5명 (에텐 한글학교)
- 중창 장려상: 안수현 외 3명, 김지혜 외 4명
- 합창1등: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 합창 2등: 오사랑 한국학교
- 합창 3등: 에텐 한글학교
- 합창 장려상: 하와이 천주교한글학교, 아이에아한인문 화학교
- 특별상(주호놀룰루 총영사 상): 유니스 마이아(중앙 한 글학교, 6학년)

30. 수준별 역사문화 수업 교안을 위한 위원 추천 공문 발송

- 일시: 11월 8일(금) 발송
- 사업 일시: 2017년 12월 18일- 2018년 8월 31일
- 위촉 위원: 총 5명(사례금 지급)
- 위촉 자격: 3년 이상 역사/문화 수업 경험이 있는 자
- 위원 추천 마감: 12월 11일(월)

31. 2017년 정기총회 개최

- 일시: 12월 11일(월) 오후 6시
- 장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교육관 114호



남서부지역 협의회 - 알칸사 셔우드 한글학교

알칸사는 미국 중남부에 위치해 있고 자연 풍경과 날씨가 한국과 비슷한 곳입니다. 하지만 한인 거주자가 적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한글학교가 있는 셔우드 지역은 알칸사 중심 도시인 리틀락이 근접해 있고 공군 기지가 가까이 있어 오래 전부터 한인들이 조금씩 거주하던 곳입니다. 3년전 한글학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였었는데 한 두 분씩 교사 지원자가 모이고 한글학교를 제안하고 후원하는 지역교회(생수교회) 그리고 휴스턴한국교육원 도움으로 2015년 1월 첫 발을 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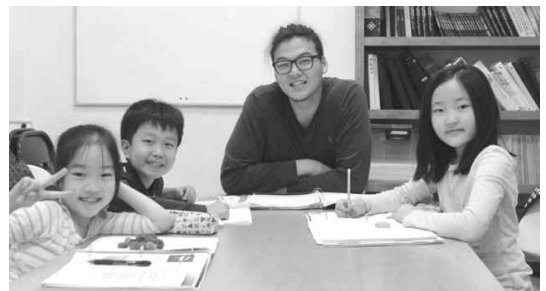
대부분 이민자 부모 세대가 그러하듯이 바쁜 생활로 인하여 따로 한글 공부를 시키기 어렵습니다. 알칸사는 한인 커뮤니티도 발전하지 못한 곳이라 우리말을 공부하기 대단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한글 교육 필요성이 절실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모으고, 교육 커리큘럼과 특별수업을 준비하고, 시범수업을 교사끼리 진행하여 서로 보완할 점을 이야기 하는 등 몇 달 동안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나갔습니다.

2015년 1월 교장 선생님과 다섯 분의 선생님, 15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모시고 개학식을 가졌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해왔지만 과연 잘 될까, 아이들이 곧 흥미를 잃지는 않을까 고민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막상 개학식에 온 아이들이 너무나도 해맑은 눈동자에 즐겁게 배우려는 모습에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2년 동안 4학기를 거치면서 점점 아이들 한글 실력이 향상되어 학부모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만큼이나 한글학교도 체계가 많이 잡히고 한 학기 한학기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류, K-Pop 인기 에 힘입어 미국 학생들도 같이 공부하는데 그 열기가 대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셔우드 한글학교는 계속 내실을 다지면서 동시에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직은 3년 차에 접어든 새내기 한글학교이지만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으로 한글학교를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과 알칸사생수교회, 남서부협의회, 휴스턴한국교육원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동북부 지역협의회 - 세종한국학교

겨울방학 역사체험 캠프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회원교인 뉴저지 소재 세종한국학교는 매해 방학마다 한국역사문화체험 캠프를 열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겨울 캠프에서는 '이순신과 거북선'이라는 주제로, 영상 및 이야기를 통한 수업과 함께 해전 놀이, 전통악기 연주, 붓글씨 쓰기, 이순신과 거북선 만들기, 한국 요리 만들기를 하였다. 연령별, 수준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교과서 위주의 수업 대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체험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동기를 부여하고, 방학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유지할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북부 지역협의회 - 푸른겨레학교

'열린 교실',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상상 동물이 들려주는 한국 역사

푸른겨레학교는 2014년 가을 학기부터 4월 봄방학과 12월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열린 교실'을 열어왔습니다. '열린 교실'은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돌아보는 듣고, 보고, 만들고, 놀며 배우는 역사문화체험 놀이터입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열린 교실, 그 여섯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옛이야기와 유물 속에 살아있는 상상의 동물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옛사람들이 간절히 바람을 담



아 만들어 낸 상상 동물의 세계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만났습니다. 또한, 그들의 소원을 담은 상상 동물을 만들어 그들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며 뛰어 놀았습니다.

미시간 지역협의회 -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36년의 전통을 가진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는 1977년 3분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1980년 10월 5일 11명의 교사가 모여 한인 2세들에게 한국어와 문화, 역사와 전통을 가르치며, 건강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80년 130여 명 학생의 등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로 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법과 창의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및 한국의 여러 이슈에 관심을 두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하여, 이민 사회에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을 돕고, 가족 간의 소통을 중시하며,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적응력을 키우며,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는 학생들에게 표현력,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으로 태권도와 만들기(공작) 및 한국무용(부채춤)을 배우고 있으며, 이야기대회 및 한글 성경퀴즈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학습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여러 활동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며 정서적인 발달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설날 잔치를 열어 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며 사물놀이, 태권도 및 부채춤 공연과 전통놀이 및 게임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인 부모에 대한 효도 및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며, 협동심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

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는 매년 학부모 회의(Parent Conference)를 통해 학부모님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에 대한 동기 유발에 힘쓰며, 학생들을 좀 더 이해하고 지원하며, 배움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는 K-Pop, 한식, 드라마,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등 전 세계적으로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미국 내에서도 세대교체로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우리말과 역사, 문화 교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힘입어 더욱 다양한 교수법과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중부 지역협의회 - 안디옥한국학교

한국학교도 말씀을 전하는 선교지

영적 지도자 · 지적 지도자 · 겸손한 지도자 양성

신앙 기반위에 선교사의 마음으로 2세들 교육

필라지역의 손꼽히는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안디옥교회가 지난 1994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안디옥한국학교.

한국학교 대부분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각 학교마다 '민족 정체성 교육'이라는 특별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안디옥한국학교는 특별히 더욱 철저히 종교적인 기반으로 세워진 한국학교이다.

안디옥 한국학교는 민족 정체성 교육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국학교를 선교지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2세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학교 이근아 교감의 설명이다. 우선 안디옥한국학교의 교육이념만 보더라도 그 사실은 분명하다.

▲ 기독교 정신과 신앙을 바탕으로 정체성이 분명한 2세 양성 ▲ 신앙으로 성공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양성 ▲ 하나님께 헌신하는 잠된 의미를 아는 지도자의 양성 ▲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지도자의 양성 ▲ 미국 주류사회에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 전문적인 지식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의 양성

기독교 신앙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학교에서 한인 1세대와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2세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안디옥한국학교가 바로 선교지라는 것이다.

또 학교의 설립 목적은 ▲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해 한국인의 뿌리를 알게 하고 ▲ 한국 이민의 문화와 역사를 공

부해 미 국속의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미래의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 기독교 문화와 올바른 신앙을 교육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내일의 미국과 세계의 지도자로 자라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근아 교감은 담임목사인 호성기 목사의 말을 빌려 “가만히 두어도 잘 자라는 잡초같이 못된 습관을 지닌 아이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되기 때문에 성경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신다”며 “자녀들을 멋대로 살게 하는 것은 죽으라고 방치하는 것이며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채 자라는 자녀는 결국 ‘어미를 욕되게’한다고 성경은 말씀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어만 해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고 구태여 한인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후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며 “그것은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한국학교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학교의 교육이 한국어만 배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배우고 뿌리를 배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다.

학교의 물리적인 상황을 본다면 안디옥 한국학교는 교회 자체가 옛 학교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학교 운영과 수업에 최적화된 곳이다. 수업은 연령과 언어의 수준에



맞춰 무궁화 1, 2반, 화랑 1,2,3 반, 태극반, 세종반, 서울반 등으로 학급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또 교사진은 현재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는 강사를 비롯해 초등학교 교사 출신, 유아교육 전공자 등이 포진하고 있으며 오후 특별활동 시간에도 각 분야의 전문 강사진을 통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후에는 여러 가지의 특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우리의 2세들이 동요, 미술반, 유아체육반, 수예반, 워십댄스반, 독서반, 어린이 성경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근아 교감은 지역 한인 학부모들에게 “가능하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한글과 한국문화를 익히도록 해 한인 2세로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가주 지역협의회 - 실리콘밸리한국학교



미국 IT 산업의 중심에 위치한 ‘실리콘밸리한국학교’는 <군 세계 바르게 의종계>라는 교훈과 “한국문화의 일을 바탕으로 우리의 말과 글을 익혀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바르게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재미 2세 교포들과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이사 분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더욱 전문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의 실리콘밸리한국학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커뮤니티 학교:

천 명이 넘는 학생들과 백 명이 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오십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공동체입니다.

2) 다양한 프로그램:

토요일 프로그램, 주중 방과 후 프로그램,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다양합니다.

3) 눈높이 교육과정:

한국의 국어 교과서로 수업하는 서울반, 재외동포용 교과서로 수업하며 다양한 특별활동을 하는 초등반, 이중언어 프로그램인 한영반, 중학교 이상 학생들을 위해 새롭게 구성한 청소년 프로그램, 유아 프로그램과 유치 프로그램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4) 정체성 교육:

애국가를 외워 부르고, 태극기의 의미를 알고 그릴 줄 아는

것부터 시작하여 조상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는 삼일절기념 행사까지 미국에서도 한국인이란 말 알아야 할 열과 혼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5) 다양한 문화교육 및 특활수업:

추석 송편 활동과 설날 잔치, 전교생의 김치 만들기 수업과 다양한 한국문화 양성수업 등으로 한국의 문화를 직접 접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24개의 특별활동반을 통해서 아이들 직접 고른 활동수업을 통해 흥미로운 한국학교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 역사수업:

각 반의 역사수업과 과제물을 통해 한국의 고유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 특별수업과 역사문화퀴즈 도전 골든벨과 같은 행사를 매년 개최하며 역사적 지식을 심어줍니다.

7) 주류사회에 한국 전파:

미국 주류사회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여 우리 학생들이 한국계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실리콘밸리한국학교는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기술 중심지의 한국학교로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가주 지역협의회 - 트라이밸리 한국학교

신나는 학교, 포근한 학교, 함께 가는 학교!

트라이밸리 한국학교를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동쪽으로 40마일 떨어진 도시. Pleasanton에 위치한 트라이밸리 한국학교!, 2003년 한인 2세대와 미국인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트라이밸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략 50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195명의 학생과 14명의 교사, 그리고 19명의 고등학생 조교 봉사자들로 구성된 안정된 한국 학교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신나는 학교, 포근한 학교, 함께 가는 학교’라는 표어 아래 매주 토요일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하지만, 선생님들은 8시 30분이면 어김없이 학교에 오셔서 이명섭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주시는 성경 QT를 15분간 참여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9시부터 시작되는 3교시 수업은 진지한 한국어 교육, 중간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낵시간을 갖고, 역사 문화 교육을 흥미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수 한국어 반은 8개 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0년 가을부터는 3단계의 영어트랙 한국어 반을 개설하여 순수 외국인인을 포함하는 한국어 교육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반 3년 과정 후에는, 순수 한국어 반으로 재편성되어 연속적으로 한국어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증가한 학생들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토요일 오후반을 추가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의 한국어 교육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교는 '전교생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한국어 교

육'을 위해 노력합니다. 해마다 모든 학생의 참여를 목표로, 교내 말하기 잔치와 맞춤법 대회를 실시합니다. 서로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 향상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영어권 학생들의 한국어 숙제를 돕는 '숙제 도우미 방'을 진행하여, 토요일 수업에 더 나은 준비를 돕습니다. 긴 여름 방학 동안에는 한국어 SAT 특강반을 운영하여 11월에 있는 SAT 한국어 과목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년간 한국어 능력 시험 고사장으로 지정되어 북가주 EAST BAY 지역사회의 한국어 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잘 담당해가고 있음에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신나는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추석 행사 및 한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진행되는 설날 행사는 옷놀이, 제기차기, 복주머니 만들고 세배하기, 떡국 먹기 등 체험을 위주로 한 문화 행사도 소중한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학교 자체 도서관의 운영 및 한국어책 기부를 통해서 서로 돌려보는 '책 나눠 읽기' 프로그램은 부모님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트라이밸리 한국학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트라이밸리 지역에서,

-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이 '신나게' 한국을 배우고
-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는 '포근한' 사랑의 맘을 가진 선생님들이
-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순수 외국인부터 한국어를 숙달하고자 하는 한인 2세까지 단계별 수준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함께가는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트라이밸리 한국학교 행사중에서



교내 받아쓰기 대회



설날 행사



학교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교내 말하기 대회

서북미 지역협의회 - 시애틀 .벨뷰 통합 한국학교- 시애틀 캠퍼스



교장 박준림

시애틀한인회와 시애틀총영사관, 시애틀 한글학교들이 체계적인 한인 2세 교육을 위해 뜻을 모아 1996년 시애틀 통합한국학교가 탄생했다.

시애틀 통합한국학교는 한인 후세들에게 한국어와 역사, 문화를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한인 2~3세 지도자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으며, 요즘에는 한류 덕분 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3년전 불과 두명으로 시작한 성인반이 지난해 30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50명이 등록할 정도로 한국학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말을 못하는 2세 학부모들과 함께 K팝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입양아를 양육하는 미국인 부모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입양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며 학교를 찾아와 자녀와 함께 등록한 경우도 있다.

특히 한국 어린이를 입양한 미국인 부모들이 한국학교에서 공부하며 지난해에는 여러팀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성인반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행사

설날 행사 (2/4/2017)

2학기 개강 첫 날이었던 2월 4일 시애틀 통합한국학교 유아반부터 성인반 전교생은 학년별로 돌아가며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학교를 찾은 한미교육문화재단 김재훈 이사장 부부와 윤부원·김시몬·조연경 이사과 박준림 교장에게 전통 세배를 한 뒤 덕담을 듣고 올해도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재훈 이사장은 올해부터 초급·중급·고급 세 반으로 증설된 외국인 성인반 학생들에게 “한인 2세 학부모들과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를 찾는 정성이 감격스럽다”며,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와 이유를 개인에게 다 물어보았다. 한국에 유학가기 위해서, 한국인 입양아를 위해서, 한국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한국인 2세이기 때문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후 격려하며 덕담을 하였다. 세배 행사가 끝난 뒤 이사장과 학생들은 학부모협회(PTA)가 정성을 들여 만든 사골떡국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떡국을 먹은 뒤 학생들은 반 별로 윷놀이, 제기차기, 종이접기, 한복 색칠하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와 문화를 익히는 시간을 가져 한국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다.



교지 표지 공모전 (3/4/2017)

올해 개교 21주년을 맞은 시애틀 통합한국학교는 매년 ‘꿈꾸는 나무들’을 주제로 표지 공모전을 열어,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민족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교지 제작에 동참하는 기쁨도 선사하고 있다.

3월 4일 실시한 올해 공모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나는 작품들이 많았다.

11일 시상식에서 권신연(12학년)양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권양이 대상을 받은 데 이어 외국인 성인반 학생인 자멜씨와 홍수윤(3학년)양이 금상을, 권지아(1학년), 김다인(5학년), 오환희(6학년)양이 은상을 차지했다. 수정(3학년), 에밀리아 하트(3학년), 김세린(4학년), 도하나(7학년)양과 한태일(8학년)군이 각각 동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유아유치반은 반 별로 금,은,동상을 시상하며 격려하였다.



교내 말하기 대회 (4/8/2017)

4월 8일 실시한 교내 말하기 대회에서 겁안사가 되어 유엔에 들어가 세계를 돌면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력 검사도 해주고 안경도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조리있고 설득력 있게 말한 강한나(6학년)양과 베드민턴 선수 가 되고 싶은 이유를 조리있고 재미있게 말한 임승찬(2학년)군이 교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5월 13일 열린 서북미 말하기 대회에서 학교 대표로 참석한 임승찬군은 대상을 강한나 양은 금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시애틀 통합한국학교는 매년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로 말하는 훈련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함양시키고, 발표력도 신장시키며,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의 꿈’과 ‘통일’, 그리고 자유로운 주제로 열린 올해 대회에서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참신하고 다양하고 진솔하게 표현하여 많은 호응과 공감을 받았다.



예술제 (5/27/2017)

5월 27일 2016~2017년 학년도를 마치는 종업식과 함께 예술제를 성대하게 치뤘, 한국학교를 보낸 보람이 있다는 학부모들의 칭찬과 격려가 쏟아졌다. 이날 학급별로 상장과 성적표 그리고 일 년 동안의 활동이 담긴 교지를 배부받은 후 전교생이 모여 예술제 행사를 가졌다. 김노아 군과 하진영 양의 사회로 진행된 예술제는 유아, 유치반부터 성인반까지 각 반이 특성에 맞게 합창, 율동, 연극, 악기 연주 등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학부모들에게 기쁨을 전달하였고, 서복미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승찬 군이 '나의 꿈'을 발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각 반의 발표가 끝난 후 특별활동 태권도 반의 태권도 시범과 사물놀이, 한국무용, 연극반, 합창반의 공연도 이어졌다. 그리고 유치반부터 12학년까지 시애틀 통합 한국학교를 다니다가 올해 졸업하는 권신연 양, 베리 에린 양, 뉴펠트 지원 군의 졸업장 수여가 있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 행사를 위해 한미 교육문화재단 김재훈 이사장님 부부와, 윤부원 이사님, 우상순 이사님이 참석하였고, 특별히 김재훈 이사장님이 격려사를 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공연이 끝난 후 일 년 동안 학생들의 점심을 제공하며 수고해 준 PTA임원들이 간식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학부모들은 대전하라고 기뻐하며 수고한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 학기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공연 장에는 종이접기, 한지공예, 유아미술, 초등미술, 초등미술, 신문 만들기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다.

**시애틀 통합 한국학교 추석 행사 (10/7/2017)**

한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10월 7일 토요일 풍성한 한국 체험행사를 가졌다. 학급별, 학년별 특성에 맞춰 추석의 전통과 유래, 명절 민속놀이, 세시풍습에 대해 배우고 동영상도 관람하였다. 그리고 직접 종이로 딱지를 만들어 친구들과 겨루기를 해보고,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윷놀이, 줄다리기, 사물놀이 악기를 경험하면서 신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외 반 별로 한복 종이 접기, 한복 색칠해보기, 소고 만들기, 장구 만들기 등도 해보고, 종이와 잡지를 이용하여 직접 추석 상 차리기, 추석에 관한 기사 작성하기 등 다양하게 추석을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예쁜 한복을 입고와 서로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였고, 특히 학부모회(PTA)에서 준비한 재료로 전교생이 직접 송편을 빚으며 즐거워했다. 매년 학교 수업 때마다 손수 점심 식사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는 학부모회는 이날 추석을 맞아 송편과 떡 등 추석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풍성한 먹거리로 가득한 추석을 느끼도록 해줬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많은 준비를 하여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은 걸렸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에 교사들은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였다.

**시애틀 통합 한국학교 공개수업과 학부모회의(10/14/2017)**

10월 14일 실시한 공개수업을 찾은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우리 아이들을 한국 학교에 보낸 보람이 있다"고 입을 모으며 기뻐했다. 시애틀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통합한국학교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노련한 교사들의 열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 교실에 직접 들어가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며 한글을 배우는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담임 선생님들과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특성은 물론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글교육이 가정과 한국학교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공감했다. 이어 진행된 학부모회의 시간에는 시애틀·벨뷰통합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교육문화재단 변종혜이사가 참여하여 통합한국학교 탄생 및 성장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어와 문화, 역사 등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학부모회(PTA) 임소연 회장은 "꿈나무들의 한글 교육은 부모도 함께 말아야 한다"며 "시애틀 통합 한국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데 학부모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이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고, 정보도 교환하며 친목도 도모하여 큰 보람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 박준림 교장은 학교 행사와 규칙, 특별활동을 소개하며 1학기 마지막 날에 있을 장터놀이에 많은 학부모들의 봉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등록에 2학기부터 더욱 참여해줄 것도 요청하며, 초등학교 기초반은 대기자가 있으니 1월에 시작되는 온라인에 서둘러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박 교장은 "토요일 하루 수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준비하는 교사들의 열정과 수고에 학부모님들께서도 성원과 박수를 보내달라"며 "학부모들도 한글교육과 자녀 교육을 위해 관심을 가지

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자존감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대화법을 소개하는 부모교육으로 이날 학부모회의는 끝났다.



독도 알리기 강연(10/28/2017)

10월 28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 알리기' 강연이 있었다. 이날의 강연자인 시애틀 총영사관의 오 유진 씨는 아름다운 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밌게 설명해 줬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강연 마지막에 시행한 서바이벌 OX퀴즈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정답을 맞춰 학습효과도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영사관에서 제공한 독도 기념 펜과 머크컵, 페이퍼 클립 등 다양한 상품도 받으면서 흥겹게 강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교내 글쓰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11/11/2017)

11월 11일에 시행된 교내 글쓰기,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18일에 진행되었다.

유아, 유치반과 초등 기초반이 참가한 그림 그리기 대회는 각 반별로, 글쓰기 대회는 '나의 꿈, 우리 가족,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존경하는 인물,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알리고 싶은 한국 문화'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초등부, 중등부, 성인부로 나뉘어 시상이 이루어졌다.

참가한 학생들 모두 성실한 태도로 사뭇 감동있는 글과 그림을 보여주었다.



시애틀 통합 한국학교 장터놀이 (1/20/2018)

1월 20일, 학생들이 기다려왔던 한국 장터놀이가 2017~2018학년도 1학기를 마감했다.

시애틀 통합 한국학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출석·일기·숙제·수업태도 등의 항목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보상으로 받은 한국 모형 돈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장터놀이를 준비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성인부 별로 구성된 문구, 장난감 코너와 음식 코너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여러 전통 놀이와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건을 사고 팔며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실습하는

체험의 장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모형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는 축제의 장이었다.

또한 중고등 학생들은 다양한 족자를, 특별활동반(유아미술, 초등미술, 종이접기, 한지공예)은 자신이 만든 각양 각색의 작품을 전시해 친구와 학부모들에게 자랑을 했다.

특히 한국 독도 문화재단에서 후원해준 커다란 독도 사진 베너를 배경으로 가족단위나 학급별로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직접 뽑아 주는 코너를 마련하여 독도사랑에 대한 의식을 갖게했으며, 한국에서 온 김민지씨 가족이 가야금을 가지고 와 직접 가야금도 연주하고, 신기해하는 학생들에게 가야금을 접해 보고 체험해 보게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시애틀 통합 학교 교사들은 직접 장을 보고 서로 도와가며 많은 준비를 했고, 학부모회 임원들은 직접 떡볶이와 주먹밥을 즉석에서 만들어 음식을 제공했다. 그리고, 시애틀·벨뷰통합한국학교를 운영하는 한미교육문화재단의 윤부원 이사과 변중혜 이사가 참석해 격려와 축하를 해주었고, 여러 학부모들이 도네이션과 봉사를 해주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었다.



하와이 지역협의회 - 하와이 중앙한글 예술학교

학교 이름이 말해주듯이 한글교육과 함께 미술, 음악, 한국요리(7학년 이상)를 함께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와이 한글학교 협의회 주최 동요 부르기 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계획은 보조교사의 활성화와 국악기 중심으로의 음악교육을 하려

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국악기를 직접 연주해 봄으로써 한국문화를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할 목적에서입니다. 보조교사는 고등학생 이상, 중앙한글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 중에서 선정해서 경험을 쌓게 해서 차세대 교사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는 한글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에 '왜?'라고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도 이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관심을 두게 하고 한글에도 관심을 끌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와이 중앙한글 예술학교의 교육목표입니다.



하와이 지역협의회 - 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

아름다운 섬 하와이에 위치한 저희 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는 벌써 개교 12주년을 맞이합니다.

각 등급별로 반을 나누어 정교사 6명, 보조교사 4명, 그리고 학교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총괄을 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 총 11명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민족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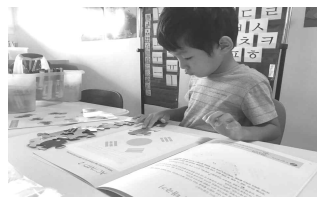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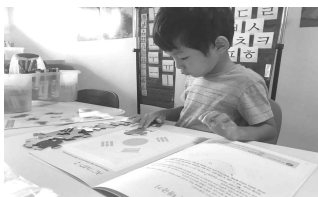
중 5명의 선생님은 우리 학교 출신인 차세대 교사들로 천주교 한글학교의 우수성을 자랑합니다.

저희 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는 이곳 재미한국학교 하와이협의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모범 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예절과 전통문화 그리고 특별활동 시간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림과 시를 만들어

첫 시화전을 열어 저희 학생들의 솜씨를 뽐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저희 한글학교는 추석을 맞아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혼연일치하여 송편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대접하고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는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훌륭한 한국문화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와이 지역협의회 - 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

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는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지상낙원이라 하는 하와이섬 중 푸른나무 숲이 우거진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오아후섬에 있습니다.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부설로 2세들의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1989년 9월 한글학교를 창설하였고 1995년 9월 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로 개칭하면서 한국어뿐 아니라 뿌리 깊은 한국의 전통 문화교육으로 미국 땅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2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도록 교육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전통문화를 배움으로 1세대 부모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부모를 더 이해하고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며 한국계 미국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더 나아가 조국의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리어 한글을 배우러 와서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어 했던 아이들이 한인문화학교를 졸업하고 하와이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배운 한국어를 자랑스러워하며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자랑스롭습니다. 그들이 지역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밑거름이 되어서 한국 2세뿐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두고 배우고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교회건축을 하여 새롭게 마련된 아름다운 사회관과 교육관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사랑과 열정과 사명감으로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가르치고 있으며 교사들의 자질 향상과 학생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사연수, 지역협의회 교사연수 교육, 온라인 교사 연수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은 1년 2학기제로 봄학기: 1월 - 5월 / 가을학기: 8월 - 12월

수업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 12시이며 3교시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명의 정, 부 교사진으로 한국 정교사 자격증과 교사수료증 소지 교사와 한글교육 열정으로 모인 교사들이 한국어 집중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유 민속 절기 행사로 제기도 만들고 딱지도 만들고 팽이치기도 하고 예쁜 한복도 입어보면서 세배 예절을 배우며 한국민속 체험을 합니다.

삼일절에는 태극기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한글날에는 동화구연도 하고 학부모와 함께 전통음식을 만드는 즐거운 시간도 있습니다.

재미한국학교 하와이협의회 주최 한마당 글 잔치에 참여해 낱말 쓰기 대회, 동시 낭송 대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동요

부르기 대회도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그 외에 한국민속관 관람 등 한인사회의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에아한인문화학교는 철저한 한글 교과 지도로 풍부한 어휘력과 바른 맞춤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쓰고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함에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뿌리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국의 찬란한 문화교육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나.다.라 예쁘게 써보기)



(추석 명절을 맞아 한복을 입어 봅니다)



(즐거운 음악 시간)



(플레이 도우로 예쁘게 떡도 만들어 봅니다)



(가을학기 발표회)



(가을학기 발표회를 마치고...)



(유치반 젤리로 모형을 만들어 봐요)



(한복 소개)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 탬파통합한국학교

1. 학교 소개

가. 위치

6018 N. Highland Ave. Tampa, FL 33604에 위치한 탬파통합한국학교는(Tampa United Korean School) 기존에 있는 교회건물 중 교육관을 토요일 하루 전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설립년도

1995년 3월 5일 여러 교회에 산재된 한글학교를 서부 플로리다 교회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플로리다 주 정부의 비영리 단체로 정식 인가를 받은 통합한국학교로 시작함. 2018년 현재 개교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 설립 취지

본교는 이중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한인 2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예술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전통 있는 한민족의 구성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계 미국인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여 한미 양국에 더욱 유능하고 유용한 인재가 되도록 돕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학교운영 조직

본교는 이사회(이사장, 부이사장, 재무이사, 총무이사, 감사이사, 고문 등 다수) 교사회(교장, 교감, 총무, 일반교사) 학부모회(학부모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토의 분석함으로써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인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 학교의 자랑
탬파통합한국학교는 6개의 학급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특별히 격주제로 운영되는 예체능 반 중 (음악/미술, 고전무용/태권도) 탬파지역 아시안의 축제인 아시안 페스티벌에 한국인을 대표하여 탬파통합한국학교 삼고무팀들이 출전하여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또한 우리 학교 태권도팀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행사에 참석하여 젊은 날 전쟁에 참전하여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친 결과가 헛되지 않았다는 찬사와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다.



나무는 은유를 산다

북가주지역협의회 오콜랜드한국학교 교사 박은희

바다를 건너 온 바람은 잎새를 날리며, 나뭇가지 속에서 태어나는 바람에게 소금기를 전한다.

얇은 해는 짙 내를 맡아 붉어지고 노래지며 땅으로 떨어진다. 잎새 속에서 바람이 살고 파도가 살고 파도를 일으키던 힘도 살아 잎새는 생전 알지 못했던 모래알의 숙곳침까지 산다. 땅으로 떨어져서도 잎새는 잎새가 아닌 것들을, 잎새가 아니었던 것들을 살고, 나무도 바람을 통해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에게도 이런 가을이 와서 내가 너를 살고 너는 나를 살아 우리가 고통 없이 서로를 통해 본다면 우리는 은유의 그리움이 멀리서부터, 아주 멀리, 까마득한 처음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겠다. 파도처럼 영원히 새로 시작하는 그리움. 나무를 향해 가는 길은 얼마나 멀고도 또한 지척이었을 것인가. 너에게까지 이르는 거리가, 나에게 있는 무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잎새 떨어지는 날, 비로소 이해한다.

30년의 봉사 활동

서북미지역협의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 부속 제일한국학교 교장 영숙고령

타코마 제일 한국학교에서 교사로 교장으로 나의 청춘을 바쳐 봉사한 지 어언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의 한국학교는 문창선 목사님이 1983년 8월 여름 한국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어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자원 봉사자들이 봉사해 오다가 봉사자들의 잦은 결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05년부터는 매주 금요일 저녁으로 옮겨서 등록비를 받고 교사들에게 사례비를 조금씩 드리니 그때부터는 책임감 있게 헌신하는 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여름이면 8월 초에 2주 동안 여름 집중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8년 9월 첫 주에 한국학교를 맡은 이후 5년 동안 휴가 한 번 가지 않고 2세들의 한글 교육을 위해 전념을 하면서 그동안 보람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한국학교에 와서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부모님과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을 보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20년을 유치부만 맡아서 가르치는 김정애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태극기는 한국 사람의 얼굴이라

며 태극기에 대해 가르치고, 애국가를 부를 줄 알아야 한다며 애국가를 가르칩니다. 또한, 한국 사람은 정직하게 인사도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 흑시라도 그 반에 들어가면 항상 모든 학생이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를 외쳐 너무도 아이들이 대견스럽습니다. 어떤 유치부 학생은 하루 종일 낮 동안 데이케어에 갔다가 피곤할 텐데도 한국학교에 가야 한다고 금요일만 손뼉이 기다린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김정애 선생님만큼 저도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 25년 이상 초등학교 3~6학년 기초반만 가르치는 수경벽스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얼마나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지 그 반에만 들어가면 학생들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과 더 오래 같이 있겠다며 때를 쓰는 학생과 부모님이 있어서 고민할 정도입니다.

한국학교를 하는 30년 동안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은 7학년 학생 1명이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어찌나 방해를 하는지 모른다고 불평을 해서 아빠한테 주의 좀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 앞에서 학생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학생한테 미안하던지 그 이후부터는 선생님들께 알아서 훈육하나라고 하고 절대로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일도 있습니다. 또 한번은 오래

전 여름 한국학교를 할 때 남자 선생님께서 학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뺨을 때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예수님을 믿는 한국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글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커서 여러 분야로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다시 우리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을 볼 때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한국학교가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여러 선생님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의 2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키우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 역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허병렬 선생님과 같이 50년 넘도록 꾸준히 한국학교를 위해서 봉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직지 캠프 참가 후기

북가주지역협의회 빛의 나라 한국학교 학부모 김효정

어차피 아이들과 함께 여름방학 동안 한국을 가게 되었기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 같은 거겠지, 별개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기대 없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아이 중에 ‘제비뽑기’로 한다기에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예요? 우리 집 두 아이가 함께 캠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캠프 경험을 통해 아이들과 저는 완전히 한국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 캠프가 단순한 ‘무료 3박 4일 한국체험 캠프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은 첫날 서울역에 도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인솔하게 될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들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아이들을 너무도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단체촬영 후 기차를 타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부모님들은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내 고국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배우러 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요. 저는 사실 ‘직지’가 뭔지 몰랐기에 현지체험 같은 것을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직지’라는 뜻이 ‘금속활자’라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배웠고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직지심경’의 그 ‘직지’였습니다. 창피했지만 한편 알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기차를 타러 가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인솔교사들이 수시로 단체 카톡 창에 사진과 설명을 보내주셔서 저희는 아이들이 체험하는 순간들을 함께 간 것처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매번 힘을 기울여 준비하신 음식들은 감동의 연속이었는데 입맛 까다로운 저희 아이들이 야속할 따름이었습니다. 메인 식사부터 간식까지 정말 세심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유명 중국집, 순두부집 음식, 간식으로 피자, 컵라면, 아이스크림까지, 부모님들은 이렇게 호사

를 누리고 있는 아이들이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참여 활동들은 아이들에게 확실히 신선한 경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주시청을 방문하여 담화를 나누고 직지사에선 박물관 관람과 함께 교육을 받고, 한복 입고 전통 떡 만들어 보기, 다도 경험하기, 옥도장 만들기, 옛날처럼 공책을 만들어 인쇄해 보기, 가야금 연주해 보기 등 거기에 시내 관광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꼭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술 쇼, 오락 시간 또한 무엇 하나 손색이 없었고, 아이들이 추억할 수 있는 사진이 담긴 머그잔, 액자, 푸짐한 선물까지 시간이 감에 따라 그 감동도 더욱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낯선 곳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아이들을 만나, 정말 뜻깊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더구나 저희 큰 아이는 사교성 부족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재미난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웠고, 사교성 좋은 작은 아이는 제일 친한 친구를 만들었다며 지금도 그 감동의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모든 정성을 쏟아 아이들을 잘 인솔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부모님께 이 직지 캠프에 갈 수만 있다면 꼭 보내라고 선전하는 ‘직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부지역협의회 글짓기대회

고급 대상

가족

뿌리깊은 나무 한국학교 박지현

이른 새벽 캄캄한 집, 아침에 창문 밖에 짹짹 소리를 내는 새들도, 매일 아침 자기가 알람이라도 된 듯 멍멍거리는 옆집 개도 모두 다 조용할 때 갑자기 “땡땡땡땡, 땡땡” 하고 누군가가 침묵을 깨버립니다. 몰래 폰을 하고 있는 저는 깜짝 놀랍니다. “뭐야? 새벽 4시 30분 인데... 누구 알람이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범인은 바로 알람이었습니다. 그럼 도대

체 누가 이른 새벽 4시 30분에 가족들 다 깨라고 알람을 맞춰 놓을까요? 아침 7시에 학교 가기 위해서 알람을 항상 맞추는 언니는 아닐 테고, 엄마도 일찍 일어나면 저희랑 같이 7시에 일어나는데... 그럼 범인은 바로 우리 아빠가 되겠죠. 저희 아빠는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30분에 집을 나가십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직장에 다니시

거든요. 이번에 여름부터 솔직히 여름 방학 때는 매일 한 11-12시쯤 일어나니까 아빠가 5:30분에 집을 나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자다가 5:00시에 눈이 떠져서 계속 폰을 하고 있었는데, 5:30분에 갑자기 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진짜 그때 도둑이 물건을 몰래 훔치고 재빨리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곧장 달려가 물었습니다. “엄마 새벽에 도둑 들어온 거 같아...” “진짜?” “응, 엄마. 내가 오늘 5시에 눈을 떴는데, 한 30분 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 열고 나갔어. 우리 어떻게 해?”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픽 웃으면서, “이 멍청아, 엄마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난 진짜 도둑인 줄 알고...진짜.” 저를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그 도둑 아빠다, 이 멍청아..” 전 진짜 누가 그때 제 머리를 망치로 친 줄 알았습니다. “아빠라고?! 아빠 새벽 5시30분에 일 나가?” “그래, 너는 딸이 되가지고 응, 아빠 출근 시간도 모르니?” 그제서야 저는 왜 아빠가 6시에 돌아 오시는지, 왜 매일 집에 들어오면 배고프다고 하는지, 다 이해가 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바로 달려가서 “아빠! 왜 말 안했어? 아빠 새벽 5:30분에 출근한다는 거..” 제가 화나 있었거든요. 아빠가 5:30분에 출근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아빠가 안 알려주셨거든요. 그때 아빠는 굉장히 편한 자세로 티비를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리시더니, “지현이 니가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아빠일.” 그때 저는 진짜 누가 테이프로 제 입을 막은 듯 병어리가 된 채로 아무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말이 맞았거든요. 아빠가 새로운 직업을 가졌을 때 저는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아빠 무슨 일 하는지, 언제 집에 오시는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아빠한테 진짜 무관심하구나. 아빠하고 얘기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바로 울었습니다. 아빠한테 미안해서, 아빠는 제가 뭘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학교에 몇 시에 가는지, 학교에서 언제 돌아오는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등등, 저의 대해서 모든 걸 아셨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거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빠가 좋아하는 취미는 뭔지, 다 몰랐습니다. 아빠 말대로 한번도 안 물어봤으니까요. 그렇게 나름대로 충격적인 사건(?)이 지나고, 엄마하고 단둘이 예능을 보고 있을 때, 제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매일 4시 30분에 깬

까? 나는 진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그러자 엄마가 “원래 부모라는 게 그래. 아빠는 우리 가족의 가장이고, 엄마 아빠 둘 다 언니하고 너하고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또 너희를 최고의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잖니.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매일 4:30분에 일어나서 7시에 돌아오냐. 그거 진짜 아무나 못해 지현아.” 제가 만약에 매일 5:30분에 집을 나가서 7시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면, 진짜 한 하루 하고 그만할 거 같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힘들겠 아니까 근데 아빠는 이걸 매일 한다니...아빠가 너무나도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또 너무나 존경스러운 게 아빠는 불평 없이 그냥 묵묵히 일을 다니셨죠.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아빠의 일터를 가서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박스를 나르는 모습을, 그때 아빠의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울컥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매고 있어서 너무나도 아빠가 힘들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빠의 앞모습을 보았을 때는 제가 봤던 오래전 결혼사진의 늙은하고 멋진 아빠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가정의 무게가 고스란히 보이는 주름에 잡혀있었습니다. 그게 마치 제 탓인 거 같다 죄송했구요. 저하고 아빠하고 말을 잘 안하는 편입니다. 아빠가 제 방으로 오셔서 얘기를 할려고 하면 막 어색해서 피하고 싶고, 전 언니랑 달라서 막 언니처럼 뽀뽀해줄게, 안아줄게라고 말도 못하고, 하지만 이제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고 싶습니다. 아빠! 전 아빠가 우리 박 씨 가족의 가장이라서 나의 소중한 아빠라서 실수투성이 절 언제나 사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이글은 제19회 미동북부 글짓기대회에서 대상을(뉴욕 총영사상) 수상한 작품입니다. 미동북부 글짓기대회는 뉴저지한국학교 주최로 올해는 83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가족" '엄마의 잔소리' 그리고 "우리 동네"라는 글제로 글을 지었습니다. **



동중부지역협의회 백일장

대상

내 비밀 이야기



다숨한국학교
임다빈 8학년
(13살)

저는 사실, 학교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 부모님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공개합니다. 부끄럽지만, 여기에 처음 다 말하겠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남자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매력 있고 멋진 남자를 인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모릅니다.

2년 정도는 지났지만, 저의 사랑은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남자를 이렇게 좋아하지만, 저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인기 많은 여자와 사귀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저는 대화도 못 해 봤는데 저는 다른 여자들보다 안 예쁘고 몸매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남자가 저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친구들은 남자 친구랑 데이트도 가지만 저는 아직 고백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면 저를 좋아할까요? 저랑 사귄다면요? 저는 어느 순간 고백을 하겠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슬프지만 괜찮습니다.

이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은 평생 기억을 하겠습니다. 저의 첫사랑은 분명히 기억에 남겨 둘 겁니다. 좋아하지만 저를 안 좋아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서 거절로 당해도 저는 괜찮을 겁니다. 저의 순수한 사랑은 절대로 가물지 않겠습니다.

저의 비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중부지역협의회 백일장

금상

사랑이란?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
신지은 7학년
(12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각각 다릅니다. 제게 사랑은요..사람입니다. 제 인생에 한 번도 “사랑이 뭘까...”라는 생각이 못 했었습니다. 뭐 사랑은 그냥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엄마이겠지...그것뿐이 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생각해 보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엄마뿐 만이 아니라 사람이었더라고요. 엄마, 아빠, 작은 오빠, 큰오빠, 우리의 가족, 항상 날 위해 언제나 있어 주는 친구, 등등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전 친구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좋아서 노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하루빨리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는 친구가 없었으면 오늘의 신지은이 아니 었습니다. 제가 자동차면 제 친한 친구들이 바뀌입니다. 자동차가 바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저는 친구들이 없으면 외로운 인생을 살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교회 “Retreat”를 갔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했을 때 울음이 터졌어요. 그때 저를 더 울게 만든 게 바로 친구예요. 제 등을 토닥토닥하면서 같이 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날 위해서 울다니” 그때, 기쁨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우리 가족. 그렇지요, 난 당연히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난 무엇을 하면서 내 사랑을 표현하지요? 난 받은 게 많아서 줄 것도 많겠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던 제 사랑의 표현이 아주 사소한 것들만 있어요. 근데 사소한 것들이 믿음과 사랑을 만드는 겁니다. 매년 생일이나 생신 때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것, 엄마가 힘들실 때 같이 밥을 차리는 것, 그 아주 사소한 것들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저한테 마찬가지로요. 제 엄마는 빨리 힘들시고 피곤해 지지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 위해 예쁜 옷도 사주고, 요리도 해 주시고,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라이더를 부탁하면 좀 늦어도 맨날 합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일찍 가고 늦게 들어오십니다. 근데 맨날 밝은 모습으로 저를 반깁니다. 숙제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영어를 빼고는 다 도와주십니다. 전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실 텐데 절 위해 같이 춤추고,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니까요. 최고의 아빠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오빠는 절 위해 걱정을 해 주는 게 너무나도 든든하고 좋습니다. 배구와 배드민턴도 가르쳐줍니다. 큰오빠도 진짜 든든한 오빠입니다. 대학생인데도 집에 자주 오고, 제가 놀자면 같이 놀아줘요. 이게 다 가족의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쓴 것은 친구와 가족의 아낌없는 사랑의 사랑입니다. 제게 사랑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24회 북가주지역협의회 백일장

으뜸상

우리 엄마



김시연
(6학년/ 산호세 천주교)

따스하고 폭신폭신한 엄마
어떤 날은 천사, 어떤 날은 악마
해처럼 낮에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달처럼 열심히 반짝
거리며 우리를 위하여 일한다.
어미 사자처럼 새끼들을 사랑스럽게
돌봐준다.

슬프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면 고무
줄처럼 내 기운을 다시 튕겨 올려준다.

나에게 화내도, 슬퍼해도 아직도 불이 활활 타는 것만큼 나
를 사랑하신다.

고마움을 말하고, 보답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말을 잘 듣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될 것이다.

그 고마움은 표현할 수도 없다. 아무것이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돈, 옷, 음식이라도 못 이기는 그 고마움이랑 사랑 감사합니
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지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북가주 이순신 프로젝트 대상 작품 (한울한국학교팀)



하와이지역협의회

2017년 한마당 글잔치

글짓기 부문 장원

유관순 열사님의 용기와 애국심

사모아 한글학교 8학년 배영서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떨쳤던
유관순 열사님은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다. 유관순 열사님
은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끔찍한 고문을 이겨내
시며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다.

내가 만약 유관순 열사님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일제군 앞으
로 가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쳐대지 못 했을 것이다. 그
러나 유관순 열사님은 열아홉의 꽃다운 나이에 태극기를 들
고 일제군 앞에서 당당히 3.1운동을 진행하셨다. 그리하여
결국 감옥으로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받으셨는데 그 중 내가
가장 소름 돋았던 것은 발로 열사님의 손을 누른 후 열사님
의 손톱을 통째로 뽑아버린 사건과 열사님의 귀 및 코를 절
단한 사건이었다. 그 밖에도 많은 고문들이 있었지만 결과적
으로는 열사님의 몸에 정말 단 한군데도 성한 곳이 없었고
몸 곳곳에는 칼로 인한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해 피고름이 생
겨났다. 이렇게 유관순 열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 받으
면서도 대한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셨다. 당시 유관순 열
사님의 나이는 열아홉, 열아홉이면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나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많이 무섭고 외로우셨을 것이다.

더군다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매일같이 고문을 당해 내

셨으나 제대로 된 밥과 치료약도 없어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유관순 열사님은 나라를 잃은 슬픔
과 불타오르는 애국심으로 이 모든 것을 버티오신 걸 수도
있다.

유관순 열사님은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를 위한 독립운동가
이기 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친구였을 것이다. 그들
또한 열사님이 많이 걱정되었을 것이고 열사님도 정말 수없
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세상에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인 가족과의 인연과
친구와의 우정을 뒤로 하고 끝끝내 강인한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단 한번뿐인 인생을 끝까지고통스럽게 마친 유관순
열사님께 나는 진심으로 감사한다. 오늘날에는 거의 전세계
가 일제의 만행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전세계가 앞으로
일제의 만행보다 자신의 조국을 위해 정말 참된 애국심을 보
여 한 나라의 역사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는 유관순 열사님 같
이 용기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주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만일 내가 내년에 한국에 나갈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유
관순 열사님이 계셨던 감옥인 서대문 형무소로 가족들과 함
께 가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한번 진심으로 유관
순 열사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하와이지역협의회

2017년 직지 캠프 체험을 다녀와서

사모아 한글학교 9학년 권민석

처음에는 한글학교에서 내 친구 하늘이하고 애니가 가는 거였는데 하늘이가 사정이 있어서 못가서 내가 가기로 했다. 처음에는 재미 없을 것 같고 가기 귀찮았는데 막상 가 보니까 진짜 재미 있었다. 나는 그냥 박물관에 가서 이것 저것 배우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매일 밤 야식을 주셨다. 야식은 치킨, 피자 그리고 라면이었다. 직지 캠프에서 제일 재미 있었을때가 친구들과 방에서 야식을 먹었을 때이다. 야식을 먹었을때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놀았다. 직지캠프는 나처럼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애들을 모아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프린터기하고 제일 먼저 프린트된 한국책을 가르쳐 주었다.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프린터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구르텐버그가 만든 프린터기라고 한다. 나도 학교에서는 구르텐버그가 만들었던 프린터기라고

배웠는데 직지캠프에 가서 배우니까 더 알게 되었다. 친구들과 배우니까 더 재미있고 즐거웠다. 이제 직지캠프에서 배운 한국이 최초의 프린터기를 만들었고 직지가 제일먼저 만들어진 책이다. 나는 이것을 배우고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라는걸 알게 되었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갈수 있는 기회가 오면 꼭 갈 것이고 이번 여름방학에 제일 재미있고 즐거웠던게 직지 캠프였다. 나는 지금도 친구들이 보고 싶고 아직도 직지 캠프에서 재미있었던 기억들이 새록 새록 떠오른다. 나는 지금 아메리칸 사모아에 있지만 내가 잘 모르는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싶다.



이승민 총회장

학생에게 바른 인성과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개별 선생님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별 선생님의 정체성은 학교와 협의회, 정제성 확립 안에서 가능합니다. 협의회, 정제성 확립과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헌신하신 18대 집행부, 지역협의회 회장님들 그리고 개별 선생님들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을 함께 걸어 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유미순 부회장

지난 몇 년 동안 나스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일 할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스러운 많은 분과의 만남을 통해 배움과 자람의 시간들이 되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7대를 이어 18대를 섬기면서 부족했던 저의 역할이 나스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동안의 일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배님의 수고와 열정으로 이끌어져 온 나스가 앞으로도 더욱더 훌륭하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각 지역도 함께 자라며 한국학교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정선미 부회장

지난 1년간 나스 18대 임원으로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의 장을 위해 크고 작은 꿈을 꾸며 달려왔고 올해는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를 놓고 크고 작은 열정을 나누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며 이렇게 함께 꿈을 꾸고 열정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마음을 나뉘가며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손글씨로 토박토박 시를 따라 쓰고 싶은 날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 나태주 시인의 <행복> 중에서 -

그리고 “언제나 함께 일할 동료가 있다는 것”도 큰 행복입니다.



황정숙 사무총장

17대에 이어 18대 NAKS 호와 함께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본을 보이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뛰는 회장단, 그리고 가족 같은 임원들과 함께했던 나스의 일은 참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날카로운 조언과 따뜻한 격려와 과분한 칭찬으로 함께 해 주신 NAKS의 선생님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8대가 지속 사업을 비롯해 신규 사업까지 참 사업 많은 사업을 했지만,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기에 14개 지역협의회와의 화음으로 멋지게 어우러져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각 지역협의회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가 저희 가훈입니다. 나스의 집행부로 일하며 받은 축복과 은혜를

둘에 새기고 늘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힘찬 기적을 울리며 출항할 19대호의 멋진 항해를 기원합니다. 차세대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오래도록 뵙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재무

엊그제 같은 첫 만남의 낙스 18대 시작이 벌써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후반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 년 동안 낙스의 살림을 꾸려 오면서 너무나 많은 분의 수고와 헌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써 주신 이사님, 자문 이사님, 지역협의회 회장님, 집행부의 총회장님 이하 임원님, 그리고 학술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이지 않는 많은 봉사자와 후원자님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머리를 맞대며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려는 집행부 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고 일선의 선생님들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 만들거나 하는 뜨거운 열정과 넉넉지 않은 물질로 힘들어도 힘을 합하는 아름다운 사랑도 체험하였습니다.

비영리 단체로서의 본연의 뜻을 이어 가려는 신중하고 낭비 없는 정확하고 알뜰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이 있다면 뒤따라오는 후배 임원들이 재정적으로 근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미국 땅 여러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을 알차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한나 홍보 간사

집행부 홍보를 맡은 지 어느새 2년 이 되어갑니다.

너무나도 짧고 바쁜 나날이었네요.

아무 생각 없이 선뜻 승낙을 하고 시작한 홍보의 일---

그동안 선배님들이 열심히 갈고 닦아 놓으신 길을 따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맘으로 조심스레 시작한 일이 어느새 1년이 넘어 2년째를 바라봅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나의 꿈을 찾아서'를 내게 되므로 보람과 벅찬 기쁨 속에 나도 잘 할 수 있어 하는 맘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재미한국학교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선배님들의 땀과 노고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누가 명예와 돈을 줘서가 아닌데도 우리 모든 선생님은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재외동포교육에 힘을 쓰시고 있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고,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멋진 미래를 꿈꾸어 보면서 웬지 모를 행복감에 젖어 듭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들!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우리 함께 더 노력해 봅시다.

저 또한 우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홍보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형 교육 간사

18대 임원중 막내로 집행부에 합류하여, 이런 실수 저런 실수들을 반복하며 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시키며 마무리하기까지 일 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미국이라는 내 나라도, 남의 나라도 아닌 곳에서 재미 한인 동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며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세들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 봅니다. 이를 위해 미국 각지의 보

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귀한 주말 시간을 한국학교에 기꺼이 반납하고 오직 인내와 끈기, 반복 학습을 통해 가르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동지애를 느끼며, 포기하지 말자는 파이팅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작은 수고와 고집들이 모여 재미 한인 동포의 근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학교 선생님들 파이팅!!



지수경 웹 간사

저에게 낙스 웹간 사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친숙하고 익숙했던 한 해였습니다. 웹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좀 더 수월해져서 협의회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은 모든 이벤트와 협의회 사업을 웹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완성되면 협의회 사업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웹에 올려지는 모든 소식과 공고가 좀 더 활발하게 읽혀서 회원학교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시카고 학술대회 또한 웹을 통한 등록부터 정보 공유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어떤 것을 찾으십니까? 낙스 웹을 방문해주세요!'



김윤희 편집장

먼저, 제18권 2호 회보를 발행하게 됨에 진정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유익하고도 낙스 역사의 산 증인 같은 회보를 위하여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반 전에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여유만만하게 잘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24년간 근속했던 공무원직에서 훌쩍히 퇴직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18대 낙스의 편집장 직책을 주어졌습니다.

이왕 맡은 일이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낙스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에게 만만치 않았습다. 책상에 앉아 몇 날 밤이고 새우고 또 새우는 날들이 원망스럽기조차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존경하는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얼굴과 학생들의 밝은 웃음을 떠올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존경하는 선생님,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요 우리 사회의 선구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아 묶은 이 회보가 선생님의 헌신과 봉사의 업적을 조금이나마 기리는 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으로 힘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최 학술대회

공항 미팅 & 샌딩 건

공항 미팅: 한 시간 간격으로 두 대 버스로 운행합니다.
(공항 O'HARE AIRPORT)

운행 시간		터미널	버스
1:00 PM	1:00	1	버스 A
	1:10	2	
	1:20	3	
2:00 PM	2:00	1	버스 B
	2:10	2	
	2:20	3	
3:00 PM	3:00	1	버스 A
	3:10	2	
	3:20	3	
4:00 PM	4:00	1	버스 B
	4:10	2	
	4:20	3	
5:00 PM	5:00	1	버스 A
	5:10	2	
	5:20	3	
6:00 PM	6:00	1	버스 B
	6:10	2	
	6:20	3	

MODERN TOUR 직원 각 터미널 수화물 픽업하는 곳에서
중간 지점에 피켓을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켓명: 재미 한국 학교 협의회

운행시간: 1:00 PM - 6:20 PM까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별도 연락해 주시면 시간과
인원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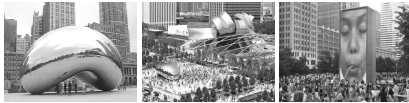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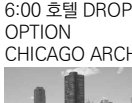
비용: \$15 / 일인당(운전사 TIP \$2)

공항 샌딩: 호텔에서 O'HARE AIRPORT로 이동

추후 공항으로 가시는 분들의 시간에 맞게 준비하
겠습니다.

비용: \$10 / 일인당 (운전사 TIP \$2)

0719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관광 프로그램 시카고 일일관광 (1안)

1일	9:30 AM	CHICAGO DOWNTOWN MICHICAGO LAKE & MUSEUM CAMPUS  MILLENIUM PARK  MEGGI DALEY PARK & BP BRIDGE  GARRET POPCORN  시카고 미술관 (외관)  LUNCH (CONNI'S PIZZA)  시카고 대학 TOUR (로펠로템플, 대학 본관, 도서관 등)  유혹의 마일 또는 시카고 RIVER WALK  시카고 강변 APPLE STORE  6:00 호텔 DROP OFF OPTION CHICAGO ARCHETURE BOAT (WENDELLA BOAT)\$45  OPTION WILLIS TOWER \$30 /시카고 360도 WITH TILTE (\$30) 
		차량: 인원에 맞게 가이드: 전문가이드 점심: 시카고 피자 TIP: 가이드 & 기사 \$10/ PP 출발: 4인 이상
		TOUR FEE: \$80 / PP

0719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관광 프로그램
시카고 일일관광 (2안)

1일	9:30 AM	바하이템플  노스웨스턴대학  쉐리던거리 CHICAGO BOTANIC GARDEN  점심(양식부페 또는 중식 부페) NAVY PIER  NAVY PIER 스텐레스 박물관 & 크리스탈 GARDEN  GARRET POPCON STORE  MILLENIUM PARK  RIVER WALK  시카고 강변 APPLE STORE  OPTION CHICAGO ARCHETURE BOAT (WENDELLA BOAT) \$45  OPTION WILLIS TOWER \$30 / 시카고 360도 WITH TILTE (\$30) 
		차량: 인원예 맞게 중식부페 가이드: 전문가이드 TIP: 가이드 & 기사 \$10/ PP 점심: 양식부페 또는 출발: 4인 이상
		TOUR FEE: \$80 /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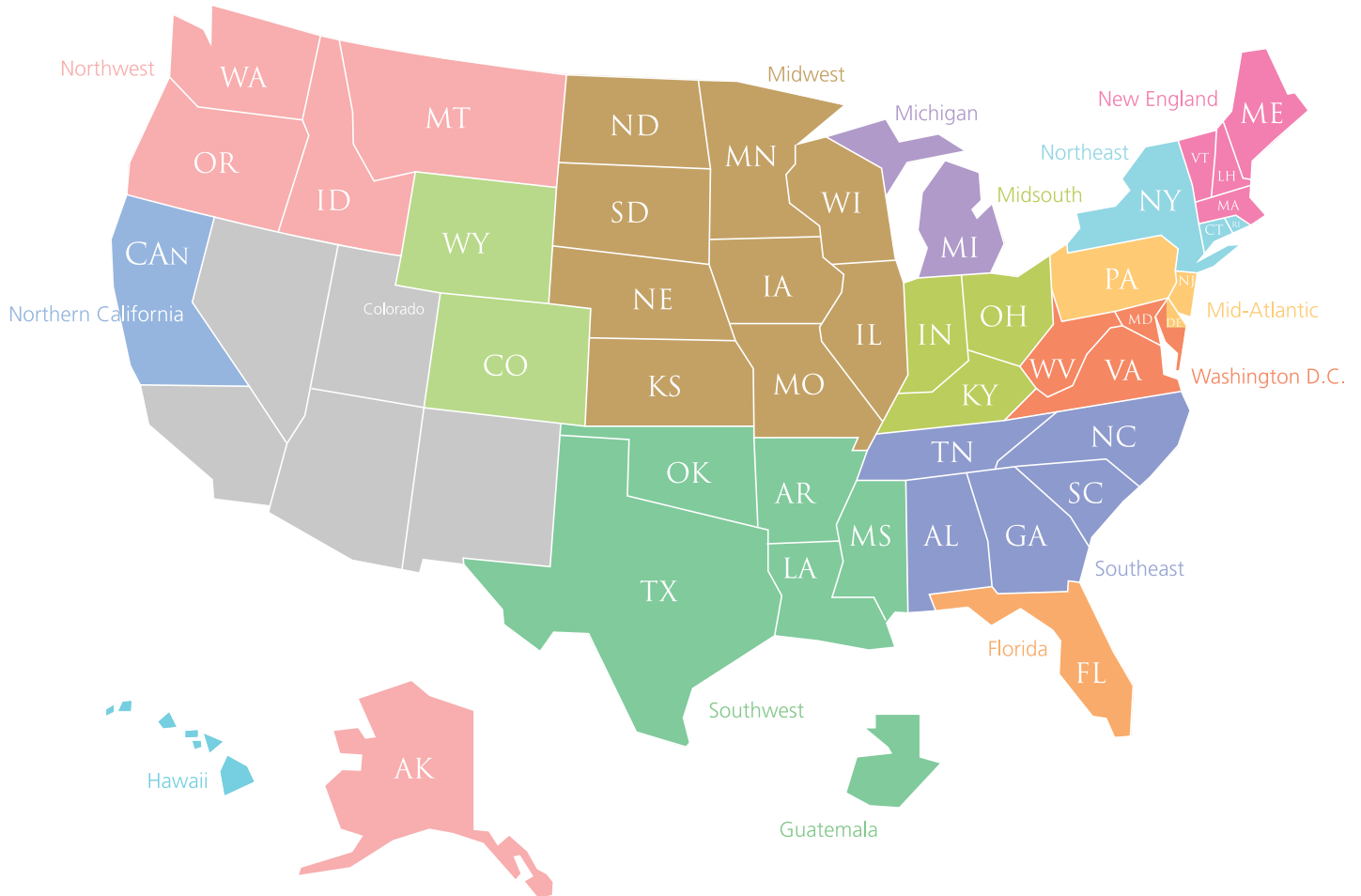
0719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관광 프로그램
시카고 / 노아방주 관광 (3안)

1일		시카고에서 인디애나 폴리스 출발 (4시간 소요) 점심: 양식부페 주 의사당 (State Capitol)  세계대전 기념 광장 (World War Memorial Plaza) - \$ free  인디애나폴리스 미술관 (Indianapolis Museum of Art) -외관  OPTION: 인디애나 폴리스 (Indianapolis Speedway)- \$25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신시네티 도착 (2시간 소요) 저녁 호텔 (신시네티에서)
2일	10:00 AM	노아 방주 TOUR  1:00 점심 (EMZARA'S KITCHEN) -특식  창조박물관 TOUR  시카고 로 이동 저녁 (한정식) 9:00 PM시카고 도착
		차량: 인원예 맞게 호텔: 2인 1실 가이드: 전문가이드 입장료: 노아방주, 창조박물관 MEAL: 1 BF, 2LN, 2DN TIP: 가이드 & 기사 \$20/ PP (식사 TIP 포함)
		TOUR FEE: \$280 / PP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지역협의회 분포도



남 서 부 지 역	김 윤 희 Stephanie Yuni Kim	254-681-4989	AR, LA, MS, OK, TX, Guatemala	swc@naks.org
뉴잉글랜드지역	이 현 경 Julia Hyun Lee	978-994-6177	MA, ME, NH, RI, VT	newec@naks.org
동 남 부 지 역	선우인호 Alex Inho Sonu	678-417-1275	AL, GA, NC, SC, TN	sec@naks.org
동 북 부 지 역	황 현 주 Hyunjoo Hwang Kim	201-723-9192	CT, NJ, NY	nec@naks.org
동 중 부 지 역	심 수 목 Simon Shim	267-577-7007	DE, NJ, PA	mac@naks.org
미 시 간 지 역	김 선 미 Sunmi Yoon	248-562-7741	MI, OH	mic@naks.org
북 가 주 지 역	한 희 영 Heeyoung Han	408-482-9509	CA	ncc@naks.org
서 북 미 지 역	조 영 숙 Young Suk Goering	253-230-3402	AK, ID, MT, OR, WA	nwc@naks.org
워 싱 턴 지 역	김 명 희 Sylvia Kim	240-252-9596	DC, MD, VA, WV	dcc@naks.org
중 남 부 지 역	김 명 숙 Myung Sook Kim	317-529-4633	IN, KY, OH	mssc@naks.org
중 서 부 지 역	윤 현 주 HyunJu Yoon	224-558-0061	IA, IL, KS, MN, MO, ND, NE, SD, WI	mwc@naks.org
콜로라도지역	유 미 순 Kristie Yoo	720-252-3295	CO, WY	coc@naks.org
플로리다지역	김 진 희 Jinhee Kim	813-767-8505	FL	flc@naks.org
하 와 이 지 역	손 애 자 Aei Ja Son	808-343-8045	HI	hic@naks.org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3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2018년 7월 19일-21일, Chicago, IL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Convention Center
1551 Thoreau Dr. Schaumburg, IL 60173